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11세기 고려-여진관계와 귀화정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韓 恒 都

2014년 2월

11세기 고려-여진관계와 귀화정책

지도교수 全 暎 俊

韓 恒 都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韓恒都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2월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Jurchen and
Naturalization Policy in the 11th Century

HAN, HANG-DO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Jurchen and Naturalization Policy in the 11th Century

This study delves into what meanings of the invasion by East Jurchen Beonjeok(蕃賊), Goryeo's response to the invasion, Goryeo's setting up of Gimiju(羈縻州, the loose rein province) and naturalization policy have on the northern expansion policy in the 11th century of early days of Goryeo Dynasty, namely, during the reigns from King Hyunjong to King Munjong (1009~1083).

Goryeo suffered from plenty of damages, due to East Jurchen pirates' invasion during the reigns from King Deokjong to King Jeongjong (1009~1046). As the northern boundary was confirmed with the fortress construction in 1033, Jurchen was classified into East Beon and West Beon. As organizing Jurchen villages in the boundary area into Goryeo's Gimi System(羈縻體制) which was loose rein area system, Gimiju(羈縻州) was set up. Goryeo won Jurchen chiefs over to their side by awarding local clerk posts or honorary general posts of Gimiju. On the contrary, the chiefs, who communicated secretly with Georan in Gimiju, were transferred to Goryeo's courthouse under escort; in this way, Goryeo executed military control in Gimiju.

Goryeo went on a conquest of Beonjeok(蕃賊) of East Jurchen twice during the period of King Munjong (1045~1083). Goryeo also prohibited Jurchen chiefs' paying a tribute by closing border, when the invasion of Beon pirates was severe. Goryeo bolstered the control of Gimiju, and thus, separated Jurchen villages to shape buffer zone with antagonistic Jurchen tribes. In 1073, the Jurchen chiefs in Gimiju communicated secretly

with the Goryeo Dynasty and requested that Goryeo's Guns and Hyeons (administrative district units) be set up.

Gimiju that was set up to control Jurchen by Goryeo in the 11th century showed different nature from the policy to conquer the northern area(北進政策) implemented by Goryeo since King Taejo. Goryeo actually enforced a policy to manage Jurchen region directly in order to flexib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of the north to the constructed fortress. Jurchen villages' collective seeking of protection from the Goryeo Dynasty or Goryeo's conquest against Jurchen demonstrated in the latter part of King Munjong's reign can be viewed as achievements made by Gimiju operation and naturalization policy implemented over a century.

目 次

ABSTRACT

I. 序論	1
1. 연구목적 및 배경	1
2. 연구 성과 검토 및 연구방법	2
II. 11세기 전반 동여진의 침입과 羈糜州의 형성	6
1. 현종~정종 대(1009~1046) 동여진의 침입과 대응	6
2. 羈糜州의 설치와 귀화정책의 시행	14
III. 11세기 후반 동여진 정벌과 羈糜州의 확대	26
1. 문종 대(1046~1083) 동여진의 침입과 동여진 정벌	26
2. 귀화정책의 강화와 羈糜州의 확대	40
IV. 結論	56
參考文獻	59
附 錄	64

< 표 목차 >

<표 1> 현종 대(1009~1031) 동여진의 침입과 대응양상	9
<표 2> 덕종~정종 대(1031~1046) 동여진의 침입과 대응양상	13
<표 3> 11세기 현종~헌종 대(1009~1095) 鄉職 보유 여진인 현황	23
<표 4> 문종 대(1046~1083) 동여진의 해상침입과 대응양상	26
<표 5> 문종 대(1046~1083) 동여진의 육상침입과 대응양상	30
<표 6> 1073년(文宗 27) 귀화 여진인에 대한 賜爵·賜姓名	50

I. 序論

1. 연구목적 및 배경

11세기의 동북아시아는 高麗·宋·契丹이 공존하는 다원적인 국제관계로 재편되었다. 고려는 현종 대(1009~1031) 거란과 사대관계를 이루었고, 송과는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여진은 遼 聖宗 대(982~1031) ‘東方經略’ 이후 거란의 靺鞨州에 복속된 상태였는데, 고려와 거란은 여진에 대한 귀화정책을 시행하여 변경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고려는 덕종 대(1031~1034) 장성의 축조 이후 인접지역에서 귀부한 여진촌락을 歸順州로 편제하여 靺鞨體制 하에 두었고, 정종 대 팔관회의 정례화와 함께 여진을 ‘東·西蕃’으로 인식하며 독자적인 天下觀을 형성하였다.

11세기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동북면과 동해안으로 침입한 蕃賊 세력이었다. 현종~정종 대(1009~1046)에는 동여진 蕃賊의 해상침입이 많았고, 문종 즉위 후에는 육상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문종 대(1046~1083)에는 기미주와 북방경계를 위협하는 동여진 번적의 본거지를 파괴하고 북방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동여진 정벌도 단행하였다. 둘째는 기미체제에 편제된 접경지역의 女眞村落이다. 고려는 蕃賊에 대한 군사적인 통제와 함께 여진촌락에 대해서는 賜姓·賜爵·賜物 정책을 실시하여 회유하는 귀화정책도 시행하였다.

덕종~문종 대(1031~1046) 고려의 靺鞨州 설치와 귀화정책의 시행은 고려전기 북방정책의 흐름에서 볼 때 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11세기 이전 고려의 북진정책은 군사시설의 구축으로 특정 지역을 점유한 후 사민과 내투인의 수용을 통해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덕종~정종 대(1031~1046)에 장성의 축조로 북방경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장성이북에 거주하는 접경지역의 여진촌락들에 대한 정책도 중요해졌다.

고려는 군사적인 통제를 전제로 한 여진 靺鞨州의 설치와 귀화정책의 시행으로 장성 이북에서 적대적인 세력과의 완충지역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는 예측하기 힘든 북방정세에 대한 대비로 여진 靺鞨州와 귀화정책으로 접경지역의 여진세력을 고

려의 우군으로 만들어 동북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蕃賊(海賊)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방어선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11세기 말 여진내부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고려가 설치한 靺鞨州는 상실하였다. 그러나 1세기에 걸쳐 진행된 여진 靺鞨州의 설치와 여진 귀화정책은 대외적으로는 여진에 대한 통제와 蕃賊의 침입을 막는 방어선이며, 내부적으로는 양계체제의 정비와 지속적인 축성을 통한 북방영역의 영토화에 도움을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11세기 동여진 蕃賊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고려-여진관계의 흐름 안에서 여진 靺鞨州 설치와 귀화정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문종 대를 전후로 對여진정책이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겠다.

2. 연구 성과 검토 및 연구방법

고려전기 對여진관계에 대한 연구는 10세기 초기 여진관계, 11세기 내투인의 수용과 북방축성, 12세기 尹瓘의 여진정벌과 동북 9城 축조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11세기 고려-여진관계에 관한 연구는 고려전기 여진과의 관계를 개관한 연구¹⁾ 현종 대 이전 對여진관계를 분석한 연구²⁾, 동여진 海賊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에 관한 연구, 靺鞨州의 설치와 상실에 관한 연구, 여진에 대한 인식³⁾이나 내투인에 관한

-
- 1) 김상기, 「여진관계의 시말과 윤관(尹瓘)의 북정」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1959; 朴賢緒, 「貴族政權의 對外政策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고려귀족사회의 성립, 국사편찬위원회, 1974; 서병국, 「高麗時代 女眞交涉史 研究」, 『논문집』 6-1, 관동대학, 1978; 나만수, 「高麗前期의 對女眞政策과 尹瓘의 北征」, 『군사』 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김봉두, 「高麗前期 對女眞政策의 性格」, 『전통문화연구』 1,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0; 김위현, 「契丹·高麗間의 女眞問題」, 『명지사론』 9, 명지사학회, 1998.
 - 2) 김광수,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史叢』 21·22,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7,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 『동양학』 7, 동양학연구소, 1977; 최규성, 「高麗初期 女眞問題의 發生과 北方經營」, 『백산학보』 26, 백산학회, 1981,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동국사학』 15·16, 동국사학회, 1981.
 - 3) 金南奎, 「高麗前期의 女眞觀;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加羅文化』 20, 慶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1995;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박경안, 「高麗人들의 女眞族에 대한 認識과 對外關係」, 『경향문화사학』 9, 문화원경기도지회, 2004; 추명엽,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한국사연구회, 2005; 이효형, 「高麗前期의 北方認識 -발해·거란·여진 인식 비교」, 『지역과 역사』 19, 부경역사연구소, 2006; 김순자, 「고려전기의 거란(遼), 여진(金)에 대한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26, 한국중세사학회, 2009; 고려시대 다원적 천하관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명호,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1999;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한국사연구회, 2005; 노명호, 「고려국가와 집단인식 :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전영준,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 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11~12세기 전후 麗·宋 양국의 문화인식과 『高麗圖經』」, 『다문화콘텐츠연구』 1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연구⁴⁾가 있다. 또 對여진정책과 신흥정치세력의 성장을 연결시킨 연구⁵⁾, ‘30姓 部落’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⁶⁾로 분류할 수 있다.

11세기 동여진 蕃賊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에 관한 연구⁷⁾는 현종~문종 대 ‘東女眞 海賊’의 존재와 해안지역 축성에 편중되었다. 이외에도 고려전기 수군의 운영이나 도부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동여진 海賊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양상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침입주체를 海賊으로만 한정하면서 동여진 蕃賊의 다양한 양상과, 고려-여진 관계 안에서의 의미, 羈縻州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해상으로 침입했던 蕃賊에 대한 시기별·양상별 분석이 요구된다. 또 11세기 對여진정책의 다른 측면인 羈縻州의 형성이나 귀화정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야 한다.

동여진 ‘海賊’의 실체에 대해 분석한 정요근은 고려에 침입한 동여진 해적의 주체를 『遼史』에서 확인되는 蒲廬毛朶部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사료를 통해 동여진 해적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遼史』나 『高麗史』의 기록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료의 상관관계나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해석된 사례들도 확인된다. 해적의 실체에 있어서도 고려에 침입했던 ‘蕃賊’ 세력이 모두 동일한 세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蕃賊들이 육·해상으로 다양하게 침입한 점, 蕃賊에 대한 직접적인 정벌도 존재했던 점에서 육상과 해상침입의 추이를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덕종~문종 대 蕃賊의 침입양상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변화하는 점, 문종 초 蕃賊의 주체가 확인되

- 4) 한규철, 「高麗 來投·來往 女真人: 渤海流民과 관련하여」, 『부산사학』 25·26, 부산사학회, 1994; 김남규, 「고려 前期 兩界地方의 原住·來投 女真人에 대하여」, 『경대사론』 8, 경남대학교 사학회, 1995; 박옥걸, 『高麗時代의 歸化人研究』, 국학자료원, 1996, 박종기, 「고려 전기 주민 구성과 국가체제 -來投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전영준, 「고려시대 異民族의 귀화 유형과 諸정책」, 『다문화콘텐츠연구』 13,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
- 5) 추명엽, 「11세기후반~12세기초 女眞征伐問題와 政局動向」, 『한국사론』 45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 6) 李東馥, 「遼末女眞社會의 構成 (I) : 黑水와 黑水靺鞨」, 『論文集』 17-1, 淸州大學校, 1984, 「遼末 女眞社會의 構成(II) : 三十部女眞의 問題」, 『人文科學論集』 3, 淸州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4, 「生女眞社會의 成長과 金 建國」, 『백산학보』 64, 백산학회, 2002, 徐炳國, 「高麗時代女眞交涉史研究」, 『關大論文集』 6-1, 關東대학교, 1978 ; 李根花, 「高麗前期의 女眞招諭政策」, 『白山學報』 35, 白山學會, 1988 ; 李根花, 「高麗前期의 女眞招諭政策」, 『白山學報』 35호, 白山學會, 1988 ; 金渭顯, 「契丹의 東北政策 - 契丹與高麗女眞關係之研究」, 華世出版社, 1981.
- 7) 池內宏, 「朝鮮高麗朝に於ける東女眞の海寇」, 『滿洲地理歷史研究』 8, 同庚帝國大學 文學部, 1921; 「高麗朝に於ける東女眞の海寇」, 『滿洲史研究』 中世 第2冊, 岡書院, 1937; 노계현, 「高麗文宗의 對宋外交再開와 多邊外交展開」, 『國際法學會論叢』 34-2, 대한국제법학회, 1989; 村井章介, 「1019年の女眞海賊と高麗·日本」, 『朝鮮文化研究』 3, 東京大學文學部 朝鮮文化研究施設, 1996; 閔賢九, 「고려 前期의 對外關係와 國防政策 : 文宗代를 中心으로」, 『亞細亞研究』 41-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30, 고려사학회, 2008; 김정현, 「고려시대 영동지역의 海防遺跡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15,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10; 한성주,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 : 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2011; 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사학연구』 107호, 한국사학회, 2012.

는 점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겠다.

문종 대 두 차례의 동여진 정벌을 고려와 金 건국세력과의 첫 번째 충돌로 분석한 연구⁸⁾도 있다. 그러나 11세기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통일된 외교주체나 사후처리문제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12세기 숙종~예종 대 고려-동여진의 관계와는 성격이 다르며, 1차 동여진 정벌이나 蕃賊의 침입 추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전기 여진초유정책에 관한 연구⁹⁾에서는 羈縻州의 운영과 여진인의 활용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특정 사례들로만 여진초유정책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고려-여진관계의 흐름, 특히 蕃賊의 침입과 귀화정책의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고려전기 북방경계의 획정과정에 대한 연구¹⁰⁾에서는 장성의 축조와 羈縻州의 설치를 蕃賊의 침입과 같은 고려-여진관계의 흐름이나 羈縻政策에 관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羈縻州의 설치의 의미와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고려전기 북진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 고려가 설치한 여진 羈縻州가 당의 羈縻州와 같이 二字名 羈縻州에서 一字名 羈縻州로 변화한 것이라는 연구도 있으나, 羈縻州에 대한 정책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문종 대 여진정책과 영토확장을 연결시킨 연구¹¹⁾도 있으나 11세기 여진관계 사료를 분류하여 정리하는데 머물렀다.

11세기 동·서여진 酋長에게 수여한 鄉職·武散階와 都領 칭호에 대한 연구¹²⁾도 확인된다. 특히 羈縻州의 여진인에게 부여된 將軍號가 武散階에 포함되는지, 어떤 서열체계로 구성되어있는지 논하였다. 그러나 여진인의 성명, 내조기록으로만 將軍號의 서열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 무산계 자체에 상하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점, 將軍號의 상승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는 점에서 將軍號나 鄉職 등 여진인에 대

8) 김순자,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2012,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학회, 2012.

9) 이근화, 「高麗前期 女眞招諭政策」, 『백산학보』 35, 백산학회, 1988.

10) 송용덕,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한국사론』 5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5, 「고려의 一字名 羈縻州 편제와 尹瓘 축성」,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학회, 2012

11) 신수정, 「고려 문종대 女眞의 동향과 고려 영토」, 『송실사학』 30, 송실사학회, 2013.

12) 旗田巍, 「高麗의 武散階-鄉職·耽羅의 王族·女眞의 酋長·老兵·工匠·樂人の位階」, 『朝鮮學報』 21-22, 朝鮮學會, 1961, 金美葉, 「高麗前期 鄉職·武散階의 重複支給研究」, 『성신사학』 9집, 동선사학회, 1991; 임경희, 「高麗前期 女眞人에 대한 將軍과 鄉職 授與」, 고려대학교 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3; 임경희, 『高麗史』 世家 중 女眞 관계 기사 역주, 『한국중세사연구』 20, 한국중세사학회, 2006; 김남규, 「高麗 兩界의 都領에 대하여」, 『논문집』 4, 경남대학교, 1977; 김갑동, 「고려시대의 都領」, 『한국중세사연구』 3, 한국중세사학회, 1996; 박옥걸, 「高麗 ‘都領’에 관한 再檢討」, 『한중인문학연구』 3, 1998; 강성봉, 「발해 수령과 고려 도령의 상관성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42, 고구려발해학회, 2012.

한 賜爵 행위의 시기별·양상별 특징, 賜爵행위가 蕃賊의 침입이나 羈縻州의 운영과 어떤 관계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11세기 고려-여진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11세기 羈縻州의 존재나 蕃賊의 침입 및 대응양상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전기 북방정책에서 11세기 對여진정책의 의미는 무엇인지, 羈縻州의 설치가 북방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羈縻州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1세기 동여진의 고려침입과 고려의 여진 羈縻州 설치와 귀화정책의 전개과정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겠다. 시기는 덕종~정종 대(1031~1046)와 문종 대(1046~1083), 대상은 동여진에 주목하여 분석하겠다.

II장에서는 현종~정종 대(1009~1046) 동여진 蕃賊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양상, 덕종 이후 북방축성과 羈縻州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문종 즉위 후 蕃賊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양상, 羈縻州에 대한 정책과 羈縻州의 확대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11세기 고려가 설치하고 통제한 여진 羈縻州와 귀화정책의 시행이 고려-여진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0세기와 12세기 북방정책이 다른 정세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고려전기 북방정책의 전개과정에서 11세기의 정책이 갖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11세기 전반 동여진의 침입과 靺靺州의 형성

1. 현종~정종 대(1009~1031) 동여진의 침입과 대응

11세기 고려와 동여진¹³⁾의 관계는 1010년(현종 1) 河拱辰과 和州防禦郎中 柳宗이 내조를 위해 和州에 체류하던 동여진인 95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처음 확인된다.¹⁴⁾ 河拱辰은 이전에도 마음대로 군을 동원해서 여진촌락을 공격하였다가 패배하여 유배형을 받았었다.¹⁵⁾ 河拱辰이 동여진인들을 살해한 것은 개인적인 보복으로 보이지만, 유배를 떠났다가 같은 해 12월 거란이 침입했을 때 복직되었다.¹⁶⁾ 동여진인들은 거란에 내조하여 이 사건을 알렸고, 康兆의 목종시해와 함께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였다.¹⁷⁾

- 13) 선행연구에서는 『高麗史』에 나타나는 ‘東·西女眞’ 혹은 ‘東·西蕃’을 동만주와 연해주에 분포했던 동여진(生女眞), 거란에 복속된 서여진(熟女眞)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 『高麗史』에서는 여진인의 출신지역에 따라 동계 이북에 거주하는 여진을 ‘東女眞’, 북계(平虜鎮·寧遠鎮 등) 이북에 거주하는 여진을 ‘西女眞’이라고 기록하였다. 고려에 내한·내투하는 서여진인이 거란의 관작을 보유한 경우도 많이 확인된다. 서여진인들은 거란의 관작을 지닌 채로 고려에 귀부(『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2年 4月. “乙丑 東北女眞首領太史 阿道間等五十九人來朝 有司言 太史 契丹職名也 阿道間今既歸化 請改授正甫 從之”) 하거나, 거란의 관작을 지닌 채로 고려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기록(『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5月. “...都領 大完 多於皆阿半尼等蕃軍將六百八十餘人力戰破賊...”)도 확인된다. 북계 이북의 여진인은 지정학적인 위치상 거란에 복속한 이후에도 고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11세기 고려가 시행한 동여진정책의 대상으로 동·서여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동여진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동여진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 14)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年 5月. “五月 甲申 流尙書左司郎中 河拱辰 和州防禦郎中 柳宗于遠島 拱辰嘗擊東女眞見敗 宗恨之 會女眞九十五人來朝 至和州館 宗盡殺之 故並坐流 女眞訴于契丹 契丹主謂群臣曰 高麗康兆弑君大逆也 宜發兵問罪”
- 15) 『高麗史』 卷94 列傳7 諸臣 河拱辰. “...拱辰嘗 在東西界 擅發兵入 東女眞 部落 見敗 顯宗初 坐流遠島 尋召還復職...” 長城으로 북방경계가 획정되기 이전에는 고려의 군사시설 밖이나 경계지역에서 여진세력과의 공방전이 많았을 것이다. 또 거란과의 전쟁이 있던 시기에는 서북면 정책에 주력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정벌(한성주,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 : 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 2011, 231쪽)보다 정찰과 같은 비정규적인 군사작전이 많았을 것이다. 이 시기는 고려의 군사시설 밖의 영역에서 고려와 교류하던 세력과 독립적인 세력이 혼재했었기 때문에 여진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전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낼 수도 있어서 신중했을 것이다. 10세기 후반 成宗 대(981~997)에는 압록강 여진과의 충돌도 있었다. 984년(성종 3)에 刑官御事 李謙宜가 압록강 연안에 關城을 축조하기 위해 출진하였는데, 압록강 여진의 거센 저항 탓에 총지휘관인 李謙宜이 피납되고, 출진 병력의 3분의 1만 귀환하는 대패를 경험한 적도 있었다(『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3年 5月. “命刑官御事 李謙宜 城鴨綠江岸 以爲關城 女眞以兵遏之 虜謙宜而去 軍潰不克城 還者三之一”). 金奉斗, 「高麗前期 對女眞政策의 性格」, 『傳統文化研究』 1,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0, 72~73쪽.
- 16)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年 12月. “召還河拱辰 柳宗 復其爵”
- 17) 동여진인들이 고려에 보복하기 위해 康兆의 정변을 거란에 알렸다는 견해(이미지, 「고려시기 對거란 외교의 전개와 특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8쪽)도 있다. 같은 해 10월 여진에서 좋은 말 1만 여 필을 거란에 바치며 종군을 요청하는 기록(『遼史』 卷15 「本紀」 第15 聖宗 耶律隆緒

고려와 동여진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재개된 것은 1012년(현종 3) 2월로 추장 麻尸底가 ‘30姓部落’¹⁸⁾의 자제들을 이끌고 내헌하였다.¹⁹⁾ 같은 해 정월에 長白山 30部 女眞이 거란에 내헌하여 책봉을 요청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에서 30姓 部落은 거란과 고려에 순차적으로 내조하여 양국과 통교를 재개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30姓 部落은 문종 말까지 1세기에 걸쳐 국왕의 즉위나 蕃賊의 침입이 극심했던 시기 직후에 집단으로 내조하는데, 지정학적인 위치상 고려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여진 해적의 침입이 처음 확인되는 시점은 1005년(목종 8)으로 安邊都護府 登州(강원 안변군)가 동여진의 침입으로 州·鎭 촌락 30여 곳이 파괴되었다.²¹⁾ 이는 登州 관내 고을 전역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큰 규모의 침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침입을 기점으로 진명현, 금양현, 울진 등 동해안의 축성이 증가하였는데, 동여진 해적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²²⁾ 이후 1009년(현종 즉위)에는 戈船 75척이 鎭溟口²³⁾에 배치되어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²⁴⁾ 이는 해안지역의 축성과 함께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군의 정비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군력의 증강과 해안방어시설의 구축에도 1011년(현종 2) 동여진이 백여척의 함선으로 경주를 침공하면서, 1세기에 걸친 동여진 해적의 침입이 시작되었다.²⁵⁾ 1012년 10월에는 毛逸羅·鉏乙豆²⁶⁾가 30姓 部落을 이끌고 화주에서 和盟을 요

6 統和 28年 10月)도 확인되는데, 和州館 사건으로 고려와 동여진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동여진의 종군 요청일 가능성이 있다.

18) 30姓 部落은 『遼史』에서 ‘長白山 30部 女直’, 『高麗史』에서 ‘30性 部落’으로 기록되었는데, 독자적인 대외무역과 외교행위도 했던 집단이었다. 김위현 역, 『國譯 遼史』, 檀國大學校出版部, 2012, 279쪽, 李東馥, 『遼末 女眞社會의 構成(II) : 三十部女眞의 問題』, 『人文科學論集』 3,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4.

19)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3年 2月. “壬子 三年 春二月 甲辰 女眞酋長麻尸底 率三十姓部落子弟 來獻土馬 三十姓 曰阿干頓 曰尼忽 曰尼方固 曰門質老 曰弗遮利 曰居質阿 曰黏開逸 曰尼質阿 曰耶邏多 曰邀揭囉 曰要悅逸 曰鬱唱 曰烏臨大 曰蒙骨拽 曰暈底憲 曰徒怠 曰耶兀逸 曰拏乙信 曰拏乙晏 曰冬骨逸 曰支闍逸 曰魚瑟股 曰麼乙逸 曰塗沒尼 曰云突梨 曰押開伊 曰惱一伊 曰排門異 曰佛徐逸 曰滿尹伊” 1012년(현종3) 2월에 있었던 내조가 고려와 공식적인 관계를 재개하기 이전에 사전 접촉으로 보는 견해(최규성,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동국사학』 15·16, 동국사학회, 1981, 158쪽)가 있다.

20) 『遼史』 卷15 「本紀」 第15 聖宗 耶律隆緒 六. 開泰 元年 春正月 己巳朔; 『高麗史』 卷4 「世家」 卷4 顯宗 3年 閏10月. “閏月 女眞 毛逸羅 鉏乙豆 率部落三十姓 詣和州乞盟 許之”

21) 『高麗史』 卷3 世家3 穆宗 8年. “春正月 東女眞 寇登州 燒州鎭 部落 三十餘所 遣將禦之”

22) 이근화, 『高麗前期의 北方築城』, 『호서사학』 15, 호서사학회, 1987, 9~10쪽.

23) 지금의 강원도 원산시 해안 일대로 鎭溟浦와 같은 곳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鎭溟都府署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김남규, 『高麗都府署考』 『사총』 11, 1966, 473~474쪽)가 있다.

24) 『高麗史』 卷82 兵志2 鎭戍. “顯宗 卽位 造戈船 七十五艘 泊鎭溟口 以禦 東北海賊”;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30, 고려사학회, 88쪽.

25)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2年 8月. “東女眞百餘艘 寇慶州”

26) 毛逸羅는 1031년(덕종 즉위) 현종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현종의 陵寢을 참배하게 해달라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毛伊羅도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卽位年 11月. “壬寅 東女眞將軍 毛伊羅來 獻馬 且言 以蕃地僻遠 不及會葬 願謁陵寢 許之” 鉏乙豆는 1011년(현종 2)에 70명을

청하였는데, 이는 8월에 동여진이 100여 척의 함선으로 경주를 침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²⁷⁾ 침입 직후 동남해안 지역의 축성이 진행된 것을 볼 때 해적이 침입했던 시기에는 방어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가 컸을 것이다. 같은 해에 다시 해적들이 경주 관내 속현을 침입하자, 도부서²⁸⁾에서 文演·姜民瞻·李仁澤·曹子奇를 파견하여 州·鎭의 병력으로 격퇴하였다.²⁹⁾

文演이나 姜民瞻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는 인물들인데, 북방경계와 거리가 있는 동남해안 지역이 동여진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자 또 다른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河拱辰이 1010년 5월에 여진사절들을 살해하였는데, 10월에 동여진이 100여 척의 병선을 동원해서 방비가 허술한 경주를 공격한 것은 동여진 사절들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보복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 고려와 동여진의 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和盟요청은 30姓 部落의 외교적인 중재였을 가능성도 있다.

동여진 해적의 침입 시기는 1011~1015년과 1028~1029년에 동계해안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적의 침입이 소강상태였던 1018~1019년 사이에는 울릉도와 일본이 피해를 입었는데, 1019년(현종 10)에 일본까지 침입했던 기록으로 볼 때 동여진 海賊의 활동범위가 동해 전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시기 동

인술해서 내현한 인물이다.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2年 5月. “五月 乙亥 東北女眞酋長鉏乙豆率其屬七十人來 獻方物 各賜衣服銀皿”; 毛逸羅와 鉏乙豆는 이전부터 고려의 초유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여진 추장들로 판단된다. 毛逸羅와 같은 성명은 이후에도 확인되는데, 내조기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019년(현종 10) 동여진 毛逸羅 → 1021년(현종 12) 서여진 毛逸羅 → 1025년(현종 16) 여진 추장 毛逸羅 → 1027년(현종 18) 동여진 추장 毛逸羅 → 1030년(현종 21) 2월에 동여진 毛逸羅 → 1031년(덕종 즉위) 동여진 장군 毛伊羅, 1035년(정종 1) 동여진 懷化將軍 毛伊羅, 1040년(정종 6) 동여진 寧塞將軍 慕伊羅까지 모두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최규성,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동국사학』 15·16, 동국사학회, 1981, 161쪽, 김봉두, 「高麗前期 對女眞政策의 性格」, 『傳統文化 研究』 1,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회, 1990, 73쪽. 거란과의 전쟁에서 참전한 고려측 여진인이 확인되는 점도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여진세력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宋史』 卷47, 高麗傳)

27) 1012년(현종 3)에 동여진과의 和盟이 동여진 海賊이 경주를 침입하여 대패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한성주,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 : 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 2011, 233쪽)가 있다. 구체적인 전황이 나타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며, 동여진의 일부 세력이 고려를 침입한데 대하여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던 동여진 세력이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28) 都府署는 동해의 水軍을 통제했고, 對日 외교의 기능도 수행했다. 김남규, 「高麗都府署考」, 『史叢』 11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6, 44쪽; 김호중, 「東南海都府署使의 設置와 그 機能 -金州本營을 中心으로」, 1999, 『민족문화논총』 20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121~129쪽.

29)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3年 5月. “東女眞 寇 清河 迎日 長鬐縣 遣都部署 文演 姜民瞻 李仁澤 曹子奇 督州郡兵 擊走之”, 『高麗史』 卷94 列傳7 姜民瞻; 1012년(현종 3)에는 ‘戎事’ 때문에 백성들의 농작이 어려우니 반찬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3年 2月. “教曰 語曰 百姓不足 君孰與足 頃因戎事 民失農業 道殣相望 念黎庶之若此 豈君父之獨安 其令尙食大官 減省常膳”

30)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30, 고려사학회, 103쪽; 1012~13년에는 清河·迎日·長鬐 등 동남해안 지역에서 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高麗史』 卷82 「兵志」2 城堡. “城清河 興海 迎日 蔚州 長鬐”, “顯宗 三年 城慶州 長州 金壤 又城弓兀山”

해 해상에서 고려 수군의 전력이 증강된 점, 침입예상지역과 피해지역에 방어시설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029년(현종 20)에는 朔方道の 溟州와 溟州 등 19개현의 租賦를 줄여주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³¹⁾ 이는 해안 지역의 생산기반이 파괴될 정도로 해적의 침입이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종 대(1009~1031) 동여진 해적의 침입과 대응양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현종 대(1009~1031) 동여진의 침입과 대응양상

번호	연도	지역	내용
1	1011년(현종 2) 8월	경주	100여 척 침입.
2	1012년(현종 3) 5월	경주 일대	文演·姜民瞻·李仁澤·曹子奇가 격퇴
3	1015년(현종 6) 3월	狗頭浦 ³²⁾	20척 침입, 鎭溟道都部署에서 격퇴 ³³⁾
4	1019년(현종10) 3월	일본	3~4월 중 약 50여 척 일본 침입 ³⁴⁾
5	1019년(현종10) 4월	동해 해상	鎭溟船兵都部署 ³⁵⁾ 의 張渭男이 적선과 교전, 일본인 구출 및 송환 ³⁶⁾
6	1028년(현종19) 5월	禮州 平海郡 (경북 영덕군)	적선 4척 노획, 포로 전원 참수 ³⁷⁾
7	1028년(현종19) 10월	高城 (강원 고성군)	적선 15척 침입 ³⁸⁾
8	1028년(현종19) 10월	德州 龍津鎭 (강원 문천군)	中郎將 朴興彦 등 70여 명 피납 ³⁹⁾
9	1029년(현종20) 윤2월	동해 해상	船兵都部署判官 趙閏貞이 적 격퇴 ⁴⁰⁾
10	1029년(현종20) 3월	溟州 (강원 강릉시)	兵馬判官 金厚가 적 침입 격퇴 ⁴¹⁾
11	1029년(현종20) 5월	洞山縣 (강원 양양군)	蕃賊 4백여 명 침입 ⁴²⁾

31) 『高麗史』 卷80 食貨志3 賑恤. “顯宗 二十年七月 以朔方道 登溟州管内 三陟 霜陰 鶴浦 派川 歙谷 金壤 碧山 臨道 雲岩 叅巖 高城 安昌 列山 杆城 翼嶺 洞山 連谷 羽溪等 十九縣 並被蕃賊侵擾 特蠲租賦”, 『高麗史』 卷94 「列傳」 卷7 諸臣 李周佐; 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역사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56-57쪽.

32) 鎭溟道都部署 관할 지역인 점에서 동계 해안일대로 추정된다.

33)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6年 3月. “己亥 契丹侵龍州 女眞以船二十艘 寇狗頭浦 鎭溟道都部署擊敗之”

34) 동여진 해적의 일본침입과 고려수군의 피납일본인 구출은 고려전기 對일본관계 재개의 분기점이 되었다. 손승철·김강일 편역, 「1019년의 女眞해적과 일본」 『동아시아 속의 중세한국과 일본』, 경인문화사, 2008.

35) 鎭溟道都部署와 같은 조직인데, 명칭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36)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0年 4月. “丙辰 鎭溟船兵都部署 張渭男等獲海賊八艘 賊所掠日本生口男女二百五十九人 遣供驛令鄭子良押送其國”

1018년에는 고려 정부가 직접 울릉도에 李元龜를 파견하여 농기구를 지원⁴³⁾하였으며, 1020년에는 동해안에 피난했던 울릉도의 민호를 돌려보냈다는 기록⁴⁴⁾도 확인된다. 또 1022년에는 동해안에 피난했던 울릉도의 민호를 禮州(경북 영덕군)에 정착시킨 뒤 편호하였는데⁴⁵⁾, 우산국과의 교류를 어디서 관할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도부서에서 관할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산국 주민들이 정착한 지역은 고려와 교류할 때 머물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를 고려로 편입하는 조치는 확인⁴⁶⁾되지 않는데, 1032년(덕종 1)에 羽陵 성주가 아들인 夫於仍多郎을 보내서 내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거주하는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⁷⁾

동여진 해적이 일본을 침입했던 때가 1019년(현종 10) 3~4월이다. 그런데 1015(현종 6) 3월과 1019(현종 10년) 4월 사이에 동해안으로 침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 고려의 해안방어는 수군이 연안항로를 순찰하며 蕃賊의 상륙을 저지하며, 적이 상륙하더라도 鎭·戍 등 해안방어시설에서 관측하고 방어하는 단계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침입이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028~29년 사이에는 동여진 海賊의 침입이 동계 해안에 집중되었으며, 10~30여 척 규모로 나타난다.

1019년에는 동해 해상에서 해적과 교전하던 중 구출된 일본인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供驛令 鄭子良에게 명하여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고려수군이 평상시에 대규모로

37)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19年 5月. “辛丑 女眞來攻平海郡 不克而還 追捕賊船四艘 盡殺之”
 38)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19年 10月. “丁亥 東女眞賊船十五艘 寇高城”
 39)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19年 10月. “己丑 侵龍津鎭 虜中郎將 朴興彥等七十餘人”
 40)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20年 2月. “己亥 女眞賊船三十餘艘來寇東鄙船兵都部署判官趙閔貞擊走之”
 41)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20年 3月. “庚辰 東女眞賊船十艘寇溟州 兵馬判官 金厚 擊却之”
 42)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20年 5月. “乙丑 東女眞四百餘人寇洞山縣”
 43)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9年 11月. “...于山國 被東北女眞所寇 廢農業 遣李元龜 賜農器”, 『高麗史』 卷79 『食貨志』2 農桑.
 44)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0年 7月. “于山國 民戶 曾被女眞虜掠 來奔者 悉令歸之”
 45)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3年 7月. “丙子 都兵馬使奏 于山國民 被女眞虜掠逃來者 處之禮州官給資糧 永爲編戶 從之” 禮州의 平海 일대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역사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54쪽)가 있다.
 46)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30, 고려사학회, 95쪽.
 47)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元年 11月. “丙子 羽陵城主 遣子夫於仍多郎來 獻土物”; 1157년(毅宗 11)에는 金柔立이 파견되어 주민이 거주할 만한 지역인지 조사하게 하였는데, 거주환경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을 이주시키지는 않았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 시기에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없었다는 것인데, 동여진 해적의 침입이 활발하던 시기에 고려로 편입한 것인지, 울릉도가 동여진에 의해서 소멸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高麗史』 卷18 世家18 毅宗 11年 5月. “王聞東海中 有羽陵島 地廣土肥 舊有州縣 可以居民 遣溟州道監倉 殿中內給事 金柔立往視 柔立回奏 土多巖石 民不可居 遂寢其議”, 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역사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55쪽.

순찰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동여진 해적의 일본침입을 인지⁴⁸⁾하고, 적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해안에서 매복하였을 것이다. 『遼史』에는 蒲蘆毛朶部 대왕 浦輦이 선박기술자를 조정에 헌상하는 기록⁴⁹⁾도 확인되는데, 같은 세력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 지역의 세력이 선박건조나 항해에 능숙했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또 고대에는 발해나 鐵利國이 동해 항로를 활용해서 일본과 교류한 점도 확인되기 때문에 충분히 동해 전역을 공략할 수 있었을 것이다.⁵⁰⁾

해적의 침입이 극심했던 1028~29년 직후에는 동여진인들의 이례적인 내헌도 확인된다. 1030년(현종 21) 4월에는 동여진인 曼鬪 등이 내헌하여, 戈船 4척, 楛矢 117,600개를 바쳤으며, 5월에는 동여진의 奉國大將軍 蘇勿蓋 등이 戈船 3척, 楛矢 58,600개를 바쳤다.⁵¹⁾ 이들이 내헌한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자신들의 일부가 해적과 연계되어 고려에 귀부의사를 다시 전하기 위해 내헌하였거나, 동여진 海賊의 일부가 투항했을 가능성이 있다.⁵²⁾ 대체로 여진인들이 내헌할 때 바쳤던 공물은 말, 貂鼠皮, 靑鼠皮, 旗幟, 甲冑 등이었기 때문에 1030년의 내헌은 특기할 만하다.⁵³⁾

48) 한성주,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 : 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 2011. 233쪽.

49) 『遼史』 卷20 「本紀」 第20 興宗 耶律宗眞 三 重熙 16年 夏4月. “甲申 蒲蘆毛朶部大王浦輦以造舟人來獻” 정요근은 동여진 해적을 蒲蘆毛朶部로 추정하는 근거로 이 기록을 제시(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歷史研究』 107, 한국사학회, 2012, 77쪽)하였다. 같은 시기 거란과 통교하여 처벌받은 沙伊邏의 기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점은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동여진 세력 전체를 蒲蘆毛朶部로 설정한 것 자체가 한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

50) 윤재운, 「동해교류를 통해 본 고구려와 발해의 해양문화」, 『고구려발해연구』 32, 고구려발해학회, 2008.

51)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21年 4月. “戊子 東女眞 曼鬪等 六十餘人來 獻戈船四艘 楛矢十一萬七千六百”, 顯宗 21年 5月. “乙卯 東女眞 奉國大將軍 蘇勿蓋等 來 獻馬九匹, 戈船 三艘 楛矢 五萬八千六百及器仗.”

52) 이 내헌에 대하여 고려에 복속된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 중 일부가 고려를 침입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진상한 것으로 보는 견해(노계현, 「高麗文宗의 對宋外交再開와 多邊外交展開」, 『국제법학논총』 34-2, 대한국제법학회, 1989, 65쪽), 동여진 해적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시행하여 항후의 해적행위를 제어하겠다는 서약의 의미로 보는 견해(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歷史研究』 107, 한국사학회, 2012, 76쪽)가 있으나, 내조기록이나 정황상 고려의 회유에 포섭된 세력으로 추정된다. 정요근은 1026년에 거란이 고려에 동북여진으로 가는 가도를 요청한 것이 蒲蘆毛朶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고, 고려가 거란의 요청을 거부하며 蒲蘆毛朶部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遼史』에 蒲蘆毛朶部로 숨어든 兀惹國의 민호들을 색출하라는 지시(『遼史』 卷17 「本紀」 第17 聖宗 耶律隆緒 八 太平 6年 夏4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글에서 1026년 蒲蘆毛朶部에 울야의 호구를 색출하라는 점과 蒲蘆毛朶部가 거란에 내조한 기록을 인용하는데 이는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53) 노계현, 「高麗文宗의 對宋外交再開와 多邊外交展開」, 『國際法學會論叢』 34 - 2, 大韓國際法學會, 1989, 65쪽.; 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歷史研究』 107, 한국사학회, 2012, 73쪽; 현종 대 여진인의 내조가 집중된 것이 군수품 조달에 유용했다는 견해(최규성,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동국사학』 15·16, 동국사학회, 1981, 160-164쪽)도 있다. 특히 거란과의 전쟁 기간 동안 여진인의 내헌이 많았다.

曼鬪와 같은 성명은 1030년(현종 21)에 서여진인 曼鬪 등이 내투하자 동계로 이주시켰다는 기록⁵⁴⁾에서 확인된다. 양계지역으로 내투한 여진인은 본래 거주지역과 가까웠던 동·북계지역으로 배치⁵⁵⁾하였는데, 曼鬪도 본래 동여진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7개월 만에 같은 인물이 서여진인으로 확인되는 점은 4월에 투항했던 曼鬪가 내륙으로 이주하였다가 고려로 내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시기 내조한 여진인의 출신지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유입경로를 중심으로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蘇勿蓋는 내현했을 때 奉國大將軍이라는 높은 장군호를 지니고 있었다. 1021년에 내조 시에는 흑수말갈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高之門과 같이 내현하였다.⁵⁶⁾ 蘇勿蓋와 함께 내현했던 高之門은 1047년(문종 원년)에 거란과 통교해서 문제가 되었던 酋長 阿兜幹의 수장으로 나타나는 인물인데,⁵⁷⁾ 이후 蕃賊으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蘇勿蓋와 高之門은 같은 지역의 세력이었으나, 다른 노선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蘇勿蓋가 주력함선과 병기를 바친 것은 투항으로 생각된다. 蘇勿蓋도 高之門과 같이 많은 병선을 운용하고, 병기를 제작할 규모의 세력을 보유했을 것이다.

덕종~정종 대(1032~1046)에도 해적의 침입은 계속 발생했으나, 침입 규모는 줄어들었다. 침입지역은 杆城縣·三陟縣·瑞谷縣·安戎鎭 등 동계 해안, 침입시기는 1033년과 1042~1043년에 집중되었다. 1042년(정종 8)에는 烈山縣 寧波戍 隊正 簡弘이 전사

54)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21年 11月. “乙丑 西女眞曼鬪等二十七戶來附 處之東界”

55)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卽位年. “甲申 制曰 女眞將軍 阿豆開等三百四十戶來投 勒留嘉鐵二州之地 然阿豆開本東蕃子項史之族 宜遣置東蕃” 여진 장군 阿豆開이 340호를 이끌고 내투하자 嘉州와 鐵州에 나누어 억류시켰다가, 東蕃의 일족으로 판명되자 송환하였다. 이들은 興遼國과 契丹의 전쟁에 참전했던 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興遼國이 멸망하자 고려로 피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20年 12月. “興遼國太師 大延定引東北女眞 與契丹相攻 遣使乞援 王不許 自此路梗 與契丹不通”

56)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2年 9月. “乙未 黑水靺鞨 蘇勿蓋 高之門來 獻方物”

57) 高之門과 같은 성명과 내조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1020년(현종 11) 黑水靺鞨 關尸頓·高之門 → ② 1021년(현종 12) 흑수말갈 蘇勿蓋·高之門 → ③ 1031년(덕종 1) 서여진 正朝 ‘大浦’ 古之門 → ④ 1033년(덕종 2) 6월 동여진 大相 古之門 → ⑤ 1033년(덕종 2) 10월 동여진 柔遠將軍 古之門 → ⑥ 1035년(정종 1) 동여진 歸德將軍 高之門 → ⑦ 1038년(정종 4) 1월 歸德將軍 高之門 → ⑧ 1038년(정종 4) 12월 동여진 歸德將軍 高之門 → ⑨ 1042년(정종 8) 柔遠將軍 高之門 → ⑩ 1045년(정종 11) 동여진 將軍 高之門 → ⑪ 1047년(문종 1) 首領 高之門 → ⑫ 1052년(문종 6) 5월 동여진 추장 高之門 → ⑬ 1052년(문종 6) 6월 동여진 高之門. 1048년(문종 2)에 거란과 통교하며 고려에 적대적인 인물로 분류된 高之門과 1052년(문종 6년) 三陟縣 臨遠戍를 침입했던 인물은 동일인물일 것이다(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歷史研究』 107, 한국사학회, 2012, 62쪽). 위에 나열한 동여진인 高之門과 서여진인 古之門의 작위 변화를 볼 때 같은 인물로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덕종 초까지 여진인의 출신지역이 동·서여진으로 양분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접촉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덕종 2년의 장성축조로 지역구분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2月. “丁卯 都兵馬使奏 東蕃 酋長 阿兜幹 內附以來 久承恩賞 背我投丹 罪莫大焉 其黨 首領 高之門等 今在蕃境 請密遣軍士 拘執入關 拷訊端由 依律科罪 從之”

한 기록도 확인되는데, 해적과의 전투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043년(정종 9)에는 東北路兵馬使·沿海分道判官 皇甫瓊이 적선을 격퇴하였고, 번적이 安邊都護府 登州의 속현인 瑞谷縣으로 적이 침입해서 주민들이 납치되자 수비군을 처벌하였다.⁵⁸⁾ 1044년에 발생한 전투는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육상침입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1045년에는 寧遠鎮으로 적 1백 여 명이 침입하자 수비병 30여 명이 납치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문종 초에 동여진 번적들이 북계 동북부로 침입하는 사례를 볼 때 동여진 蕃賊일 가능성이 있다. 덕종~정종 대 동여진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덕종~정종 대(1031~1046) 동여진 蕃賊의 침입과 대응양상

번호	연도	전투지역	내용
1	1033년(덕종 2) 3월	溟州 杆城縣 (강원 고성군)	적 50여 명 생포 ⁵⁹⁾
2	1033년(덕종 2) 4월	溟州 三陟縣 (강원 삼척시)	적 40여 명 생포 ⁶⁰⁾
3	1036년(정종 2) 2월	溟州 三陟縣 (강원 삼척시)	桐津 침입, 적 40여 명 사상 ⁶¹⁾
4	1042년(정종 8) 6월	烈山縣 (강원 고성군)	寧波戍 隊正 簡弘이 전사, 포상 ⁶²⁾
5	1043년(정종 9) 6월	동해 해상	沿海分道判官 皇甫瓊이 선제공격, 다수의 적 사상 ⁶³⁾
6	1043년(정종 9) 11월	瑞谷縣 (강원 안변군)	적선 8척 瑞谷縣 침입, 戍將 문책 ⁶⁴⁾
7	1044년(정종10) 4월	동계 북부	李暹漢 등이 40여 명 적 격퇴 ⁶⁵⁾
8	1045년(정종11) 4월	寧遠鎮 (평남 영원군)	적 1백 여명 침입, 수비병 30여 명 피납, 지휘관 문책 ⁶⁶⁾

58)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9年 6月. “東北路兵馬使奏 沿海分道判官 皇甫瓊獨領戰艦 深入大洋 奮擊水賊 俘斬甚衆 請行褒賞 從之”, 靖宗 9年 11月. “丙寅 東蕃賊以船八艘 寇瑞谷縣 虜四十餘人 以不謹備防 罪其將卒”

59)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2年 3月. “海賊寇杆城縣白石浦 擒獲五十人以獻”

60)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2年 4月. “壬戌 海賊寇三陟縣 擒獲四十餘人”

61)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2年 2月. “辛未 東蕃賊船寇三陟縣 桐津戍 擄略人民 守將設伏草莽 伺賊還 鼓譟掩擊 俘斬四十餘級”

62)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8年 6月. “丙戌 都兵馬使奏 東路烈山縣 寧波戍隊正 簡弘 與賊鬪 衆寡不敵 矢盡力窮而死 請追加職賞 從之”

63)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9年 6月. “東北路兵馬使奏 沿海分道判官 皇甫瓊獨領戰艦 深入大洋 奮擊水賊 俘斬甚衆 請行褒賞 從之”

64)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9年 11月, “東蕃賊以船八艘 寇瑞谷縣 虜四十餘人 以不謹備防 罪其將卒”

65)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1月, “丙戌 制曰 頃於甲申歲 寇賊侵掠東北路 軍士李暹漢等四 十人 先鋒

1039년(정종 5)에는 여진 추장의 자제들이 내조하는 모습도 확인되는데, 추장 자제들을 내조는 1026년(현종 17) 이후 처음이다.⁶⁷⁾ 여진 추장들이 자제를 입조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지위를 자제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허가받고, 고려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 1044년(정종 10)에는 동여진인 1,045명이 和盟을 요청하며 내헌하는 등 우호적인 세력과도 외교관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⁶⁸⁾ 이 和盟은 1042~45년 동안 발생한 해적의 침입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덕종~정종 대는 동여진과 육상에서도 충돌하였는데, 이는 정종 대 축성과정에서 경계 지역의 여진촌락을 편입하거나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45년(정종 11)에는 번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병사들에게 內廐馬를 하사하는 것을 볼 때 영원진 전투에 대한 포상으로 생각된다.⁶⁹⁾

2. 羈糜州의 설치와 귀화정책의 시행

고려전기 북진정책은 築城과 徙民, 내투인의 수용으로 진행되었다. 북진정책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은 1107년(예종 2)에 尹瓘의 동여진 정벌과 9城의 축조이다. 고려는 특정지역에 城·鎭과 같은 군사시설을 축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접지역의 여진촌락을 편입하거나 몰아내며 일정 범위를 영역화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여진촌락들이 고려의 영역 안에 정착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후 양계 이남의 주민을 이주시켜 경제기반을 조성한 뒤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단계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⁷⁰⁾

11세기 전반 현종 대(1009~1031)에도 태조 이후 북진정책이 이어졌고, 양계지역에서 지속적인 鎭·城을 설치로 북방영역을 확대하였다. 1033년(덕종 2)에 關防이 축조되면서 북방경계가 획정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정책이 필요했다. 고려는 長城을 경계로 內地와 外地를 구분하여, 고려와 북방민족과의 관념적인 경계선을 형

告捷 其各賞職有差”

66)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11年 4月 “丙午 西北路兵馬判官 監察御史 李春奏 蕃賊百餘人 侵寧遠鎭長平戍 擄掠軍士三十餘人 請治將校不能守禦之罪 從之”

67)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5年 3月. “辛丑 東北路兵馬使奏 女眞諸蕃子等六十人請執贄入朝 許之”

68)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10年 4月. “庚戌 東女眞 一千四十五人執贄請盟 各賜衣著銀器”

69)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11年 5月. “東路軍士 與蕃賊戰勝者 各賜內廐馬”

70) 고려의 북방영토 확대가 군사지역과 행정구역의 단계를 거치며 형성된 것으로 본 연구가 있다. 방동인, 「高麗의 成長과 北方築城」, 『백산학보』 47, 백산학회, 1996

성하였다. 長城은 이념적인 경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경의 역할을 하였다. 고려는 북방의 여진에 대해서도 내조나 내헌을 통한 교류는 이어졌으나, 여진지역을 고려의 기미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하였다.

덕종~정종 대(1031~1046) 북방 경계지역의 축성 과정에서 고려의 군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여진세력은 귀부하거나 저항하였고, 군사작전을 시행하여 축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고려에 협력하여 실리를 얻고자 했던 여진촌락과 고려에 적대적인 여진촌락이 혼재하였다. 또한 축성과 군대의 배치는 여진촌락의 정착과 농경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다. 고려에 협력하던 여진세력은 정기적인 내헌으로 해당지역의 자치권을 승계하고, 예물이나 작위를 받으며 대우받았다. 기미체제의 여진세력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협력하였다.

11세기 對여진 귀화⁷¹⁾정책에 대한 고려의 입장이 처음 확인되는 때는 1028~29년에 동여진 해적의 침입이 극심하던 때이다. 현종은 동여진 해적 세력의 수장을 회유하여 침입을 막아보려 했는데, 참지정사 郭元 등이 군사적인 대응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시행되지 못하였다.⁷²⁾ 고려전기 對여진정책의 기초는 군사적인 복속을 중심으로 한 회유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거란과의 전쟁에서 거란군에 종군했던 여진이나 동해안에 침입했던 해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⁷³⁾ 광원은 1029년(현종 20)에 大延琳이 흥요국을 세워 거란과의 전쟁에 돌입하자, 거란의 분열을 틈타 압록강 동안에 있는 堡障을 탈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인물이다.⁷⁴⁾

고려가 설치한 여진 기미주의 존재가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1038년(정종 4)인데, 정종 대(1034~1046)에 여진촌락의 편입에 관한 기록이 많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1033년(덕종 2) 關防의 설치 이후 정종 때에도 지속적인 축성으로 기미주의 편제가

71) 박옥걸,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국학자료원, 1996, 25쪽.

72) 『高麗史』 卷94 列傳7 諸臣 郭元, “...王謂宰相曰 女眞屢犯東陲 爲害滋甚 宜招諭渠首 厚加 賞賜 此所謂以德懷人也 元曰 女眞 人面獸心 與其懷之以惠 曷若震之以威 王然之...”; 崔奎成,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東國史學』 15·16, 東國史學會, 1981, 165쪽 ; 김남규, 「高麗前期의 女眞觀 -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가라문화』 12,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5, 132쪽; 최규성,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동국사학』 15·16, 동국사학회, 1981, 161쪽, 김봉두, 「高麗前期 對女眞政策의 性格」, 『傳統文化 研究』 1,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회, 1990, 73쪽.

73) 같은 시기 여진인의 내조가 감소하였는데, 고려의 정책이 강경해진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최규성,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동국사학』 15·16, 동국사학회, 1981, 165쪽)도 있다. 그러나 현종 대에는 1018년 이후 매해 10여 회 내외로 내조횟수가 일정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1018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점은 확인된다.

74) 『高麗史』 卷94 列傳7 諸臣 郭元. “...二十年 興遼反 契丹遣使求援 元密奏王曰 鴨江東畔 契丹保障 今可乘機取之 崔士威徐訥金猛等 皆上書言其不可 元固執 遣兵攻之 不克 慚恚發疽而卒”

본격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종~정종 대(1031~1046)에 나타나는 특징은 내조하는 여진인의 출신지역과 작위가 구체적인 지칭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⁷⁵⁾ 현종 대(1009~1031)에는 내조하는 여진인의 출신지역이 黑水·靺鞨 등 다양하게 지칭되었으며, 鐵利國·東黑水國 같은 정치집단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도 있었는데, 이 시기 여진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靺鞨州와 유사한 형태로 연결된 지역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⁷⁶⁾

1031년(덕종 즉위)에는 여진 장군 阿豆閒 등 340호가 북계로 내투하자 嘉州와 鐵州에 억류하였다가, 東蕃 출신으로 확인되자 송환한 사실에서 ‘東蕃’이라는 지칭이 처음 확인된다. 1046년(정종 즉위) 직후에는 팔관회가 정례화되면서 여진사절들의 출신지역을 ‘東·西蕃’으로 구분하였고, 내조하는 여진인의 출신지역도 東·西蕃으로 양분되었다. 이는 여진에 대한 ‘蕃’인식이 더 구체화되면서 여진에 대한 정책도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서번이라는 지칭은 정종 대에 많이 확인되며, 문종 즉위 후에는 다시 동·서여진으로 나누었다.⁷⁷⁾

고려에서 東·西蕃 인식이 출현한 것은 거란과 두 차례의 전쟁을 거쳐 고려·송·거란이 균형을 이룬 국제정세에서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여진에 대한 정책도 對거란정책의 기조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고려가 기미주를 설치하고 관할권을 행사하려 한 점은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물론 靺鞨州의 존재가 직접적인 지배나 복속이 힘든 지역에 대한 느슨한 형태의 지배관계이기 때문에 고려가 직접 통제할 것은 아니지만 정종 이후 기록을 볼 때 고려가 동여진 번적에 대한 대응과 고려에 협력하던 여진세력을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對여진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분명하다.⁷⁸⁾

거란도 동여진 지역은 직할령 밖의 지역으로 唐의 기미주와 같다고 인식할 정도로 동여진 지역은 고려나 거란의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서 반독립적인 대외활동을 벌였던 존재였다. 즉 고려와 거란에게 동여진 지역은 변방의 안정을 위해 회유와 포섭, 군사적인 대응을 때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고려가 기미주를 설치

75) 시기별 여진인의 작위 보유 현황은 <부록> 참조

76) 최규성, 「高麗初期 女眞問題의 發生과 北方經營」, 『백산학회』 26, 백산학회, 565쪽.

77) ‘西蕃·西女眞’이라는 존재는 11세기 고려-여진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平虜鎮과 寧遠鎮 이북에 있는 여진에 관한 내용도 있고, 契丹과의 분쟁이 있던 시기나, 여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시기에 내현이 늘어나는 특징도 확인된다.

78) 고려가 여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1세기에 걸쳐 ‘人面獸心’론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은 여진 세력이 내부정세나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김남규, 「高麗前期의 女眞觀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가라문화』 11,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5.

한 것은 고려와 적대적인 번적을 분리하는 1차적인 방어선이면서 완충지역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1038년(정종 4)에 확인되는 여진 장군 開老의 살해사건은 초기 기미주의 편제과정에서 확인되는 고려의 여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이며, 기미주 여진인의 정치적인 지위와 정책집행 과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A. 동계병마사가 威雞州에 사는 여진인 仇屯과 高刀化 두 명이 都領, 將軍인 開老와 재물로 다투어 開老의 취기가 오르자 살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시중 徐訥 등이 뜻을 말하길, “여진은 다른 무리지만, 이미 귀화하여 版籍에 이름이 실려 있고, 編氓과 같이 여겨야 하니 우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재물을 놓고 다투다가 우두머리를 죽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논죄해야 합니다.” 이에 내사시랑 黃周亮이 뜻을 말하길, “이 무리들이 귀화하여 우리의 藩籬가 되었으나, 본래 인면수심이어서 사리를 모르고 관습과 풍속이 교화되지 않았으니 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또 律文에는 化外人 同類 간의 범죄는 각각 본래 속한 곳의 법을 따른다고 하여 가까운 마을의 늙은 우두머리가 俗法에 따라 죄를 범한 두 집의 재물을 開老의 집에 보냈으니, 어찌 논의가 필요합니까?”, 왕이 周亮 등의 뜻을 따랐다.⁷⁹⁾

1038년(靖宗 4)에 발생한 開老 살해사건(사료 A)의 개요는 초기 羈縻州의 하나로 추정되는 威雞州⁸⁰⁾에 거주하던 仇屯과 高刀化가 자신들의 수장인 開老와 재물을 놓고 다투었는데, 開老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살해한 사건이었다. 高刀化는 1032년(덕종 1)에 동여진 正朝 加伊老, 懷化將軍 也半, 歸德將軍 開老와 함께 내헌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元甫라는 향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 開老도 같이 확인되는데, 開老가 살해당했을 때는 歸德將軍이상의 장군호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⁸¹⁾ 威雞州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계병마사의 관할지역인 점, 내헌한 이들의 출신지역이 동여진인 점에서 1033년(덕종 2)에 동계지역에서 축성된 耀德·靜邊·和州 지역 이북 접경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시중 徐訥은 기미주의 여진인이 고려에 귀화하여 版籍된

79) 『高麗史』 卷84 刑法志 1 殺傷. “靖宗四年五月 東界兵馬使報 威雞州住女眞仇屯高刀化二人 與其都領將軍 開老 爭財 乘開老醉 毆殺之 侍中 徐訥等議曰 女眞 雖是異類 然既歸化 名載版籍 與編氓同 固當遵率邦憲 今因爭財 毆殺其長 罪不可原 請論如法 內史侍郎 黃周亮等議曰 此輩雖歸化 爲我藩籬 然人面獸心 不識事理 不慣風教 不可加刑 且律文云 諸化外人 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況其隣里老長 已依本俗法 出犯人二家財物 輸開老家 以贖其罪 何更論斷 王從周亮等議”

80) 李根花, 「高麗前期의 女眞招諭政策」, 『白山學報』 35, 白山學會, 1998, 99쪽.

81) 『高麗史』 卷5 世家5 德宗 元年 7月. “丁丑 東女眞正朝加伊老 懷化將軍也半 歸德將軍開老 元甫古刀化等 九十一人來 獻土物”

상황이니, 編氓과 같이 대우하여 고려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黃周亮은 여진인들이 귀화하여 고려의 藩籬가 되었지만, 인면수심이래 도리를 모르고 풍속이 교화되지 못한 상태이니 관습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⁸²⁾ 또 開老가 살해당한 후, 다른 촌락의 노장이 관습에 따라 仇屯과 高刀化의 재물을 開老의 집으로 보내서 속죄하였으니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국왕은 黃周亮의 견해를 따랐다. 고려는 이들을 고려의 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고려인과는 다른 대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부적인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주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기미주의 여진인이 모호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33년(덕종 2)에는 압록강 하구부터 동해안까지 平章事 柳韶의 지휘로 關防이 설치⁸³⁾되었는데, 같은 시기 서여진인에서 거란의 관작을 받았던 추장들의 귀부도 많이 확인된다.⁸⁴⁾ 이는 북방경계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고려의 鎭·城이 설치되는 범위 인근의 여진촌락이 편입되고, 주변지역의 촌락들이 중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장성의 축조는 국경의 확정과 함께 기미주의 편제로 북방정책이 전환되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북방축성과 여진촌락의 편입과정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B-1 “... 세 성이 있는 지역은 본래 적의 소굴로서, 적의 침략을 많이 걱정하여 병마와 군사들을 주요 피해지역에 분산 주둔시켜 수륙양면에서 적의 침입을 막고 있습니다. 축성 당시 출전해서 공을 세운 1科的 攝兵部尙書 高烈 등 10명, 次 1科的 小府監 柳喬 등 5명, 2科的 大樂丞 鄭霸 등 5명에게도 포상을 하여 이후에도 모범으로 삼으소서.”⁸⁵⁾

82) 黃周亮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律文은 『唐律疏議』에서 확인된다. 『唐律疏議』卷6「名例」, 48 化外人相犯. “化外人 謂蕃夷之國 別立君長者 各有風俗 制法不同 其有同類自相犯者 須問本國之制 依其俗法斷之 異類相犯者 若高麗之與百濟相犯之類 皆以國家法律 論定刑名”; 김택민 외, 『譯註唐律疏議箋解』, 한국법제연구원, 1994, 342쪽; 장진번, 『중국법제사』, 소나무, 2006, 462~463쪽.

83) 『高麗史』卷82 兵志2 城堡, “二年 命平章事 柳韶 創置北境關防 起自西海濱 古國內城界 鴨綠江入海處 東跨威遠 興化 靜州 寧海 寧德 寧朔 雲州 安水 清塞 平虜 寧遠 定戎 孟州 朔州等十三城 抵耀德 靜邊 和州等三城 東傳于海 延袤千餘里 以石爲城 高厚各二十五尺.”

84) 부록 <별표> 1~3 참조.

85) 『高麗史』卷6 世家6 靖宗 10年 11月. “冬十一月 乙亥 兵馬使 金令器奏 今築長定二州及元興鎭城 不日告畢 勞效甚多 其督役州鎭官吏 一科七品以上 超正職一級 父母封爵 八品以下 超正職一級 加次第階職 二科 加正職一級 并階職 且三城之地 元是賊巢 侵擾加慮 兵馬軍事 分屯要害 水陸捍禦 賊不得近 其軍士 一科別將以上 超正職一級 父母封爵 隊正以上 超正職一級 并鄉職 軍人超鄉職一級 二科隊正以上 及船頭 加正鄉職一級 軍人及梢工水手 加鄉職 且賜物有差 當築城時 出戰有功 一科攝兵部尙書 高烈等十人 次一科少府監 柳喬等五人 二科大樂丞 鄭霸等五人 亦加褒賞 以勸後來 制可”, 『高麗史』卷82 兵志2 城堡. “命金令器·王寵之 城長州 定州 及元興鎭 長州城 五百七十五間 戍六所 曰靜北 高嶺 掃兇 掃蕃 壓川 定遠 定州城 八百九間 戍五所 曰防戍 押胡 弘化 大化 安陸 元興鎭城 六百八

B-2. 동여진 將軍 烏乙達 등 남녀 144명이 좋은 말을 바치며 아뢰길, “저희들은 貴國의 경계에 살며 덕화를 흠모하여 신하로 섬겨온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잡한 賊이 침입해 올 것을 걱정하여 정착하지 못했는데, 이제 세 곳에 성을 쌓아 적의 침입로를 막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내조했습니다.” 왕이 우대하여 상을 주어 돌려보냈다.⁸⁶⁾

B-3. 서여진 亏火 등 156인은 關城을 개척할 때 공로를 세웠으므로 작을 올려 주었다.⁸⁷⁾

B-4. 서여진 酋長 高之知 등 1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禮賓省에서 高之知 등이 작년 平虜城과 寧遠城을 개척하면서 큰 공을 세웠으니 예물을 넉넉히 주라고 아뢰자 따랐다.⁸⁸⁾

1045년(정종 10)에 시행된 대대적인 축성(사료 B-1)은 1040년(정종 5)에 都兵馬副使 朴成傑이 靜邊鎮에 성을 쌓아 적을 막아야 한다는 보고⁸⁹⁾ 이후 1035~1042년 사이에는 동계에 인접한 북계의 寧遠·平虜鎮, 1045년~1047년에는 동계의 長州·定州·元興鎮에도 城과 戍를 설치하는 등 동북면 지역에 집중된 축성과 연관이 있다. 1044년(정종 10)의 축성은 동계지역 요충지에 축조된 세 개의 성을 말한다.⁹⁰⁾ 1045년(정종 10)에 있었던 축성 이후에는 여진인들이 定州 關門 밖으로 와서 고려와 접촉하였고, 12세기 초 烏雅束의 군대가 진을 친 것도 定州 關外로 기록되는 것을 볼 때 關防의 설치 후에는 여진인들이 定州 關門을 지나쳐서 和州館으로 들어오는 단계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여진과 접촉하는 국경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여진의 경우에는 平虜鎮과 淸塞鎮이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⁹¹⁾

十三間 戍四所 曰來降 壓虜 海門 道安”

86)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10年 11月. “癸未 東女眞將軍 烏乙達等男女一百四十四人來 獻駿馬 奏曰 我等在貴國之境 慕化臣服有年矣 每慮醜虜來侵 未獲奠居 今築三城 以防賊路 故來朝謝恩 王優賞遣還”

87) 『高麗史』 卷7 世家7 德宗 2年 11月. “以西女眞 亏火等 一百五十六人 開拓 關城時 並有功勞 加爵一級”

88)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8年 2月. “西女眞 酋長 高之知等 十二人 來 獻土物 禮賓省奏 之知等於往年 平虜 寧遠 兩城 拓開之時 頗有勞效 請優賜禮物 從之”

89) 『高麗史』 卷83 兵志2 城堡. “五年 都兵馬副使 朴成傑奏 東路靜邊鎮 蕃賊窺覷之地 請城之 從之”

90)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10年 11月. “冬十一月 乙亥 兵馬使 金令器奏 今築長 定二州及元興鎮城 不日告畢 勞效甚多…”

91) 고려가 서여진인들과 접촉했던 지역은 平虜鎮·淸塞鎮과 같이 동계와 가까운 지역이었다. ‘平虜關外’ 등의 표현도 확인된다. 『高麗史』 卷13 世家13 睿宗 4年 1月. “御長齡殿 引見平虜關外蕃長等五十人 賜酒食例物”

또 1044년(정종 10)에 동여진 장군 烏乙達 등이 번적의 침입 때문에 정착하지 못했으나, 동계 북부 三城의 구축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내헌하는 기록(사료 B-2)도 확인된다. 이렇듯 축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진촌락이 편입되었고, 축성 이전에는 기존의 군사시설 외부에서 여진촌락이 이동하며 거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북방 축성은 長城 축조 이후에도 요충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축성에 대한 여진인의 인식도 알 수 있는데, 동북면 축성 직후 烏乙達 세력이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감사표시로 말을 바치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려가 蕃賊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축성한 것도 사실이지만, 유목하던 여진촌락을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확인된다.⁹²⁾

여진촌락의 편입과정에서 농경화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020년(현종 11)에 동여진 추장 達魯가 蕃米 3백 석을 바친 기록⁹³⁾을 볼 때 장성의 축조 이전부터 고려에 복속하여 농경화된 집단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042년(정종 8)에는 동여진 大相 吳於達이 밭을 갈 소를 달라고 청하자 東路屯田司에서 농우 10頭를 보낸 기록⁹⁴⁾도 확인되는 것을 볼 때 농경화도 군사시설의 관할 하에 장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1073년(문종 27)에는 서북로병마사의 보고에서 장성 밖에 개간한 밭 1만1천4백90頃의 수확물을 군량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기록⁹⁵⁾도 확인된다. 이 지역의 수확물은 고려가 유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⁹⁶⁾ 장성 밖에 농지를 개발한 이들이 사민된 고려인인지 장성 이북에서 편입된 靺鞨州의 촌락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농경화된 여진촌락이 광범위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진촌락을 靺鞨州에 정착시키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경제기반을 마련해주고 농경 정착생활을 유도하는 방법이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서여진인 弓火 등 1백 56명이 축성에 참여한 시기는 장성의 축조시기와 비슷한데, 여진촌락의 편입과 함께 여진의 노동력도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사료 B-3)이다. 이는 弓火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1042년(정종 8)에는 平虜城과 寧遠城 관할 하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高之知라는 인물이 내조하자

92) 이근화, 「高麗前期의 北方築城」, 『역사와 담론』 15, 호서사학회, 1987, 15쪽.

93)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1年 4月. “己酉 東女眞酋長達魯率衆來 獻蕃米三百石”

94)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8年 4月. “壬寅 東女眞大相 吳於達 請耕牛 乃賜東路屯田司牛十頭”

95) 『高麗史』 卷 82 「兵志」2 屯田. “二十七年四月 西北路兵馬使奏 長城外墾田一萬一千四百九十四頃 請待秋收穫 以資軍儲 制可”

96) 신수정, 「고려문종대 女眞의 동향과 고려 영토」, 『송실사학』 30, 송실사학회, 2013.

예빈성에서 예물을 추가로 하사할 것을 보고하는 기록(사료 B-4)도 확인된다.

1041년(정종 7)에는 崔沖의 지휘로 寧遠과 平虜에서 대대적인 축성이 진행되어 堡子와 戍와 같은 군사시설이 축조⁹⁷⁾된 것을 볼 때 高之知⁹⁸⁾의 세력도 고려의 축성시 弓火의 세력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저항하는 여진세력을 몰아내는 데 공헌한 것으로 추정된다. 1064년(문종 18)에도 高之知가 입조하자 국왕이 직접 叅知政事 異惟忠에게 명을 내려 음식을 대접하였고, 예빈사에서 예물을 더 하사해야 한다는 보고를 한 것⁹⁹⁾을 볼 때 북계 이북지역에서 고려와 오랜 기간 교류한 우호적인 세력이었을 것이다.

고려의 羈縻州에 거주하며 고려에 귀부한 여진인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은 編籍¹⁰⁰⁾이었다. 기미주의 여진인에 대한 編籍은 기미주의 설치과정에서 호구조사를 거쳐 1038년(정종 4)이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기미주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의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 시중 徐訥은 해당 여진인들이 귀화하여 版籍되었으므로 編氓과 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확인된다. 1042년(정종 8)에는 서북로병마사가 압록강 동부 淸塞鎮 관할 하의 立石村의 蕃戶를 편입한 기록¹⁰¹⁾이다. 기미주의 여진인은 각 鎮 인근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은데, 각 鎮을 중심으로 여진촌락을 편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미주의 여진에 대한 編籍 사례가 정종 연간에 나타난 축성시기와 일치하는 점은 정종 연간에 경계지역 여진인에 대한 편호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시기 羈縻州도 편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033년(德宗 2)에 있었던 장성 축조로 북방경계가 확정되면서 여진촌락에 대한 編籍도 북방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38년(정종 4)에 있었던 開老 살해사건에서 나타난 여진촌

97) 『高麗史』 卷82 兵志2 城堡. “七年 崔沖城寧遠平虜二鎮 寧遠城七百五十九間 堡子八區內 金剛戍四十二間 宣威戍六十一間 宣德戍五十間 長平戍五十三間 鼎岑戍三十八間 鎮河戍四十二間 鐵塘戍六十一間 定安戍三十二間 關城一萬一千七百間 平虜城五百八十二間 堡子六 區內 壽戍戍三十六間 鎮兇戍三十間 直岑戍四十一間 降魔戍五十間 折衝戍三十間 靜戎戍三十間 關城一萬四千四百九十五間”

98) 高之知의 내조기록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1041년(정종 7) 서여진 大丞 高支智가 내현 → ② 1042년(정종 8) 서여진 추장 高之知 → ③ 1048년(문종 2) 서여진 寧塞將軍 高之智 내현 → ④ 1064년(문종 18)에 서여진 寧遠將軍 高之知 내조시기가 일정하고 작위가 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때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99)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8年 5月. “命叅知政事 異惟忠 饗西女眞 寧遠將軍 高之知等十三人于禮賓寺 賜例物”

100) 여진인의 편호와 관련해서는 ‘編戶’·‘課戶’·‘入籍’·‘編籍’·‘版籍’·‘編氓’·‘附籍’ 등으로 기록되었다. 朴玉乞,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國學資料院, 1996.

101)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8年 1月. “庚申 西北路兵馬使 籍鴨綠以東 至淸塞鎮轄下 立石村蕃戶 以聞”; 『高麗墓誌銘集成』 尹彥頤. “...女眞本我朝人子孫故爲臣僕相次朝天近境之人皆屬我朝戶籍久矣我朝安得反爲臣乎...”

락에 대한 대우에 관한 조정의 논쟁은 초기 여진촌락의 편입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의 對여진인식의 시발점인 것이다.

1073년(문종 27)에 동·서여진이 수천 여 호 단위로 고려에 편적된 기록에서도 구체적인 편입사례가 확인된다. 平虜鎭 관할 지역에 거주하던 柔遠將軍 骨於夫와 覓害村의 要結가 귀부를 요청하면서, 狄耶好 등 다섯 가호와 거란에 복속된 여진인들을 覓害村으로 옮긴 뒤 편호하여 藩屏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들도 正甫 馬波¹⁰²⁾의 사례처럼 자발적인 귀부였는데, 서북로병마사가 호구를 조사한 뒤 35세대 2백 52명을 편호하여 기미주에 받아들였다.¹⁰³⁾ 동여진의 침입으로 인해서 동해안으로 피난했던 우산국 주민들을 禮州 주민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었다.¹⁰⁴⁾

여진지역에 기미주가 형성되면서 고려가 상대하는 여진집단은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째, 고려에 編籍되지 않고 거란에 복속하였거나, 독립적인 여진, 둘째, 고려의 기미주에 속한 여진촌락으로 장성 밖에 거주하며 내헌한 東·西蕃 여진, 셋째, 고려에 개인이나 집단으로 내투하여 고려 영내에 정착시킨 내투인이다.

내투한 여진인에 대해서는 양계에 배치하여 군사적인 목적에서 활용¹⁰⁵⁾하였으나 고려는 여진집단을 기미주영역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對여진정책은 장성 이북의 기미주에 대한 정책이 중심이다. 기미주로 편제된 촌락의 추장들에게는 編籍와 賜爵·賜物¹⁰⁶⁾이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고려식 성명을 부여하는 賜姓도 있었는데, 특별한 사례에서만 확인된다. 고려가 여진인들에게 시행했던 정책은 수용과 통제의 성격이 동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賜爵은 고려가 여진을 초유하는데 활용했던 정책의 하나로 덕종~정종 대에는 鄉職보유 여진인이 많고, 문종 이후부터는 將軍號를 부여하는 사례가 폭증한다. 11세기 현종~현종

102)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6年 1月. “丙寅 東女眞正甫 馬波等男女四十八人 請入定州關外爲編戶 賜田宅 處之內地”

103)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5月 “又奏 平虜鎭 近境 蕃帥 柔遠將軍 骨於夫及覓害村 要結 等告云 我等曾居 伊齊村 爲契丹大完職名 邇者 再蒙招諭 於己酉年十一月赴朝 厚承恩賚 且受 官職 不勝感戴 顧所居去此四百里 往復爲難 請與狄耶好等五戶 引契丹化內蕃人 內徙覓害村 附籍 永爲藩屏 於是 檢得戶三十五 口二百五十二 請載版圖…”

104) 전영준, 「고려시대 異民族의 귀화 유형과 諸정책」, 『다문화콘텐츠연구』 13,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 420~421쪽; 「高麗時代 ‘編戶’의 行刑體系 적용과 사회적 활용」, 『인문과학』 13,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34~37쪽.

105) 『高麗史』에는 高州에 投化軍있었다는 기록도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설치시기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내투 여진인을 양계에 배치한 시점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또 다른 지역에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106) 고려가 하사한 예물은 銀器가 많이 확인되는데, 1102년(숙종 7)에 동여진의 盃歌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銀器匠을 요청한 기록으로 볼 때 고려의 銀 세공기술이 앞서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의 銀製品은 말을 바친 이에 대한 대가에도 지급되었다. 여진추장들은 고려의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그 지위를 인정받는 상징물이 되기도 한 것이었다.

대(1009~1095) 鄉職을 보유한 여진인은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11세기 현종~현종 대(1009~1095) 鄉職 보유 여진인 현황¹⁰⁷⁾

시 기 鄉職	顯宗 1009-1031	德宗 1031-1034	靖宗 1034-1046	文宗 1046-1083	宣宗 1083-1094	獻宗 1094-1095
三重大匡	-	-	-	-	-	-
重大匡	-	-	-	-	-	-
大匡	1	-	-	-	-	-
正匡	-	-	-	-	-	-
大丞	-	-	1	-	-	-
左丞	-	-	-	-	-	-
大相	1	3	2	1	-	-
元甫	-	4	-	-	-	-
正甫	-	1	3	3	-	-
元尹	-	2	1	-	-	-
左尹	-	2	-	-	-	-
正朝	-	3	1	1	-	-
正位	-	-	1	-	-	-
甫尹	-	2	-	-	-	-
君尹	-	-	-	-	-	-
中尹	-	1	1	4	-	-
합계	2	18	10	9	0	0

<표 3>은 시기별로 확인되는 鄉職을 보유한 여진인의 수를 집계한 것이다.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은 현종 대(1009~1031)에는 鄉職을 보유한 여진인의 내조가 거의 확인되지 않으나, 현종 대나 문종 대에 비해 재위기간이 짧았던 덕종~정종 대(1031~1046)에 鄉職 보유 여진인의 내조가 폭증하고 있다. 이 시기 고려에 협력한 여진인들에게 鄉職을 부여하거나, 높여주는 기록도 많이 확인된다.

鄉職¹⁰⁸⁾을 보유한 여진인의 내조는 948년(정종 3)에 말 7백 필을 내헌한 동여진 대匡 蘇無盖가 처음이다.¹⁰⁹⁾ 이 시기의 鄉職은 995년(성종 14)에 완비된 鄉職과는 차

107) 숙종 이후 여진과의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로 달라졌기 때문에 현종 대부터 현종 대까지로 시기를 한정하였다.

108) 1017년(현종 8)에는 ‘鄉爵’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박종기, 「고려 전기 주민 구성과 국가체제」,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122쪽.

109) 『高麗史』 卷2 世家2 定宗 3年 秋9月. “東女眞大匡蘇無盖等來”; 김미엽, 「高麗前期 鄉職, 武散階의 重複支給研究」, 『성신사학』, 동선사학회, 1990, 36쪽.

이가 있는데, 2품 上에 해당하는 지위이다.¹¹⁰⁾ 蘇無盖는 이전부터 고려에 내현했던 인물로 군마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동안 확인되지 않다가 1019년(현종 10)에 동여진 毛逸羅의 階職을 올려주었다는 기록에서 鄉職이 부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毛逸羅는 1025년(현종 16)에 변경에서 세운 공로로 大匡에 오르는 인물로 1012년(현종 3)에 鉏乙豆와 함께 30姓 部落을 데리고 和州로 와서 和盟을 요청한 동여진 세력의 수장이었다.¹¹¹⁾ 이렇게 초기 鄉職을 보유한 여진인들은 고려에 군마를 공급하거나, 여진세력의 유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덕종~정종 대에 羈縻州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미주에 편제된 村落의 여진인을 활용하여 고려에 귀부하지 않은 여진을 초유하는 정책도 확인된다. 여진인이 化外 여진을 초무했던 것은 강제적인 측면과 자발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고려가 거란과 통교했던 세력이나 변경을 침입했던 여진촌락의 우두머리를 고려 영내로 압송한 이후에 많이 확인된다. 혹은 고려에 침입했던 세력을 化內 여진 酋長들이 합심해서 고려에 귀부시키거나, 거란에 복속된 여진인이 고려의 관작을 받고자 내조한 사례도 확인된다. 여진인들이 化外 여진촌락을 포섭한 사례는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¹¹²⁾

C-1. 동여진의 歸德將軍 仇知羅 등 32명이 같은 족속인 恢八 등 30명을 회유해서 입조했다.¹¹³⁾

C-2. 동북로병마사가 女眞의 柔遠將軍 沙伊羅가 물과 물에서 횡행하는 賊首 羅弗 등 494명을 회유하여, 和州館에서 입조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기관에서 논의하여 “그 무리들은 人面獸心이니 兵馬使에게 지시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차례로 나누어 들여보내십시오.” 라고 하여 따랐다.¹¹⁴⁾

C-3. 동여진 寧塞將軍 冬弗老와 柔遠將軍 沙伊羅 등이 化外 여진 80명을 데리고 입조해 와서 이렇게 알렸다. “化外人들이 그릇되게 짐승처럼 사나운 마음을 품고 邊疆

110)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9年 9月, “東女眞尼于弗來朝 增授鄉職”

111) 2장 1절 주10 참조.

112) 이근화, 「高麗前期 女眞招諭政策」, 『백산학보』 35, 백산학회, 1988, 102~103쪽.

113)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4年 3月. “庚申 東女眞 歸德將軍 仇知羅等 三十二人 誘其屬 恢八 等 三十人 來朝”; 恢八은 1103년(肅宗 8)에 동여진 豆門 등 90명이 내조한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高麗史』 卷12 世家12 肅宗 8年 2月. “東女眞 豆門 恢八等 九十人 來朝”

114)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9年 4月. “夏四月 戊戌 東北路兵馬使奏 女眞 柔遠將軍 沙伊羅 誘致 水陸 賊首 羅弗等 四百九十四人 詣和州館 請朝 有司議奏 此類人面獸心 宜令兵馬使 量減人數 分次 赴朝 從之”

을 어지럽혔으나, 넓은 은혜를 입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물과 물에 흠어져 사는 蕃長들을 데리고 대궐 앞에서 정성을 보이면서 邊民이 되기를 청하였고, 이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도적들의 동향을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국왕이 가상하게 여겨 특별하게 금색 비단을 하사하고 爵을 올려주었다.¹¹⁵⁾

化內 여진인이 化外 여진을 초유하여 귀부시킨 사례(사료 C-1~3)가 처음 확인되는 시점도 1038년(정종 4)이다. 동여진의 歸德將軍 仇知羅 등이 같은 계통의 恢八등을 회유해서 같이 내조한 사례인데, 1038년은 羈縻州가 처음 확인되며 羈縻州 여진인의 지위에 관한 논쟁도 벌어졌던 시기이다. 仇知羅는 인접 촌락들과 함께 귀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43년(정종 9) 4월에는 柔遠將軍 沙伊羅가 賊首 羅弗 등 494명을 설득해서 和州館에 데려왔다.

沙伊羅¹¹⁶⁾는 1037년(정종 3)에 거란과 통교했다는 죄목으로 서경으로 압송당했던 인물인데, 이후 석방하여 化外 여진의 포섭과 납치된 고려인의 송환에 협력하도록 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에 침입했던 蕃賊의 수장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내조하려 했던 것은 여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沙伊羅가 인솔해서 내조하려 한 것은 沙伊羅가 보유한 세력이 蕃賊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외교적인 중재가 가능할 만큼 큰 세력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沙伊羅는 1043년(정종 9)에도 寧塞將軍 冬弗老 등과 함께 化外 여진 80인을 데리고 내조하여, 고려에 귀부를 맹세하게 한 뒤 蕃賊의 동향을 보고하겠다고 맹세하여 예물을 하사받았다.

和州館에 들어온 沙伊羅의 내조 요청에 대해서 고려 조정은 蕃賊 출신 여진인 수백 여명이 도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원을 나누어 차례대로 입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고려에 적대적인 세력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변경의 군사시설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또 그들의 체류비용이나 대우문제가 있어서 내조 규모와 횡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5)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9年 9月. “庚辰 東女眞 寧塞將軍 冬弗老 柔遠將軍 沙伊羅等 率化外女眞 八十人 來朝 奏云 化外人 妄懷狼戾 曾擾邊疆 泊蒙洪育 頓改前非 今引水陸蕃長 詣闕陳款 願爲邊民 自今每侯隣寇 動靜以報 王嘉之 特賜金帛 加等”

116) 沙伊羅는 서경으로 압송된 이후 석방되어 화외 여진 포섭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납치된 고려인의 송환에도 관여하였다. ① 1040년(정종 6) 동여진 장군 沙伊羅 → ② 1041년(정종 7) 동여진 柔遠將軍 沙伊羅 → ③ 1042년(정종 8) 동여진 柔遠將軍 沙伊羅 → ④ 1043년(정종 9) 女眞 柔遠將軍 沙伊羅 → ⑤ 1043년(정종 9) 柔遠將軍 沙伊羅 → ⑥ 1044년(정종 10) 東女眞 將軍 沙伊羅 → ⑦ 1047년(문종 1) 奉國將軍 → ⑧ 歸德大將軍 沙伊羅 → ⑨ 1048년(문종 2) 동여진 歸德將軍(歸德大將軍으로 추정된다) 沙伊羅 → ⑩ 1049년(문종 3) 동여진 奉國將軍 沙伊羅 → ⑪ 1050년(문종 4) 동여진 沙伊羅.

Ⅲ. 11세기 후반 동여진 정벌과 羈糜州의 확대

1. 문종 대(1046~1083) 동여진의 침입과 동여진 정벌

덕종~정종 대에 해안방어체계가 정비되면서 동여진의 해상침입 규모는 줄어들었다. 문종은 즉위 직후 兵部郎中 金瓊을 파견하여 동해안의 성보와 농장을 정비¹¹⁷⁾했는데, 11세기 전반 극심했던 해적의 침입으로 동해안 방어시설의 경제기반이 소실된 상태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해적의 출몰이 잦았던 霜陰과 鶴浦에 1차적인 관측과 방어를 맡는 戍를 증축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¹¹⁸⁾ 같은 시기 동여진의 蒙羅古村·仰果只村 등 30부락 蕃長들이 내조하였는데, 고려와의 외교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부한 것으로 보인다.¹¹⁹⁾ 문종 대(1046~1083) 동여진 번적의 침입은 육상과 해상으로 양분되었다. 문종 대 동여진 번적의 해상침입은 다음의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문종 대(1046~1083) 동여진의 해상침입과 대응양상

번호	연도	전투지역	내용
1	1047년(문종 1) 2월	동계 豸豸縣 (강원 고성군)	주민 1백여 명 사상 ¹²⁰⁾
2	1048년(문종 2) 6월	臨道縣 (강원 통천군)	주민 17명 피납 ¹²¹⁾
3	1049년(문종 3) 6월	雲岳縣 (강원 통천군)	折衝軍 隊正 惟古 등 11명 泉井에서 적 40여 명 격퇴 ¹²²⁾
	1049년(문종 3) 7월	金壤縣 (강원 통천군)	주민 20여 명 피납 ¹²³⁾
4	1049년(문종 3) 10월	鎭溟浦 (강원 원산시)	鎭溟浦 병선 2척 피탈, 兵馬錄事 文揚烈·元興鎭都部署判官 宋齊罕이 적 혼락 소각, 적 20명 참수 ¹²⁴⁾
5	1050년(문종 4) 6월	烈山縣	주민 18명 피납 ¹²⁵⁾

117) 『高麗史』 卷82 兵志2 城堡. “文宗 卽位 遣兵部郎中 金瓊 自東海 至南海 築沿邊 城堡 農場 以扼海賊之衝”

118) 『高麗史』 卷82 兵志2 鎭戍. “文宗 元年 正月 制 霜陰鶴浦 兩縣沿海處 設置軍戍以扼 蕃賊之衝”; 1091년(선종 8)에도 번적이 주요 침입로였음이 확인된다(『高麗史』 卷82 「世家」 卷36 兵2 城堡. “宣宗 八年 兵馬使奏 安邊都護府 境內霜陰縣 最爲邊地要害 乞築城壘以防外寇 制可”).

119)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8月. “己巳 蒙羅古村仰果只村等 三十部落 蕃長 率衆內附”

		(강원 고성군)	
6	1050년(문종 4) 7월	派川縣 (강원 통천군)	번적 침입 ¹²⁶⁾
7	1050년(문종 4) 9월	烈山縣 (강원 고성군) → 椒子島	兵馬錄事 文揚烈 명선 23척 출진, 적 가옥 30여 채 소각. 전함 8척 파괴, 병기 1백여 점 노획 ¹²⁷⁾
8	1050년(문종 4) 11월	烈島 (동해 해상)	鎭溟都部署 副使 金敬應, 적선 3척 격퇴, 적 수십 여 명 참수 ¹²⁸⁾
9	1052년(문종 6) 6월	三陟縣 臨遠戍 (강원 삼척시)	동여진 高之問이 침입, 수비장수 河周 呂가 출진, 安邊都護判官 金崇鼎의 지 원으로 적 10여 명 참수, 적 패주 ¹²⁹⁾
10	1064년(문종 18) 윤5월	禮州 平海郡 (경북 영덕군)	동여진 麻叱盖 등 100여 명 침입, 민가 약탈 후 주민 9명 피납, 수비군 처 벌 ¹³⁰⁾
11	1068년(문종 22) 6월	椒島 (동해 해상)	任希悅, 鄭申, 巨興 순찰 중 적선 10척 과 전투, 7척 노획, 다수의 적 사상 ¹³¹⁾
12	1068년(문종 22) 7월	椒島 (동해 해상)	判官 任希悅·都部署副使 裴行之·元興鎭 副使 石秀珪가 閻羅浦에서 적선 3척 파괴, 잔적 30여 명 참수 ¹³²⁾
13	1073년(문종 27) 6월	東京 (경주) 波潛部曲	元興鎭都部署 소속 명선 수십여 척 출 진, 적 12명 참수, 주민 16명 구출 ¹³³⁾

120)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8年 7月. “丁卯 東北面兵馬使奏 參猓縣 曾於戊子年 被東蕃해적攻劫 殺傷男女百餘人 今春又有山火 延燒城堡 倉庫及民居 再經禍亂 民不安居 請徙城之 以扼해적之衝 詔 移于陽村 在舊城南二千餘步”

121)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3年 6月. “戊辰 東蕃해적 寇臨道縣 擄十七人”

122)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3年 6月. “壬申 東北路兵馬使奏 雲岳縣 折衝軍隊正 惟古等十一人 夜巡行到泉井戍 有蕃賊四十餘人 突入屯中.軍卒皆奔匿 惟古挺身奮擊 賊遂潰走 請量功授職”; 1050년(문종 4)에 포상하였다(『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1月. “東北面都兵馬使 朴成傑奏 上年十月 해적奪鎭溟兵船二艘而去 兵馬錄事 文揚烈 卽率兵船 與元興都部署判官 宋齊罕 追至賊穴 焚蕩廬舍 斬馘二十級而還 其功可賞 制 付都兵馬使”).

123)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3年 7月. “秋七月 丁酉 東蕃해적 寇金壤縣 擄二十人”

124)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1月, “東北面都兵馬使 朴成傑奏 上年十月 海賊奪鎭溟兵船二艘而去 兵馬錄事 文揚烈 卽率兵船 與元興都部署判官 宋齊罕 追至賊穴 焚蕩廬舍 斬馘二十級而還 其功可賞 制 付都兵馬使”

125)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6月. “六月 戊辰 東蕃해적寇烈山縣寧波戍 掠男女十八人” 1050년(문종 6) 6월과 9월 기록은 다른 침입기사로 추정된다.

126)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7月. “秋七月 丙戌朔 東번적寇派川縣”

127)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9月. “己亥 東北面兵馬使奏 해적寇掠烈山縣 遣兵馬錄事 文揚烈 以戰艦二十三艘 追至椒子島 奮擊大敗之 斬九級 焚其部落屋舍三十餘所 毀戰艦八艘 獲兵器以百數 請賞其功 從之”

128)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11月. “冬十一月 己酉 鎭溟都部署副使 金敬應率舟師 擊해적三艘于烈島敗之 斬數十級以獻 沒溺者甚衆 命有司論賞”

129)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6年 6月. “己卯 東女眞高之問等航海 來攻三陟縣臨遠戍 守將河周呂率兵出城 徇于軍曰 彼衆我寡 若人自爲戰 不愛其身 則戰必勝矣 遂擁干挺刃而進 適有安邊都護判官 金崇鼎巡所管諸戍 行至近境 賊聞其角聲 謂援兵徑至 遂驚亂 周呂軍 乘勝擊之 俘斬十餘級 賊奔潰”; 高之問에 대해서는 2장 1절 주57참조; 정요근은 1052년(문종 6) 5월에 내조한 高之問과 1052년(문종 6) 6월에 침입한 高

문종 초 동여진 해적의 침입에 대한 대응도 해안에서 격퇴하는 수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적의 본거지를 직접 파괴하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바뀌었다. 1049년(문종 3)에는 번적들이 鎭溟浦에 있던 고려 수군의 병선 2척을 탈취하자, 병마녹사 文揚烈와 元興鎭都府署判官 宋齊罕 등이 달아나는 번적을 추격하여, 촌락을 불태우고 20여 명을 죽인 뒤 귀환하였다. 다음 해에도 烈山縣에서 주민 18명이 납치되자, 兵馬綠事 文揚烈이 병선 23척으로 椒子島까지 추격하였다. 이후 적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가옥 30여 채 소각, 적선 8척 파괴, 1백여 점이 넘는 병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는 해상에서 직접 상륙하여 적의 본거지를 파괴한 최초의 사례이다.

1056년(문종 10) 1차 여진정벌이 시행되었는데, 이후 동여진의 해상침입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064년에 麻叱盖 등 1백여 명이 平海郡 南浦를 침입하며 다시 확인된다.¹³⁴⁾ 1068년(문종 22)에는 任希悅, 鄭申, 巨興 등이 椒島¹³⁵⁾에서, 같은 해 判官 任希悅 都部署副使 裴行之와 元興鎭副使 石秀珪가 椒島 閻羅浦에서 적을 격퇴하였다.¹³⁶⁾ 1064~68년에는 椒島 인근 해상에서 전투가 많았으며, 같은 시기 침입하는 번

之間이 다른 인물이라고 하였으나, 1047년(문종 1)에 거란과 통교한 세력의 수장으로 지칭되는 高之間이 고려에 다시 귀부하기로 요청하여 사정을 살피다가 다른 번적과 연합했을 가능성도 있다. 복속과 배반이 반복되던 여진인의 행태를 볼 때 가능한 일이다. 또 蒲盧毛朶部가 거란과 통교하면서 거란이 동여진 해적의 고려침략을 방관했다고 보았는데 두 기록이 연결될만한 근거는 없다. 거란이 蒲盧毛朶部와 같은 생여진의 여진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 차례의 조공으로만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거란이 동여진을 포섭하여 고려의 국력을 소모시키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130) 『高麗史』 卷4 世家4 文宗 18年 閏5月. “閏月 戊辰 東女眞賊首麻叱盖等百餘人 航海寇平海郡南浦 燒民家 擄男女九人”

131)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22年 6月. “庚申 東界兵馬使奏 判官 任希悅 錄事 鄭申 將軍 巨興等乘戰艦 巡行椒島 遇賊船十艘 與戰敗之 獲七艘 俘斬甚多 王嘉之 賜希悅等便服一襲 金鍍銀帶一腰 諸有戰功者 悉加爵賞”

132)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22年 7月. “丁酉 東界兵馬使奏 判官 任希悅 都部署副使 裴行之 元興鎭副使 石秀珪等 又巡椒島 夜至閻羅浦 遇賊船八艘 擊破三艘 餘賊登岸奔潰 追斬三十餘級 王厚加爵賞”

133)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6月. “丙申 兵馬使奏 東蕃海賊 寇東京轄下波潛部曲 奪掠民口 元興鎭都部署軍將 率戰艦數十艘 出椒島與戰斬十二級奪俘十六人 王喜 賜知兵馬事 秘書監 李成美領軍都部署將軍 廉漢等 銀藥合各一事 其餘有功將吏 職賞有差”

134)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8年 閏5月. “東女眞 賊首麻叱盖等 百餘人 航海寇 平海郡 南浦 燒民家 擄男女九人”; 1064년(문종 18) 6월에는 도병마사가 麻叱盖 등이 平海郡 등을 침입했을 때 수비군이 적을 죽이거나 사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憲司를 통해 문책하라고 상주하였다. 『高麗史』 卷8 「世家」 卷8 文宗 18年 6年. “六月 辛丑 都兵馬使奏 賊首麻叱盖等入寇平海 守邊 將 不能追捕 請令憲司斷罪 從之”

135) 椒島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여진과의 경계지역인 점, 元興鎭都府署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인 점이라는 전제 하에 함경남도 정평군 花島로 추정하는 견해(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추이」, 『歷史研究』 107, 한국사학회, 2012, 63쪽)가 있다. 花島로 추정하는 것은 고려가 적선을 경계지역에서 방어했을 것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文揚烈이 적의 본거지까지 적을 추격하거나, 본거지에 상륙해서 파괴했던 것으로 볼 때 고려의 수군의 활동범위가 번적의 주요 활동범위까지 확장했던 시기로 추정되는 점, 2차 동여진 번적 구축 시 定州와 번적의 본거지가 불과 만나질 거리였던 점에서 椒島의 위치는 定州 이북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금의 함경남도 해상에 全椒島, 川椒島, 帝樞島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136) 判官 任希悅 錄事 鄭申 將軍 巨興 등이 전공을 세우자 便服 한 벌과 도금한 銀帶 1개씩을 하사하

적의 규모가 최소 수백 여 명 규모로 증가했다.¹³⁷⁾ 문종 즉위 후 해상에서의 전투가 늘어나고, 해상에서 상륙하여 적의 본거지를 파괴하는 모습을 볼 때 현종 때의 戈船 배치 이후 지속적인 군비확장으로 고려수군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번적의 활동범위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동해안의 제해권을 고려가 장악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진촌락의 귀부가 늘어나며 여진 기미주가 확대된 1073년에도 해적의 침입이 발생하였다. 1073년(문종 27)년 6월에는 동여진 해적이 東京(경주) 관내였던 波潛部曲으로 침입하여 주민을 납치하고 약탈하였는데, 원흥진도부서에서 수십여 척의 병선이 椒島로 출진하여 적을 격퇴하고 주민들을 구출하였다. 이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知兵馬事 秘書監 李成美와 領軍都部署將軍 廉漢 등에게 銀製 藥合을 하사하였다.¹³⁸⁾ 椒島는 1060년대에도 두 차례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한 지역으로 번적의 주요 활동범위와 같은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수십 여 척의 병선이 출동한 점, 지휘관의 지위나 전공포상을 볼 때 비교적 큰 규모의 해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060년대에 해적이 해상에서 고려수군에 패배한 것에 대한 보복전이었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문종이 즉위 초부터 번적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해 해상에서 제해권을 가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거란과의 관계도 압록강 지역의 군사시설 설치문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표면적으로 안정관계에 있었던 점도 더 적극적인 여진정책을 시행하는데 힘을 실어주었을 것이다. 문종 초 번적의 해상침입이 계속되었으나, 육상침입도 많았다. 특히 동계 이북뿐만 아니라 북계 동북부, 동계의 和州나 定州에 인접했던 북계지역으로 침입하는 번적도 확인된다. 문종 대 동여진 蕃賊의 육상침입은 <표 5>에 정리하였다.

고 관직을 높여주었는데, 적을 해상에서 몰살시킨 전과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高麗史』卷8 世家8 文宗 22年 7月. “東界兵馬使奏 判官 任希悅 都部署副使 裴行之 元興鎮 副使 石秀珪等 又巡椒島 夜至閩羅浦 遇賊船 八艘 擊破 三艘 餘賊登岸奔潰 追斬 三十餘級 王厚加爵賞”).

137) 1078년(문종 32) 9월에는 도병마사가 ‘八助音部曲’은 해안 평지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東路海賊’의 침구로 백성들이 거주하기 힘들니 성을 옮겨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32年 9月. “都兵馬使奏 八助音部曲 城在海濱平地 屢被東路海賊 來侵 民不安居 請徙其城 制從之”; ‘八助音部曲’과 ‘波潛部曲’을 동일한 지명으로 보는 견해(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歷史研究』 107, 한국사학회, 2012, 64쪽)가 있다.

138) 『高麗史』卷9 世家9 文宗 27年 6月. “丙申 兵馬使奏 東蕃海賊 寇東京轄下 波潛部曲 奪掠民口 元興鎮都部署 軍將 率戰艦數十艘 出椒島與戰 斬十二級 奪俘十六人 王喜 賜知兵馬事秘書監 李成美 領軍都部署將軍 廉漢等 銀藥合各一事 其餘有功將吏 職賞有差”

<표 5> 문종 대(1046~1083) 동여진 蕃賊의 육상침입과 대응양상

번호	연도	전투지역	내용
1	1046년(문종 즉위)	靜邊鎮 (함남 요덕군)	번적이 靜邊鎮 포위 ¹³⁹⁾
2	1051년(문종 5) 9월	동계	동북면병마부사 金化崇이 번적 59명 참수 ¹⁴⁰⁾
3	1051년(문종 5) 9월	북계	서북면병마사 朴宗道가 關外 순시 중 번적과 전투, 적 10여 명 참수 ¹⁴¹⁾
4	1051년(문종 5) 10월	북계	兵馬錄事 尹甫·敬忠, 長州防禦使 金 且이 적 20여 명 참수 ¹⁴²⁾
5	1052년(문종 6) 5월	寧遠鎮(평남 영원군) 인근 淄潭驛	三撒村 高演의 蕃兵이 淄潭驛 포위, 兵 馬錄事 金忠簡, 慈州防禦判官 張立身 출진, 적 50여 명 참수 ¹⁴³⁾
6	1061년(문종15) 8월	동여진 지역	定州別將 耿甫 20여 명, 적진 정찰 중 阿下費 등 2백여 명과 전투, 10여 명 참수 ¹⁴⁴⁾
7	1061년(문종15) 9월	북계 平虜鎮 (평북 희천군)	번적 酋長 阿羅弗이 변경 침범, 平虜鎮 兵馬錄事 康瑩과 西北面兵馬錄事 高慶 仁이 降魔鎮까지 추격, 수십 여 명 참 수, 다수의 병기 노획 ¹⁴⁵⁾
8	1061년(문종16)	북계 平虜鎮 (평북 희천군)	蒙浦村 출신 적이 침입, 齊俊那의 첩보 로 매복공격, 다수의 적 사상 ¹⁴⁶⁾
9	1079년(문종33) 5월	북계 平虜鎮 (평북 희천군)	隊正 康金·從甫이 격퇴 ¹⁴⁷⁾

139)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卽位年 7月. “戊戌 制 往者 東賊圍靜邊鎮 別將 鄭匡順 力戰却敵 沒於陣下 其功甚大 可贈金吾衛郎將”

140)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5年 9月. “九月 己酉朔 東北面兵馬副使 金化崇奏 女眞寇邊 遣軍士擊斬五十九級 遣閣門通事舍人 徐亶 賜教曰 爾富蘊兵謀 遐分闔寄 偵戎醜之作梗 擾我邊封 聘婉畫以出奇形 茲捷奏 顧多俘馘 可獎勞庸 今差閣門通事舍人 徐亶 往彼宣諭 賜爾衣對綵段銀器 其軍前員將 隨等第 亦賜匹段”

141)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7月. “辛巳 以禮部尙書 李守和爲西北面秋冬番兵馬使 兵部侍郎 三司副使 朴宗道爲東北面兵馬副使”

142)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5年 10月. “冬十月 丁亥 東北面兵馬使奏 蕃賊寇邊 遣兵馬錄事 尹甫敬忠 長州防禦使 金且等 追擊斬二十餘級”

143)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6年 5月. “五月 庚戌 北路三撒村賊魁高演與蕃兵 圍淄潭驛 兵馬錄事 金忠簡 慈州防禦判官 張立身等 率兵出戰 大破之 乘勝追擊 斬擄五十餘級”

144)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5年 8月. “秋八月 壬子 東路兵馬使奏 定州別將 耿甫 率二十餘人偵賊 忽遇賊魁阿下費等二百餘人 與戰敗之 斬十數級 請賞其功 從之”

145)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5年 9月. “九月 丁卯 都兵馬使奏 賊酋阿羅弗等犯境 劫掠邊民 平虜鎮兵馬錄事 康瑩西北面兵馬錄事 高慶仁率兵追及降魔鎮 敗之 斬獲數十級 多收兵仗 合示褒賞 從之”

146)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8年 1月. “辛酉 西北路兵馬使奏 去壬寅年 蒙浦村賊謀侵我疆 潛入平虜鎮 設伏折衝降魔兩戍間 有化內番長齊俊那知之 來告鎮將 先伏兵草莽以待之 賊果突入 我兵齊發 俘斬甚多 請厚賞俊那金帛 從之”

147)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3年 5月. “五月 戊辰 北蕃賊寇平虜關隊正 康金從甫等潛伏草莽 伺賊至

육상에서 침입한 번적이 처음 확인되는 시점은 문종 즉위년에 번적이 靜邊鎮(함남 금야군)을 포위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靜邊鎮 別將 鄭匡順을 金吾衛 郎將으로 추증된다. 문종 즉위 후 육상에서 처음 번적과 충돌했던 전투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지만 鎮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번적을 죽이고 포로를 잡은 전과에 대하여 장졸들에게 衣服·綵段·銀器를 하사했다. 이 시기 육상침입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번적이 육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거나 고려가 장성 이북에서 정찰활동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⁸⁾

그런데 이 시기 고려에 침입했던 번적이 특정 세력의 결속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三撒村에 거주하는 高演의 군사들이 淄潭驛¹⁴⁹⁾을 포위하였는데, 병마 녹사 金忠簡과 慈州防禦判官 張立身이 적을 격퇴하여 5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¹⁵⁰⁾ 이전에는 鎮·浦에서 교전이 발생하였는데, 번적이 驛과 같은 기간시설을 포위하여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듬해 해상에서는 高之問이 三陟縣 臨遠戍를 공격했는데, 戍將 河周呂와 安邊都護判官 金崇鼎의 지휘 하에 격퇴하였다. 高之問은 고려를 배반하고 거란에 귀부했던 東蕃 酋長 阿兜幹이 속한 세력의 수장으로 확인되는 인물이며, 淄潭驛을 포위한 세력과 연합했을 가능성¹⁵¹⁾도 있다.

이 시기 육·해상에서 발생한 전투를 볼 때 단순한 약탈이 목적이 아닌 고려의 군사적인 압력이나 후술할 기미주에서의 영향력 강화가 고려에 적대적인 여진부족의 결속을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를 비슷한 시기에 육·해상으로 공격했던 세

射前鋒二人 賊犇潰 兵馬使請加論賞 從之”

148)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5年 9月. “甲寅 西北面兵馬使 朴宗道奏 昨率軍將 巡行關外 遇東蕃賊 擊斬十餘級 奪戰馬二十四 鎧仗無算 王優獎之”; 같은 해 8월에는 龜州郎將 康隣과 昌州別將 康彥·崔立이 번적 6인을 사로잡거나 죽였다고 확인되는데, 동여진 번적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윤경진, 『고려 현종말 ~ 문종초 北界 州鎮 설치와 長成 축조』, 『軍史』 79, 군사편찬위원회, 2011, 301~302쪽). 동여진은 북계를 침입하더라도 모두 平虜鎮이나 寧遠鎮 인접지역으로 침입했다.

149) 雲中道가 관장하는 43驛 가운데 하나로, 牽牛驛, 寬川驛과 함께 寧遠鎮 인근에 있었다. 이기백,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227-228쪽.

150)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6年 5月. “五月 庚戌 北路三撒村 賊魁 高演與蕃兵 圍淄潭驛 兵馬錄事 金忠簡 慈州防禦判官 張立身等 率兵出戰 大破之 乘勝追擊 斬擄五十餘級”; 전공을 올린 병사들은 1054년(문종 8) 9월에 포상하였다.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8年 9月, “九月 己巳 錄壬辰年淄潭驛 破賊之功 賞軍士職有差 賜物 優厚”; 같은 해 10월에는 平虜鎮에서 전사한 蘇康漢을 興威衛上將軍으로 추증했는데, 平虜鎮이 寧遠鎮 등 동계와 인접한 지역인 점에서 淄潭驛 전투 과정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高麗史』 卷9 世家7 文宗 6年 10月. “丙戌 錄蘇康漢 平虜鎮 戰死之功 贈興威衛 上將軍”

151) 高之問과 같은 성명을 가진 인물이 1052년(문종 6)에 공물을 바친 사례가 확인되는데, 내현한 지 한 달 여 만에 다시 침입했던 점에서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견해(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사학연구』 107, 한국사학회, 2012. 62-63쪽)가 있으나, 침입과 복속을 반복했던 여진인들의 행태를 볼 때 가능한 일이다. 육·해상의 蕃賊들이 결속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東史綱目』 第7上 壬辰年, 文宗 6年 夏5月.

력이 같다는 점은 문종 대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로 문종 대에 장성 이북 여진촌락의 경계를 나누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압송한 점, 통교를 제한한 점 등 고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자신들의 활동범위였던 해상으로 본 거지를 직접 공격받은 것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있다.¹⁵²⁾ 淄潭驛 전투 이후에는 한동안 고려와 여진의 관계가 다시 단절되었는데, 고려가 안보상의 이유로 국경을 폐쇄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경을 폐쇄하는 것은 여진이 고려와 통교할 권한을 잃는 것으로 또다른 정치적인 압력일 수도 있다.

한동안 단절되었던 고려와 여진의 관계를 전환시킨 분기점은 1056년(문종 10)에 시행된 1차 동여진 번적 구축이다. 고려군이 동여진 지역으로 군사를 보낸 것은 단순한 번적 구축을 넘어서 동여진 지역에서 高之間·高演 세력이 남하하여 고려의 경계를 침입하여 동여진 기미주를 상실하고, 적대적인 세력과 대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는 반세기 동안 동여진 번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축성과 전투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동여진에 설치한 기미주는 북방의 여진에 대한 1차적인 방어선이었기 때문이다.

1051년(문종 5)에 長州防禦使로 이전에 번적을 격퇴한 적이 있는 인물인 東路馬兵貳師 侍御史 金旦 휘하의 三軍을 동여진 정벌을 위해 장성 이북으로 보냈다. 金旦은 ‘적과의 전투에 임해서 가사를 잊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본분이니 우리의 생사는 오늘 전투에 달려있다’고 훈시하였는데, 처음으로 장성 이북의 여진지역으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는 것이어서 고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군사행동이었을 것이다. 고려군은 번적의 둔락 20여 곳을 파괴하였고, 다수의 병기와 가축을 노획하였다.¹⁵³⁾ 이 전투는 11세기 전반 번적의 본거지를 육상에서 직접 파괴하고 몰아낸 것이었다.

152) 1054년(문종 8) 3월에는 억류 중인 동여진인 阿骨 등 59명에게 차등을 두어 포목과 물품을 지급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阿骨은 1051년(문종 5) 4월에 廣仁館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인물과 동일 인물 다시 억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8年 3月. “三月 甲戌 賜勒留 東女眞 阿骨等 五十九人 布物有差”; 阿骨이라는 성명도 많이 확인된다. 1025년(현종 16) 여진 歸德將軍 阿骨 → 1027년(현종 18) 黑水靺鞨 歸德大將軍 阿骨 → 1028년(현종 19) 동여진 歸德將軍 阿骨 내조 → 1030년(현종 21) 동여진 寧塞將軍 阿骨 내현 → 1036년(정종 2) 東蕃 寧塞將軍 阿骨이 내조 → 1036년(정종 2) 동여진 장군 阿骨 내현 → 1040년(정종 6) 동여진 奉國將軍 阿骨이 내현 → 1049년(문종 3) 동여진 阿骨 내현 → 1051년(문종 5) 동여진 ‘賊首’ 阿骨 석방 → 1054년(문종 8) 동여진 阿骨 억류.

153)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10年 7月. “秋七月 丁酉 以東蕃賊 屢侵邊境 遣東路馬兵貳師 侍御史 金旦 往討之 旦誓衆曰 臨敵忘家 以身殉國分也 我生死正在今日 三軍感激奮勵 勇氣 自倍 破其屯落二十餘所 賊大潰 獲兵仗羊馬無算”, 소규모 기동작전이라고 하였으나, 2차 정벌이나 1073년 여진인 간의 전투 규모를 볼 때 문종 초 번적의 침입이 심해졌던 것에 대한 대대적인 정벌이었을 것이다(추명엽, 「11世紀後半~12世紀初 女眞征伐問題와 政局動向」,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79쪽).

그러나 20여 개 屯落을 파괴한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1차 번적 구축이후 1061년(문종 15)까지는 번적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고, 내헌한 여진인의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번적 세력을 북방으로 몰아내거나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진사회의 기본적인 조직단위인 촌락이 3~5리 간격으로 1~2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촌락별로 약 50호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¹⁵⁴⁾ 1073년(문종 27)에 발생한 기미주의 여진촌락이 연합한 蕃軍과 번적 세력 간의 전투에서 蕃軍이 600여 명에서 2천 여 명을 동원한 점, 번적 세력도 다수의 병선을 만들고 운용할 만한 병력과 자원을 보유했던 세력인 점, 1080년(문종 34)에 있었던 2차 파병에서 번적을 제압하기 위해 동원한 文正 휘하의 三軍 3만 명이었던 점에서 1만 명 이상이 출진했을 것이다. 지휘관의 지위는 1080년에 비해 낮지만 파괴한 屯락의 수는 2차 정벌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고려는 10세기 후반 성종 대에 압록강 여진과의 충돌에서 대패했던 전례도 있었으며, 번적이나 對거란 전쟁에서 중군했던 여진과 교전했던 경험으로 여진인의 전투능력을 간과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며, 번적의 본거지에 직접 병력을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으로 단기간에 적의 본거지를 파괴하고 귀환하는 전략을 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기미주 여진촌락들의 동향은 확인되지 않지만, 1073년 여진 내부의 분쟁에 고려군 지휘관을 참관시킨 것을 볼 때 기미주의 여진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려에 협력하는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¹⁵⁵⁾

고려의 1차 여진 정벌 이후 한동안 번적의 침입은 확인되지 않는데, 1061~62년에 번적의 침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1061년(문종 15)에는 定州別將 耿甫가 적진을 정찰하던 중 賊首 阿下費 등 2백여 명과 교전하여 십여 명의 목을 베었고, 賊首 阿羅弗 등이 고려 영내로 침입하자 平虜鎮兵馬錄事 康瑩과 西北面兵馬錄事 高慶仁이 군사를 거느리고 降魔鎮까지 추격해서 수십 명을 죽이고 병기를 노획하였다.¹⁵⁶⁾ 다음 해

154) 李東馥, 「金初 女眞社會의 構成 : 猛安謀克戶의 編成」, 『歷史學報』 106, 歷史學會, 1985, 223-224 쪽.

155) 같은 달 12월에는 동여진의 柔遠將軍 沙支何 등 두 명을 참형에 처했는데, 이들이 과거에 朔州 사람의 물건을 약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여진 공격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에 침입했다라도 억류한 뒤 다시 석방하여 化外 여진 포섭에 활용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인데, 이 시기 여진에 대한 정책이 매우 강경해진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10年 12月. “斬東女眞 柔遠將軍 沙支何等 二人 以嘗劫掠 朔州人物也”

156)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5年 8月. “秋八月 壬子 東路兵馬使奏 定州別將 耿甫 率二十餘人偵賊 忽遇賊魁 阿下費 等 二百餘人 與戰敗之 斬十數級 請賞其功 從之”, 文宗 15年 9月. “九月 丁卯 都兵馬使奏 ‘賊酋阿羅弗等犯境 劫掠邊民 平虜鎮兵馬錄事 康瑩 西北面兵馬錄事 高慶仁率兵追及降魔鎮 敗之 斬獲數十級 多收兵仗 合示褒賞 從之’; 阿羅弗과 같은 성명은 1019년(현종 10) 7월과 1079년(문

에는 蒙浦村의 적이 平虜鎭에 잠입하여 折衝戍와 降魔戍 사이에 군사를 매복시키자, 고려에 귀부한 蕃長 齊俊那가 平虜鎭 鎭將에게 보고하자, 고려군이 먼저 공격하여 다수의 적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등¹⁵⁷⁾ 다시 충돌이 발생하였다.

고려의 기미주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자 1073년(문종 27)에는 기미주의 여진촌락과 번적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과정에 고려군 지휘관이 종군하는 일도 나타났다. 1073년에는 平虜鎭 인근에 거주하던 여진인들이 고려 영내로 들어와 귀부하면서 고려에 귀부한 여진세력이 번적을 토벌할 예정이니 관전해주기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정황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D-1. “...蕃帥 또 말하길 ‘三山村 계곡과 해변에 나누어 살고있는 번적들이 왕래하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여 저희들과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에 化內 三山村의 中尹 夜西老 등 30徒의 추장(東蕃 黑水人이 30種이라 三十徒이다.)을 회유하여, 호응하자 각 장수들이 蕃軍을 이끌고 토벌에 나서려 합니다. 고려인을 보내서 觀戰하길 청합니다.’ 이에 定州 郎將 文選과 장교, 통역 등이 蕃服으로 갈아입고 那復其村¹⁵⁸⁾ 都領 霜昆 휘하의 蕃軍과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이후 文選등이 급보를 보냈습니다. 骨面 등 村都領의 將兵이 三山の 阿方浦로 가서 적의 소굴을 찾아 살펴보니, 由戰村, 해변 산마루, 羅竭村의 賊 1백 50호가 하천 옆에 石城을 쌓아 놓고 남너노소와 재산을 성 안에 놓고 步·騎 5백여 명으로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蕃軍이 큰 소리로 급습해서 치니, 무리가 크게 흩어지자, 2백 2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또 남은 무리가 성으로 도망하자 우리 측 蕃軍이 승세를 타고 공격하여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3백 30여명이었고, 성 안에서 저항한 자들은 불에 타죽었습니다. 다시 由戰村을 공격하기 위해 이동하였으나, 큰 비가 내리고 군량도 적어서 귀환하여 며칠을 보냈습니다. 文選 등이 蕃兵 2천 30명을 이끌고 由戰村 石城 아래 진을 쳤으나 적이 성을 굳게 지켰는데, 성이 험하여 공격해서 얻은 게 없고 군량도 떨어져서 이끌고 돌아왔습니다.”¹⁵⁹⁾

종 33)에도 같은 성명이 확인되는데, 내조 기록 등이 나타나지 않아서 같은 인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1061년(문종 15)과 1079년(문종 33)의 阿羅弗이 동일인물이라면 침입 이후 고려에 내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조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서 같은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10年 7月. “庚午 西女眞酋長阿羅弗率衆來 獻馬”,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3年 4月. “己酉 東北面兵馬使奏 女眞耶邑幹 自定州 弘化戍來欵云 父阿羅弗 母吳曬 兄齊主那等六人 曾於丁巳年 向化來投 願隨居之 王曰 夷狄雖同禽獸 尙有孝心 宜令隨父母親屬 徙置嶺南”

157)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18年 1月. “辛酉 西北路兵馬使奏, “去壬寅年 蒙浦村賊謀侵我疆, 潛入平虜鎭 設伏折衝·降魔兩戍間 有化內番長齊俊那知之 來告鎭將 先伏兵草莽以待之 賊果突入 我兵齊發 俘斬甚多 請厚賞俊那金帛 從之”

158) 『高麗史』 卷96 列傳9 諸臣 尹瓘. “...瓘延寵 自定州勒兵赴吉州 行至那卜其村...”

159)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5月. “...蕃帥又言 三山村谷海邊分居번적 殺掠往來人物 爲我仇讎 今欲報讎 告諭化內三山村 中尹 夜西老等三十徒酋長 東蕃黑水人 其種三十 號曰三十徒 亦皆響應 各率蕃軍 方將進討 請遣鄉人觀戰 於是 遣定州郎將 文選 及將校譯語等 著蕃服 與那復其村都領霜昆下蕃軍同發 文選等馳報 骨面等村都領各將兵 到三山阿方浦 探候賊穴 凡三所 一爲由戰村 一爲海邊山頭 一爲羅竭村 賊一百五十戶 築石城於川邊 置老小男女財產于城中 以步騎五百餘人逆戰 我蕃軍大呼急擊 彼衆大潰 斬二百二十級 餘衆走保其城 我蕃軍乘勝追擊 攻城縱火 生擒三百三十二人 在城拒戰者 皆燒死 又進攻由戰村場 適有大雨糧

D-2. “...羅竭村 전투에서 都領, 大完 多於皆와 阿半尼 등 蕃의 군사와 장수들 680여 명이 적을 격파하는데 힘을 쏟았고, 文選 등은 전투를 감독한 공이 있으니 恩賞을 내려 격려하는 뜻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門下侍中 崔惟善 등 30명이 논의하여 아뢰길 “三山村의 적들이 변경을 침입한 적이 없는데, 蕃軍 등이 조정의 허가없이 제멋대로 우세한 군사력으로 사사로이 원수를 갚은 것을 알렸으니 상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하여 따랐다.¹⁶⁰⁾

고려에 귀부한 여진촌락과 번적 간의 전투는 총 2회로 나누어볼 수 있다.¹⁶¹⁾ 1차 羅竭村 전투는 30姓 부족연합의 일부가 참여한 단기전이었다. 번적도 고려측 蕃軍의 공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2차 由戰村 전투는 羅竭村 전투 이후 전열을 정비하여 병력 규모도 확대되었다.¹⁶²⁾ 2차 전투에서는 더 많은 촌락이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차 전투의 승리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혹은 1차 전투의 압승으로 化內 여진의 입장에서 고려의 포상을 바라고 종군했거나, 경계 지역의 고려군 시설들이 촌락들을 관리했던 점에서 기미주에서 都領들을 통해 병력을 차출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였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의 입장에서 여진인의 복장을 입고 간 것은 번적에게 고려인이 있다는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인데,¹⁶³⁾ 자칫 동여진의 적대적인 집단들이 결탁하여 고려에 침입하는 등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고려가 육·해상에서 군사적인 우위에 있었지만, 북방의 정세는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상황이 발생하자 郎將 이하 장교와 통역이 즉각 투입된 것을 볼 때 군사지역인 북

少 引還居數日...”

160)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5月. “...羅竭村之役 都領 大完 多於皆 阿半尼等 蕃軍將 六百八十餘人力戰破賊 文選等 十五人監戰有功 請行恩賞 以示勸懲 門下侍中 崔惟善等十三人議奏 三山村賊本非犯邊之寇也 今蕃軍等 不因朝旨 專仗闕威 以報私讎 請勿行賞 從之”; 對여진정책의 기초가 현상 유지의 중립정책이었다는 견해(추명엽, 「11世紀後半~12世紀初 女眞征伐問題와 政局動向」,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84-85쪽)가 있다. 고려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여진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분명하다.

161) 정요근은 이 전투를 장백산 여진과 포로모타부의 중심세력간의 전투로 보았고, 1073년에 과잠부곡에 대한 공격도 고려에 대한 보복으로 보았으나 전투규모가 중심촌락간의 전력으로 보기에 힘들며 과잠부곡을 공격한 것으로만 판단하기에는 힘들다. 또 1073년 이전에 대규모로 침입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1097년까지 포로모타부의 내공기록이 없다는 점이 고려의 동여진 지역 영향력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고려와 동여진의 관계도 1080년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연관되지 않는다.

162) 고려측 ‘蕃軍’과 전투를 벌인 번적이 2~3개 촌락의 5백 여 명의 병력이 있었던 점에서 30姓 部落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며, 고려에 귀부했던 촌락 규모를 볼 때 번적에 속한 촌락에 대한 보복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순자,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학회, 2012, 48-49쪽.

163) 金南奎, 「高麗前期의 女眞觀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加羅文化』 12, 加羅文化研究所, 1995, 144쪽.

방경계에서 장성 이북의 정세나 번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군이 여진북장으로 위장하거나 통역을 운용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을 것이다.

여진촌락들이 연합한 번군이 번적과 전투를 벌인 점도 처음 확인된다. 문종 대에는 번적과의 전투에서 나온 모든 전과에 대하여 상벌이 즉각 시행되었다. 그러나 1073년(문종 27)에 발생한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는 논공행상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적대적인 여진세력의 결속으로 확대되어 장성 이북의 기미주가 공격받거나 거란과의 외교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위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⁶⁴⁾ 고려는 1058년(문종 12)에 宋과 외교관계를 재개하려다가 성립되지 못한 이후 1071년(문종 25)에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재개한 이후였다. 10세기 후반 成宗과 宋의 사신인 韓國華와의 대화에서 서여진이 宋에 조공하기 때문에 정벌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기록¹⁶⁵⁾을 볼 때도 동여진에 대한 문제가 외교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¹⁶⁶⁾

고려에 귀부한 여진부족이 자신들의 번적 토벌과정을 고려군 지휘관이 관전하도록 요청한 것은 자칫 북방경계 일대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번적으로 오해받아 관문이 폐쇄되어 통교가 단절되거나, 1056년(문종 10)에 있었던 정벌처럼 고려가 직접 군대를 보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혹은 다른 고려에 귀부한 여진촌락을 설득한 三山村의 中尹 夜西老가 다스리는 지역이 번적의 활동범위와 가까웠기 때문에 夜西老가 병력 동원의 명분과 타 여진부족의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지원을 받는다는 대외적인 명분도 필요했을 것이다.

고려의 입장에서 적 정세를 정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여진 내부로 들어간 것이고, 郎將 文選 등이 포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때 개인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거란의 관작을 보유한 이들이 전투에 나선 것도 확인되는 점은 이 지역이 고려나 거란과도 접촉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충돌 직후 1074~

164) 『東國通鑑』 卷17 高麗紀 文宗 27年 夏5月; 金南奎, 「高麗前期의 女眞觀 -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加羅文化』 12, 加羅文化研究所, 1995, 144쪽; 1073년(문종 27) 6월에는 거란군이 고려에 내투한 뒤 압록강 수비군에 복무했던 거란인을 追捕하기 위해 장성을 넘어 靜州까지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였다(허인욱, 「高麗·契丹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12, 109-136쪽).

165)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4年 5月. “...以其世事中朝 不敢報怨 豈期反相誣告 以惑聖聰 本國世稟正朔 謹修職貢 深荷寵靈...”

166) 1080년(문종 34) 2차 동여진 정벌을 지휘한 이들이 대여진 강경책을 주도했던 중심세력이라는 견해가 있다(추명엽, 「11世紀後半~12世紀初 女眞征伐問題와 政局動向」,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完顔部 여진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11세기 후반 전통적인 여진정책의 변화로 여진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추구한 중소귀족 출신들이 출현했다고 하였으나, 내정 문제를 떠나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對여진정책의 기초는 강경대응이 우선이었다.

1080년 사이에는 번적의 침입이 두 차례만 확인되며, 여진의 동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1073년(문종 27)에는 여진인들 간의 충돌과 함께 여진인들이 수천 여 호 단위로 고려에 내부한 현상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¹⁶⁷⁾

그러나 1074년(문종 28)에 문종이 직접 동경 四天王寺에서 27일 동안 文豆婁道場을 열어 蕃兵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확인¹⁶⁸⁾되는데, 文豆婁道場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國泰民安’을 빌기 위한 종교의례로 睿宗과 高宗 대에 동여진, 東眞國의 침입이 예상되던 시점에 치러졌다.¹⁶⁹⁾ ‘蕃兵’은 1052년에 淄潭驛을 포위했던 三撒村의 高演을 지칭할 때 사용한 적이 있으며, 蕃兵의 침입이 예상되는 시기나 전쟁 중에 실시했던 의례를 치른 점, 같은 시기 특별한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1년 여 전에 기미주의 여진부락과 번적 사이에서 두 차례의 전투가 있었던 점에서 기미주의 여진촌락이 번적의 침입을 받았거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동여진 정벌 이후 다시 여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1080년(문종 34)에는 ‘東蕃의 亂’을 진압하기 위해서 中書侍郎平章事 文正을 判行營兵馬事로, 同知中樞院事 崔奭, 兵部尙書 廉漢을 兵馬使, 左承宣 李顥를 兵馬副使로 임명하고, 3만 명 규모의 三軍을 편성하여 동여진 지역으로 진군하였다.

E-1. “...東蕃이 난을 일으키자 中書侍郎平章事 文正을 判行營兵馬事 同知中樞院事 崔奭 兵部尙書 廉漢을 兵馬使, 左承宣 李顥를 兵馬副使 장수들이 騎·步 3만 명으로 定州에 주둔했다. 밤에 길을 나누어 곧장 적의 소굴로 향하여 밝아질 무렵에 이르렀는데, 북과 고함소리가 땅을 진동시키니 적이 두려워하였다. 적을 몰아쳐서 392명의 목을 베고 장수29명을 사로잡았으며, 소와 말 백 여 필을 노획하였다. 적의 무기가 산처럼 쌓였고, 공격해서 파괴한 촌락이 십여 곳에 이르렀다.”¹⁷⁰⁾

167) 11세기 후반 完顏 여진이 세력을 확대하여 남하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남규, 「高麗前期의 女眞觀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가라문화』 12,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5, 135쪽; 정수아, 「高麗中期 對宋外交 再開와 그 意義」, 『국사관논총』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171-172쪽.

168)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8年 7月. “庚子 設文豆婁道場於 東京 四天王寺 二十七日 以禳 蕃兵” 정요근은 해적과 연관된다고 보았으나 시기상 1080년 2차 동여진 정벌과 연관되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歷史研究』 107, 한국사학회, 2012, 64쪽.

169) 여진의 침입이 예상되었던 1108년(예종 3)에는 국왕이 동계에 使者를 보내서 完顏女眞을 막게 해 달라고 빌었으며, 1109년(예종 4)에도 同知樞密院事 許慶을 平壤 木覓山에 있는 東明王神祠에서 제사를 올리게 하며, 興福寺 永明寺 長慶寺 金剛寺 등의 사찰에서 文豆婁道場을 열게 한 기록도 확인된다. 『高麗史』 卷12 「世家」 卷 12, 睿宗 3年 7月. “丙子 遣使東界 設文豆婁道場於 鎮靜寺 設四天道場於 毗沙門寺 以禳邊寇”; 『高麗史』 卷13 「世家」 卷13 睿宗 4年 4月. “乙酉 遣同知樞密院事許慶 祭平壤 木覓東明神祠 又設文豆屢道場於興福 永明 長慶 金剛等寺 又遣門下侍中 尹瓘 樞密院副使 柳仁著 祭昌陵 禱兵捷.”

170) 『高麗史』 卷95 列傳8 諸臣 文正. “...東蕃作亂 正爲判行營兵馬事 與兵馬使 崔奭廉漢 兵馬副使 李

E-2. “...해가 진 뒤에 개선하여 돌아와서 아뢰니, 왕이 기뻐하며 左司員外郎 裴緯를 보내서 조서를 내려 ‘근래 변방의 일로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마음이 아픈 것이 그치질 않았다. 이제 알리는 내용을 살펴보니 오랑캐를 항복시키고 순종하게 만들어 백성들의 피해를 없앴다고 하였다. 짐으로 하여금 동쪽의 근심을 없앤 것은 모두 그대의 공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특별히 文正에게는 丁香을 담은 100냥 무게의 銀盒 한 벌, 崔爽廉漢李顥에게는 50냥 무게의 銀盒 한 벌을 내렸다. 또 文正에게는 ‘推忠贊化蕩寇靜 塞功臣’ 칭호와 함께 특별히 더하여 ‘特進·檢校司徒·門下侍郎平章事·判尙書禮刑部事 兼 太子太傅·上柱國·長淵縣開國伯과 食邑 1천호, 食實封을 2백호를 내렸다.’¹⁷¹⁾

E-3. ‘지난 겨울 12월에 동북로의 戎醜를 하루아침에 소멸시켜서 변경의 어지러운 기운을 없애 조용하게 하였다. 이는 모두 위로 宗廟의 威靈들게서 돕고 아래로는 여러 장수들이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이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여 돌아온 것을 大廟와 六陵에 고할 것이니 날을 택하여 일을 진행하라.’¹⁷²⁾

文正 휘하 3만 명의 병력도 1056년 金杼의 1차 여진구축과 같이 통상적인 三軍편제로 출진했을 것이다. 또 고려군은 야간에 북상해서 새벽에 기습하는 작전을 택했다. 적의 위치는 定州에서 밤에 이동하여 새벽에 기습하고 해질녘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던 곳이었다. 고려군은 단 하루의 전투로 번적의 둔락 10여 곳을 파괴했다. 고려는 동여진 지역에서 지체할 경우 번적과 관계없는 여진촌락도 동요하는 것, 적대적인 여진세력들이 결속해서 전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규모 병력에 대한 보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으로 단기간에 적의 본거지를 파괴하고 복귀하였다.

여진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73년 羅竭村 전투에서 고려측 蕃軍 600여 명이 石城에서 대비했던 羅竭村과 由戰村의 병력 5백여 명과 전투하여,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경우나 귀부한 여진촌락들의 규모를 볼 때 3만 명을 동원한 기습전임에도 전과가 크지는 않다.¹⁷³⁾ 번적 3백여 명을 참수한 점, 적장을 39명

顥 將步騎三萬 出屯定州 夜分道直趣賊巢穴 遲明乃至 鼓譟震地 賊大懼 遂磨兵奮擊 斬三百九十二級 擒渠帥三十九人 獲牛馬百餘 委棄器械填積 攻破廬落凡十餘所...”;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4年 12月. “東蕃作亂 以中書侍郎平章事 文正 判行營兵馬事 同知中樞院事 崔爽兵部尙書 廉漢爲兵馬使 左承宣 李顥爲兵馬副使 將步騎三萬 分道往擊之 擒斬四百三十一級”

171) 『高麗史』 卷95 列傳8 諸臣 文正. “... 晡後凱還奏捷 王喜遣左司員外郎 裴緯 勅曰 近緣邊事未息 宵旰軫慮 今省所奏 婉畫降戎 掃除民害 使朕無東顧之憂 惟乃之功 特賜正 銀合一副 重一百兩 爽漢顥 銀合各一副 重各五十兩 並盛丁香 尋賜正推忠贊化蕩寇靜塞功臣號 加特進檢校司徒門下侍郎平章事判尙書禮刑部事兼太子太傅上柱國長淵縣開國伯 食邑一千戶 食實封二百戶”

172)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5年 2月. “丙子 制曰 去冬十二月 東北路戎醜 一朝掃滅 邊陲廓清 是皆上賴宗廟之威靈 下仗群帥之雄略 今已凱還 宜告大廟及六陵 可擇日行事”

이나 압송해 왔는데, 번적과의 충돌은 있었지만 대규모 병력에 압도되어 항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는 적장들을 모두 압송해오고 본거지를 파괴하여 번적의 잔존 세력을 북방으로 구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80년(문종 34) 12월에 있었던 여진구축의 원인인 亂을 일으킨 주체가 어떤 세력인지, 무엇 때문에 고려에 위협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시기 기미주 여진인들의 내조가 단절된 점, 여진과의 경계지역에서 번적과의 전투도 확인되지 않는 점은 고려가 영향력을 확대한 동여진 기미주가 대규모 침입을 받거나 번적 세력에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⁷⁴⁾ 혹은 1073년에 고려측 蕃軍들이 번적을 공격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압송된 적장 중 한 명의 성명이 확인되는데, 張向¹⁷⁵⁾은 이전에 귀덕장군으로 내조했던 인물이다.

또는 동번의 난이라는 기록을 볼 때 고려에 복속하기로 한 기미주의 여진촌락의 일부도 번적의 침입에 가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동여진 정벌 다음 해인 1081년(문종 35)에는 적의 우두머리인 阿亥가 아들 徐害를 개경에 보냈고, 다음 해에는 동번 賊首 張向 등 14명을 山南의 먼 곳으로 유배했다.¹⁷⁶⁾ 이러한 전후 상황을 볼 때 난을 일으켰던 번적들의 세력이 고려의 무력에 굴복하여 표면적으로 복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종은 즉위 초부터 기미주와 기미주 밖의 여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거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고려도 동여진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이나 기미주의 설치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거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

173) 고려가 난을 일으킨 주모자를 압송하는데 만족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견해가 있다. 金南奎, 『高麗前期의 女眞觀 -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加羅文化』 12, 加羅文化研究所, 1995, 140쪽; 1080년(문종 34)의 동여진 정벌이 전쟁이라고 보는 견해(강은정, 『12세기 초 고려의 여진정벌(女眞征伐)고 대외관계의 변화』, 『북악사론』 9, 북악사학회, 2002, 10쪽)가 있다. 그러나 전후처리나 정벌 대상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점과 전황 등을 볼 때 일방적인 구축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또 1103년(숙종 8)에 完顔 여진과 고려가 葛懶甸지역과 여진촌락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과는 성격이 다르며, 변경 지역의 번적 구축으로 문종 10년에 高演, 高之間 집단과 같은 특정 세력의 본거지를 몰아내기 위한 성격이 크다.

174) 1080년(문종 34) 2차 동여진 번적 구축을 1104년(숙종 9)과 1107~08년(예종 2)의 對여진전쟁과 함께 1차 고려-여진 간 전쟁으로 설정하여 처음으로 대외정벌에 나섰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미 1051년(문종 5)에 金攄의 1차 여진 구축이 있었다. 또 1073년(문종 27) 5월에 있었던 고려측 ‘蕃軍’과 동여진 번적 간의 전투를 完顔여진세력에 귀부한 세력과의 전투로 추정했다. 그러나 完顔여진의 동향과 연관이 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1051년(문종 5) 1차 번적 구축과 1073년(문종 27) 고려측 ‘蕃軍’과 ‘번적’의 전투와 비교했을 때 文宗이 ‘蕃兵’을 막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3만 명이 출진한 점은 확인되지만, 특정한 외교주체나 경계 획정 문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숙종~예종 연간에 있었던 完顔部 여진과의 전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김순자,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학회, 2012).

175) 張向은 1076년(문종 30)에 내현한 적이 있다.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0年 1月. “東女眞 歸 德將軍 張向等十九人 來獻駿馬”

176)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6年 8月. “配東審賊首張向等十四人於山南遠地”

은 고려가 육상과 해상에서 방어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직접 본거지를 공격하는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고려는 직접 군대를 보내 번적들을 복속시켜 동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고, 고려에 귀부하지 않은 동여진의 번적세력은 고려의 기미 지역이나 장성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驛이나 鎭을 포위하는 저항도 있었다.

이후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선종 대(1084~1094)에 두 차례 해적의 침입이 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여진의 동향은 확인되지 않으며, 1095년(현종 1)에 동여진 奉國將軍 豆門 이 내헌하자 왕이 접견하여 변방의 정세를 탐문하는 것을 볼 때 고려도 여진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었고, 이전에 빈번하게 내조했던 이들의 동향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1104년(숙종 9)에 동여진 추장 烏雅束의 군대가 定州 관문 밖에 진을 치며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전까지 고려에 내조하는 여진인도 극히 소수였고, 다른 동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숙종 이후 여진과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尹瓘이 수십 만 명의 병력을 동원한 동북 9城 축조로 여진과의 관계가 영유권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2. 귀화정책의 강화와 기미주의 확대

문종은 즉위 초부터 동여진 번적의 침입에 적극적인 대응을 시행하였는데, 기미주에 대한 정책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1047년(문종 1)에는 추장 阿兜幹이 고려에 귀부하였다가 다시 거란에 조공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도병마사가 阿兜幹의 首領인 高之問 등이 蕃境에 있으니, 압송해서 투항한 이유를 묻고 법에 따라 처벌¹⁷⁷⁾해야 한다는 보고도 올렸다.¹⁷⁸⁾ 고려가 귀부한 동여진세력과 거란이 통교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은 1037년(정종 3)에 동여진인 沙伊邏가 서경으로 압송된 사례에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沙伊邏 등은 서경으로 압송되었다가 석방되어 고려에 귀부하지 않은 여진을 포섭하는데 활용하였다. 이후 1052년(문종 6)에 다시 高之問이 내조하

177) 高之問세력이 契丹에 내부한 사실에 대해서 고려가 배반하였다고 표현한 덕종~정종 대 고려의 對거란정책과는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미지, 「고려시기 對거란 외교의 전개와 특징」,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12, 167-171쪽)가 있다. 1037년(정종 3)에 酋長 沙伊邏가 契丹과 통교해서 압송한 사례, 契丹이 동북여진으로 가는 가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거부했던 사례 등을 볼 때 동여진지역이 契丹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안보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178)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2月. “丁卯 都兵馬使奏 東蕃酋長阿兜幹 內附以來 久承恩賞 背我投丹 罪莫大焉 其黨首領高之問等 今在蕃境 請密遣軍士 拘執入關 拷訊端由 依律科罪 從之”

는 것을 볼 때 다시 고려에 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종 초 기미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된 것은 1050년(문종 4)에 동여진의 大乞羅尼村과 小乞羅尼村과의 경계를 정하여 적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¹⁷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동북계 연해에 여진의 침입이 극심하자 각 城堡의 군인과 주민들을 초무하기 위하여 병부상서 楊鑑을 秋冬番兵馬使로 삼아 변경으로 보냈다.¹⁸⁰⁾ 먼 지방의 백성을 회유한다는 것에는 불안정한 변경지역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종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이며, 기미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가 여진 촌락을 기점으로 나누어 번적을 막겠다고 한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진 내부의 종속관계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미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1050년(문종 4년)에 고려에 침입했던 세력의 사절을 억류하거나, 문양렬 등이 해상에서 적의 본거지를 파괴한 강경책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1051~52년에는 북계 동북부 지역까지 육상에서 번적의 침입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납치되는 주민들의 수도 많았을 것이다. 번적의 침입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와 被擄人이 많이 송환된 시기는 연관이 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여진이라는 집단이 외교적인 주체로서 상대하기에 복잡하고 불확실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납치된 주민의 송환과 같은 문제에 대한 교섭이 힘들었고, 기미주의 여진인을 활용한 被虜人의 송환이 유용했을 것이다. 특히 여진인의 내조가 확인되지 않던 문종 초에 피로인 송환 사례가 확인되는데, 특별하게 입조를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미주의 여진인이 化外 여진을 초유하여 귀부시킨 사례는 정종 대에 많았는데, 1073년 흑수 출신 통역 加西老의 초유로 서여진의 여진부족도 대규모로 귀부한 것을 볼 때 정종 대 이후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다. 고려에 침입했던 번적의 수장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내조한 것은 沙伊羅가 보유한 세력이 번적을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외교적인 중재가 가능할 만큼 큰 세력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미주의 편제와 함께 화외 여진에 대한 초유정책도 병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沙伊羅는 1043년(정종 9)에도 寧塞將軍 冬弗老 등과 함께 化外 여진 80인을 데리고 내조하여, 고려에 귀부를 맹세하게 한 뒤 번적의 동향을 보고하겠다고 맹세하여 예물을

179)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4月. “檢定 東女眞 大小乞羅尼村 疆界 以備寇”

180)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6月. “制 東北界沿海城堡軍民 未獲安業 欲懷遠人 莫如慎簡元帥 宜以兵部尙書 楊鑑 爲今秋冬番兵馬使”

하사받았다.

그러나 和州館에 들어온 沙伊羅의 내조 요청에 대해서 고려 조정은 번적 출신 여진인 수백 여 명이 도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원을 나누어 차례대로 입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고려에 적대적인 세력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변경의 군사시설들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또 그들의 체류비용이나 대우문제가 있어서 내조 규모와 횡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여진 번적의 침입이 극심했던 1050년(문종 4)에는 여진에 대한 통교제한조치나 고려에 침입했던 것으로 밝혀진 세력의 사절들을 억류하는 강경한 조치가 많이 확인된다. 문종은 東北面兵馬錄事·衛尉注簿 朴庸載이 부임지로 떠나기 전에 蕃人 중에 입조를 원하는 자가 있더라도 賊首 那拂 외에는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는 蕃類 3백 명이 京館에 억류¹⁸¹⁾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那拂이 투항하거나 복속을 맹세할 경우 억류된 이들을 석방하고 통교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지시였을 것이다. 那拂은 동여진 번적 세력의 우두머리로 보이는데, 고려는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²⁾

그러나 崔沖은 동여진 추장 塩漢¹⁸³⁾ 등 86명이 고려를 침입한 죄로 억류되어 있으나, 여진인에게 고려의 형벌이 통하지 않는 점, 장기간 억류로 반감을 살 수 있는 점, 억류비용이 증가하는 점에서 송환할 것을 건의하자 돌려보냈다.¹⁸⁴⁾ 崔沖이 건의한 내용을 볼 때 沙伊羅를 체포해 오면서 강경해진 기미주에 대한 정책으로 고려에 침입했던 세력의 수장들을 압송해오거나, 번적과 연계된 세력의 사절들을 억류한

181)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1月. “丙午 東北面兵馬錄事衛尉注簿朴庸載陸辭 制 蕃人有欲來朝者非賊首那拂勿許入朝 以蕃類三百人 勒留京館故也”; 문종 초 여진인의 내조가 폭증하자 통교를 제한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근화, 「高麗前期의 女眞招諭政策」, 『백산학보』 35, 백산학회, 1988, 92쪽)가 있다. 그러나 문종 대(1046~1083)에 통교제한조치가 확인되는 시기는 번적이 침입이 많은 때였던 점, 같은 시기에 여진인의 내조나 내현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번적의 침입과 관련한 제재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또한 입조 인원을 보면 때에 따라 1백 명 이상이 동시에 내조하거나 수십 여 명 단위로 나눠지는데, 내조 인원 자체를 입국 시에 제한하고 나눠서 들여보내는 조치가 통교제한과 같은 때에 실행되었을 것이다. 특히 문종 대에 동·서여진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체류시한을 두는 공식적인 조치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여진인의 내조, 내현이 확인되지 않고, 고려인의 송환과 같은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182) 이근화, 「高麗前期 女眞招諭政策」, 『백산학보』 35, 백산학회, 1988. 99쪽.

183) 1050년(문종 4) 3월에는 동여진의 寧塞將軍 塩漢, 柔遠將軍 阿加主, 中尹 仍亏憲, 將軍 要羅那 등이 내현했는데, 塩漢 등은 고려에 침입한 전과가 밝혀지자 억류되었다(『高麗史』 卷7 『世家』 卷7 文宗 4年 3月. “…塩漢等十五人 以曾犯邊留之”). 塩漢은 내조기록이 많이 확인되는 인물이다. 1045년(정종 11) 동여진 懷遠將軍 鹽漢 → 1050년(문종 4) 동여진 寧塞將軍 塩漢 → 1050년 동여진 塩漢 등이 沒蕃人 송환 → 1054년(문종 8) 蕃人 鹽漢 → 1073년(문종 27) 所乙浦村 蕃長 鹽漢

184) 『高麗史』 卷95 列傳8 諸臣 崔沖. “…又奏 東女眞酋長塩漢等八十六人 累犯邊境 今勒留京館有日 夷狄人面獸心 不可以刑法懲 不可以仁義教 勒留既久 首丘之情 必深忿怨 且供費甚多 請皆放還 從之…”

사례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고려에 적대적인 세력을 결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고려의 입장에서 장기 억류하거나 유배를 보내는 것보다 회유하여 석방한 뒤 化外 여진초무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했을 것이다.

고려에 억류되었던 이들은 1043년(정종 9)에 서경으로 압송되었다가 석방된 후 여진초무에 활용된 沙伊羅가 포섭했던 번적이 494명의 일부로 개경에 계속 억류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는 포로였던 여진인을 개경에 억류하는 경우도¹⁸⁵⁾도 있었고, 특정 기술을 가진 여진인의 來投나 정치적인 망명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개경에 머무르게 한 여진인도 있었다.¹⁸⁶⁾ 억류되어있던 여진인들에 대한 송환결정이 내려진 후 이듬해에는 廣仁館에 구금되어 있던 阿骨 등 77명을 풀어주고 돌려보냈는데,¹⁸⁷⁾ 이들도 입조를 제한한 1050년(문종 4) 정월 이전에 억류되었던 이들이었을 것이다. 1052년(문종 6)에 발생한 치담역 전투와 1053년(문종 7) 高之問의 침입도 이러한 강경조치에 대한 반발과 보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050년대에는 기미주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여진 추장들이 납치된 고려군이나 고려주민을 돌려보내는 기록도¹⁸⁸⁾이 많이 확인된다. 번적에게 납치된 고려인을 송환하는 것은 1050년(문종 4) 동여진 추장 骨羅介 등이 내조하여 ‘被擄人’ 남녀 4명을 돌려보낸 기록에서 처음 확인된다. 같은 해에는 동여진 阿加主·塩漢·沙伊羅 등이

185) 『遼史』卷15「本紀」第15 遼 聖宗 耶律隆緒 六, 開泰 2年 冬10月. “丙寅 詳穩張馬留獻女直人知高麗事者 上問之 曰 臣三年前爲高麗所虜 爲郎官 故知之 自開京東馬行七日 有大砮 廣如開京 旁州所貢 珍異 皆積于此 勝 羅等州之南 亦有二大砮 所積如之 若大軍行由前路 取曷蘇館女直北 直渡鴨綠江 並大河而上 至郭州與大路會 高麗可取而有也 上納之”

186) 개경에 내투했던 여진인을 송환한 기록(『高麗史』卷4 世家4 顯宗 13年 12月. “癸丑 西女眞魚尼底來告 親姑曾隨投化人味那來 住大國京都 已經數年 思戀本蕃 乞以土馬贖之 卽命放歸 還其馬”), 북여진 출신 장군이 홀로 내투하자 개경 인근에 머무르게 한 기록(『高麗史』卷6 世家6 靖宗 6年 9月. “壬申 北女眞將軍 尼迂火骨輔來投 賜田宅 處之圻內”), 여진 毛工이 내투하자 編戶한 기록(『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 6年 4月. “戊午 女眞氈工古舍毛等六人來投 賜田廬 以充編戶”), 거란이 여진을 침입하자 고려에 피난을 와서 정착하여 고려의 관직을 받은 이들도 있었다(『高麗史』卷3 世家3 成宗 4年 5月. “...且女眞逃難 受本國官職者 十數人尙在 望召赴京闕 令入貢之使庭辨 庶幾得實 願達天聰國...”).

187) 『高麗史』卷7 世家7 文宗 5年 4月. “乙未 制 放還廣仁館 拘留 東女眞 賊首 阿骨等 七十七 人”

188) 동여진 酋長 骨羅介가 내현하며, 蕃에 잡혀갔던 남녀 4명을 구해서 돌려보내자, 금색비단을 하사한 기록(『高麗史』卷7 世家7 文宗 4年 7月. “戊申 東女眞酋長骨羅介等來 獻土物 又贖還沒蕃男女四人 賜金帛”), 동여진의 阿夫漢 등 33명이 駿馬를 바치며 蕃에 잡혀갔던 6명을 돌려보내자, 職과 賞을 내린 기록(『高麗史』卷7 世家7 文宗 7年 2月. “丁丑 東女眞阿夫漢等三十三人來 獻駿馬 又贖還沒蕃六人 職賞有差”), 동여진 懷化將軍 古刀達 등 30명이 말을 바치며, 沒蕃人도 돌려보내자 예물을 내리고 작위를 높여주는 기록(文宗 7年 7月. “辛酉 東女眞懷化將軍 古刀達等三十人來 獻馬 并還沒蕃人 賜物加等”), 동여진 柔遠將軍 尼多弗 등 28명이 내현하여 駿馬를 바치며, 被擄人 信金·位奉·暹禮 등 세 명을 돌려보내는 기록(『高麗史』卷7「世家」卷7 文宗 8年 10月. “冬十月 乙未 東女眞柔遠將軍 尼多弗等二十八人來 獻駿馬 歸我被擄人信金位奉暹禮等三人...”), 동여진 歸德將軍 霜昆 등 22명이 고려의 被虜人을 구해서 돌려보낸 기록(『高麗史』卷8「世家」卷8 文宗 25年 3月, “辛丑 東女眞 歸德將軍 霜昆等 二十二 人 購還 我被虜人”)이 확인된다.

번적에게 납치되었던 정변진 副將 皇甫冲과 隊正 宋迎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1046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변진 전투에서 납치되었던 이들로 추정된다. 또 1053년(문종 7)에는 동여진의 阿夫漢 등 33명이 내헌하여, 번인에게 납치되었던 주민 6명을 贖錢을 내고 구해서 돌려보내자 차등을 두어 향직과 예물을 하사했다. 또 懷化將軍 古刀達 등이 번인에게 잡혀갔던 고려인을 돌려보내자 차등을 두어 작위와 상을 내렸고, 1054년(문종 8)에도 柔遠將軍 尼多弗 등 28명이 말을 바치면서 ‘沒蕃人’ 信金·位奉·暹禮 등 3명을 송환하였다.

이후 한동안 확인되지 않다가, 1071년(문종 25)에 한 차례 확인된다. 1051~52년(문종 5~6)에는 북계 동북부 지역까지 육상에서 번적의 침입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납치되는 주민들의 수도 많았을 것이다. 번적의 침입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와 被擄人이 많이 송환된 시기는 연관이 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여진이라는 집단이 외교적인 주체로서 대응하기 힘든 집단이기 때문에 납치된 주민의 송환과 같은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교섭이 힘들었기 때문에 기미주의 여진인을 활용한 被虜人의 송환이 유용했을 것이다. 혹은 여진의 입장에서는 번적의 침입이 극심했던 시기에 통교제한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들의 입조가 있었던 것은 고려의 압력이 있었거나, 기미주의 여진수장들이 통교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 개인적인 공을 바라고 송환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는 피납 고려인을 송환한 여진 추장에게 예물을 하사하거나, 작위를 높여주는 등 보상을 해주며 독려하였다. 이들이 피납 주민을 송환한 것은 개인적인 보상을 바라거나, 고려와의 관계를 고려한 자발적인 성격도 있을 것이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沙伊羅처럼 고려에 압송되었다가 피로인 송환¹⁸⁹⁾이나 여진초무에 활용된 여진 세력도 있었다. 이외에도 고려에 내투하는 이들이 납치된 고려인을 송환하는 사례나 1052년(문종 6)에 毛阿眞이 沒蕃人 남녀 16명을 데리고 귀환한 일도 있었다.¹⁹⁰⁾

덕종~정종 대(1031~1046)에 鄉職의 증가와 함께 장군호의 부여도 늘어났는데, 문종 대에도 將軍號를 보유한 여진인의 내조·내헌이 많이 확인된다. 이는 문종 대에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將軍號 외에 ‘大將軍’이나 ‘將軍’으로만 표기된 경우도 많은데, 빈번하게 내조하는 인물들의 將軍號가

189) 동여진의 阿加主·塩漢·沙伊羅 등이 靜邊鎮 副將 皇甫冲과 隊正 宋迎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1046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靜邊鎮 전투에서 납치되었던 이들로 추정된다.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4年 8月. “八月 辛巳 東女眞阿加主塩漢沙伊羅等 歸我沒蕃靜邊鎮副將 皇甫冲 隊正 宋迎”

190) 毛阿眞은 ‘沒蕃人’으로 지칭되는 점에서, 양계지역에 거주하던 내투 여진인으로 추정된다.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6年 4月, “壬寅 沒蕃人毛阿眞率男婦十六人還”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¹⁾ 將軍號는 명예적인 칭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려가 부여한 將軍號가 그들의 신분을 구속하거나, 여진사회의 종속관계에 직접적인 지배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작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려와의 관계나 여진세력의 관계, 부족 내의 지위를 고려하여 부여했을 것이므로 작위의 서열이나 상승정도는 고려와 해당세력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가 將軍號나 鄉職 등 작위를 지닌 이들에게 관인과 같은 물질적인 지표를 내린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후술할 기미주의 확대와 재편 과정에서 朱記를 내린 것을 볼 때 문서나 인장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여진 수장들은 將軍號의 보유나 상승이 고려와의 관계가 밀접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고려와의 안정적인 통교 권한 자체가 여진세력 내부에서 명예적인 지위와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실리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내조가 많고 고려에 협력할수록 작위가 상승하고 예물을 하사받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종 대에는 대에 하위의 將軍號가 몇 차례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면 將軍號의 존재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鄉職도 마찬가지였다. 문종 대에 두 차례에 걸친 동여진 정벌 이후로 여진과의 관계가 단절상태였던 시기를 제외하면 내조나 내헌하는 여진인은 매년 일정하게 있었던 것을 볼 때 현종 대에는 鄉職이나 將軍號를 부여하는 정책이 많이 없고, 기존에 회유한 세력과의 관계유지에만 주력했을 가능성이 있다. 鄉職과 같이 將軍號가 증가하는 시점도 덕종~정종 대(1031~1046)이다.

덕종~정종 대(1031~1046)에 將軍號 보유 여진인이 증가했다는 것은 동·서번 인식의 출현과 기미주의 적극적인 편제과정에서 기존의 관계를 격상시키거나, 축성이나 번적 구축에 참여한 공로에 따른 보상 등으로 폭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종 연간에는 하위의 장군호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동북 三城의 축조나 寧遠鎮, 平虜鎮의 축성이 본격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여진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종 대에는 초기부터 기미주나 번적에 대한 대응이 직접 적의 본거지를 파괴하거나 여진 지역 자체의 경계를 확정하는 등 여진 내부에 개입하는 일이 많아졌다. 문종은 긴 재위기간 만큼이나 將軍號가 많이 확인되는데, 하위의 將軍號가 폭증하는 것은 새롭게 부여받는 이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將軍號는 대를 이어 변경

191) ‘大將軍’이나 ‘將軍’으로만 기록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을 수비한 기미주의 여진촌락의 주장이나 자제에게 부여되거나, 내현이 많은 이들에게 將軍號를 높여주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將軍號는 무분별하게 부여된 것은 아니며, 특정한 공헌이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따른 귀화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고려가 여진인에게 將軍號를 부여한 과정과 將軍號가 변화하는 과정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G-1. 西女眞 酋長 懷德의 부친 尼于弗¹⁹²⁾이 대대로 변경에서 공을 세우자, 아들인 懷德에게 ‘奉國將軍’을 내렸다.¹⁹³⁾

G-2. 知西北面兵馬事 王佇가 보고하여, “西蕃의 酋長 阿夫渙 등 아홉 명은 마음을 다해 요새를 지키고 있으니 작위를 올려주고 상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왕이 阿夫渙 등 세 명은 柔遠將軍으로, 山豆 등 여섯 명은 懷化將軍으로 임명하고 차등을 두어 물품을 내렸다.¹⁹⁴⁾

선대부터 고려의 변방수비에 참여한 여진인의 아들에게 조상들의 공헌에 따라 높은 將軍號를 부여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또 西蕃의 阿夫渙 등은 변방수비에 대한 공헌으로 집단적으로 부여하는 기록도 볼 수 있는데, 1081년(문종 35)인 점에서 1080년에 있었던 2차 동여진 정벌 이후 번적의 침입을 막는데 공헌했거나, 종군했던 이들일 가능성이 있다. 변방에서 수비에 공헌한 여진인에게 동시에 다양한 將軍號를 부여하는 것은 처음 확인된다. 단순히 협력 때문만은 아니며, 동여진 정벌 이후 인접지역의 여진인이 적대적인 세력에 가담하지 않게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의 여진인에게 부여한 將軍號는 『高麗史』 武散階와 다른 무산계로 볼 수 있는데, 懷化將軍(正3品 上), 懷化大將軍(正3品 下), 歸德將軍(從3品 上), 歸德大將軍(從3品 下), 寧遠將軍(正 5品 上)은 당의 武散階에서도 확인되는 칭호이다.¹⁹⁵⁾ 그런데 『高

192) 1018년(현종 9) 동여진 尼于弗이 내조하자 鄉職을 부여. → 1023년(현종 14) 女眞 酋長 尼于弗이 내조 → 1031년(현종 22)에는 동여진 尼于弗이 내현 → 1033년(덕종 2) 서여진인 將軍 尼于弗 → 1035년(정종 1) 서여진 大將軍 尼于弗 → 1042년(정종 8)에는 將軍 尼于弗이 내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24年 8月, “制 西女眞 酋長 懷德 父 尼于弗 自先朝有邊功 授懷德 奉國將軍”

193) 阿加主는 1041년(정종 7) 동여진 奉國將軍 阿加主 → 1047년(문종 1) 동여진 平遠大將軍 阿加主 → 1050년(문종 4) 柔遠將軍 阿加主와 懷化將軍 阿加主 → 1050년(문종 4) 동여진 阿加主 → 1056년(문종 10) 동여진 奉國將軍 阿加主 → 1060년(문종 14) 동여진 歸德大將軍 阿家主 → 1062년(문종 16) 동여진 歸德大將軍 阿加主가 확인된다.

194)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5年 1月. “丁未 知西北面兵馬事 王佇奏 西蕃酋長阿夫渙等九人 專心保塞 宜加爵賞 命以阿夫渙等三人爲柔遠將軍 山豆等六人爲懷化將軍 賜物有差”

195) 金美葉, 「高麗前期 鄉職·武散階의 重複支給研究」, 『성신사학』, 동선사학회, 1990, 36쪽.

麗史』에 나타나는 武散階와 같은 칭호는 寧遠將軍만 확인된다. 이 將軍號는 1064년(문종 18)에 高之知, 1083년(문종 37)에 防鎭에게만 부여되었다.¹⁹⁶⁾ 그런데 1세기 동안 寧遠將軍이 두 차례만 확인되고 『高麗史』 백관지에서 확인되는 다른 무산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여진에게는 독자적인 무산계를 부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여진과 비교해볼 만한 대상은 탐라인데, 내헌한 탐라의 城主나 왕자에게는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武散階¹⁹⁷⁾를 부여¹⁹⁸⁾한 것이 확인된다. 또 將軍號와 鄉職을 동시에 보유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鄉職에서 將軍號로 높여주는 사례만 확인되는 점에서 鄉職보다 將軍號가 더 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⁹⁹⁾ 그렇기 때문에 덕종~정종 대 將軍號가 많이 나타나고, 문종 때부터 鄉職이 사라지는 것은 오랜 교류가 있던 세력의 여진의 작위가 누적되면서 상승한 것이고, 하위의 將軍號가 늘어나는 점은 기미주의 확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부한 여진인에 대해서 將軍號나 鄉職과는 다른 ‘都領’²⁰⁰⁾이라는 호칭도 확인된다. 고려에서 都領이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은 威鷄州에서 일어났던 都領이자 將軍이었던 開老 살인 사건이다. 또 1073(문종 27) 5월 동여진의 귀부가 일어났던 상황에서 귀순주에는 都領과 副都領이 확인된다. 또한 益昌州와 恩服州, 溫州에도 도령이 확인되며, 그러나 都領이라는 호칭은 여진의 ‘部’나 ‘村’의 재지수장이나 고려에서 파견한 관리거나 지방 유력향인 집단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都領이라는 칭호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1038년(정종 4)에 開老 살해사건 에서 威雞州의 都領·將軍 開老가 보유한 것인데, 이전에 내헌하는 여진인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

196) 寧遠將軍을 고려의 무산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金美葉, 「高麗前期 鄉職·武散階의 重複支給研究」, 『성신사학』, 동선사학회, 1990, 임경희, 「高麗前期 女眞人에 대한 '將軍'과 鄉職 授與」,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97) 『高麗史』 卷77 「志」 卷31 百官2 武散階. “國初 武官亦以大匡正匡佐丞大相爲階 成宗十四年 定武散階 凡二十有九 從一品曰驃騎大將軍 正二品曰輔國大將軍 從二品曰鎭國大將軍 正三品曰冠軍大將軍 從三品曰雲麾大將軍 正四品上曰中武將軍 下曰將武將軍 從四品上曰宣威將軍 下曰明威將軍 正五品上曰定遠將軍 下曰寧遠將軍 從五品上曰遊騎將軍 下曰遊擊將軍 正六品上曰耀武將軍 下曰耀武副尉 從六品上曰振威校尉 下曰振威副尉 正七品上曰致果校尉 下曰致果副尉 從七品上曰翊武校尉 正八品上曰宣折校尉 下曰宣折副尉 從八品上曰禦侮校尉 下曰禦侮副尉 正九品上曰仁勇校尉 下曰仁勇副尉 從九品上曰陪戎校尉 下曰陪戎副尉 今以見於史冊者考之 則武官皆無散階 其沿革廢置未可考”

198) 1024년(현종 15)에 내조한 탐라 추장 周物과 아들 高沒에게 처음으로 무산계인 雲麾大將軍 上護軍을 내린 기록이 확인된다. 『高麗史』 卷5 世家5 顯宗 15年 7月. “壬子 以耽羅酋長周物子高沒 並爲雲麾大將軍 上護軍”

199) 1031년(德宗 즉위) 將軍 阿豆間 → 1034년(德宗 3) 左尹 阿刀間 → 1034년(德宗 3) 奉國將軍 阿刀間 → 1036년(靖宗 2) 正甫 阿道間 → 1037년(靖宗 3) 동여진 正甫 阿道間 → 1040년(靖宗 6) 元尹 阿豆簡 → 1042년(靖宗 8) 歸德將軍 阿兜幹 → 1043년(靖宗 9) 추장 阿豆幹 → 1047년(文宗 1) 酋長 阿兜幹. <표 6> 1073년(文宗 27) 귀화 여진인에 대한 賜爵·賜姓名 참조.

200) 박옥걸, 「高麗 ‘都領’에 관한 再檢討」, 『史學研究』 58·59 合集, 1999; 강성봉, 「발해수령과 고려 도령의 상관성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42, 고구려발해학회, 2012; 강성봉, 「발해수령과 고려 도령의 상관성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42, 고구려발해학회, 2012.

는 점, 1073년(문종 27)에 기미주名이 확인되면서 都領·副都領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東·西蕃 인식이 형성되면서 기미주의 大·小 촌락 우두머리에게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1073년에 기미주의 수장들이 거주지역을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한 기사에서 都領과 將軍號, 都領과 鄉職을 같이 지니는 점과, 한 기미주에 두 명의 都領이 있는 점, 都領이라는 칭호만 보유한 인물과 함께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각 기미주의 우두머리에게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1073년 2월에는 城州 都領 奉國大將軍 蘇德이 내헌하는데, 甑·城州에서 都領·奉國將軍 耶好와 歸德將軍·吳沙弗이 확인되므로 都領은 기미주에 여러 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都領이 각 村의 대표격으로 표현되는 점, 1073년 5월에 고려 측 蕃軍이 연합했을 때 각 村 都領이 휘하의 병력을 이끌었던 것으로 볼 때, 독자적으로 병력을 보유한 대·소 촌락의 수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01(숙종 6) 이후로는 都領의 성명이 고려의 성명으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양계지역에서 도령이 나타나는데, 특정 단위 부대의 지휘관의 역할로 변화했다.²⁰¹⁾

이러한 귀화정책은 1073년(문종 27)에 절정에 다다랐다. 1073년 1년 간 기미주 이북 여진인의 내부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²⁰²⁾ 특히 2월에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확인되는데, 기미주로 추정되는 각 州의 수장들이 고려에 군현으로 편입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歸順州의 도령이자 大常인 古刀化²⁰³⁾와 부도령인 古舍, 益州와 昌州의 도령인 歸德將軍 高舍와 도령 黔夫, 甑州와 城州의 도령인 奉國將軍 耶好와 歸

201) 발해에서 촌락의 규모에 따라 都督과 刺史, 大首領과 首領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박옥걸, 「高麗 ‘都領’에 관한 再檢討」, 『史學研究』 58·59 合集, 1999, 563쪽; 강성봉, 「발해수령과 고려 도령의 상관성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42, 고구려발해학회, 2012, 232-235쪽.

202) 1130년(仁宗 8)에는 金 太宗이 保州를 고려에 주는 대가로 고려의 양계지역에 내투하한 여진인과 후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는 동여진 민호들이 정착한 지 오래되어 많은 인구가 사망했기 때문에 송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盈歌의 다섯째 아들인 完顏 勗이 추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자 종결된다(박한남, 「고려 인종대 對金定策의 성격 : 保州讓與와 投入戶口推刷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 한국중세사학회, 1996, 58-70쪽). 동·서여진의 집단적인 내투는 이전에도 몇 차례 기록으로 확인되나, 1073년(문종 27)에 집중된다. 이후 1080년(문종 34)에 2차 동여진정벌이 시행된 이후 여진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사라졌다. 숙종~예종 대에도 수천 여호가 남하한 사례가 있으나 장성 이남으로 들어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073년 이후에 내투한 여진인들이 북계에 정착했다는 견해(김유나, 「高麗 前期 北界民의 위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2013.)가 있는데, 내조 여진인을 ‘북계 蕃長’들로 지칭했던 점을 들었는데, 이전에 집단으로 내투했던 여진부락을 배치한 점과 다른 점, 당시 契丹·여진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도 납득하기 힘들며, 사료에서는 ‘關外’의 蕃長들로 ‘淸塞關外’, ‘昌州關外’, ‘平虜關外’, ‘북계 四關外’로 기록한 점을 볼 때 북계 동북부 경계지역으로 남하하여 고려의 장성 경계지역에 정착했던 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3) ‘古刀化’로 지칭한 기록도 확인된다. 『高麗史節要』 卷5 文宗 仁孝大王 2 癸丑 27年, “二月 東女眞 歸順州 都領 古刀化 等…”

德將軍 吳沙弗, 恭州의 도령인 奉國將軍 多老와 番長 巴訶弗, 恩州와 服州 도령인 元甫 阿忽과 도령 那居首, 溫州의 도령인 三彬과 阿老大, 誠州의 도령인 尼多弗 등이 내부하여 고려의 郡縣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려가 여진인들에게 부여한 고려식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73년(문종 27)에 동여진인들이 대규모로 귀부했던 사례에서 확인된다(〈표 4〉). 내투한 여진인들은 모두 都領·副都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將軍號만 보유했거나, 都領과 將軍號를 모두 보유한 인물도 있다. 내투한 이들에게 부여된 성명은 모두 변방의 안정을 기원하는 의미이다.²⁰⁴⁾ 귀부한 여진인들은 내조횟수가 많은 이들이며 각 기미주 여진 촌락의 蕃長과 부하들로 추정된다. 기미주가 편제되거나 고려에 編籍되는 과정에서 공헌도를 따져 고려식 성명을 부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1073년(文宗 27) 귀화 여진인에 대한 賜爵·賜姓名²⁰⁶⁾

州名	귀부 시 爵位·姓名	성명변화	작위변화
歸順州	都領·大常 古刀化	孫保塞	懷化大將軍
	副都領 古舍	文格民	大常 ²⁰⁵⁾
益州	都領 高舍	張誓忠	懷化大將軍
昌州	都領 黔夫	康績	大常
甌州	都領·奉國將軍 耶好	邊最	奉國大將軍
城州	都領·歸德將軍 吳沙弗	魏蕃	懷化將軍
恭州	都領·奉國將軍 多老	柳咸賓	奉國大將軍
	番長 巴訶弗	盧守	大常
恩州	都領·元甫 阿忽	楊東武	歸德將軍
服州	都領 那居首	張大垣	大常
溫州	都領 三彬	韓方鎭	大常
	都領 阿老大	高從化	大常
誠州	都領 尼多弗	趙長衛	大常

204) 박옥걸,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국학자료원, 1996, 191쪽. 박옥걸은 귀화라는 관점에서 이들에게 부여된 賜姓과 賜爵을 분석하였는데, 정확하게는 기미주에 대한 정책과 연관된다.

205) 大常은 大相과 같은 작위로 추정된다.

206)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2月, 乙未, 박옥걸, 『高麗時代의 歸化人 研究』, 국학자료원, 1996, 190쪽 <표 16>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6>은 1073년(文宗 27)에 기미주의 여진 추장들이 재차 귀부하며 고려에 군현 편입을 요구한 기록에서 확인되는 賜爵·賜姓을 정리한 것이다. 고려가 부여한 성명이 이후에도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²⁰⁷⁾ 高舍²⁰⁸⁾와 三彬²⁰⁹⁾은 예전 성명 그대로 내투하고 있는데, 賜爵과 같이 상징적인 의미가 컸을 것이다.²¹⁰⁾ 이밖에도 1049년(문종 3)에 내헌한 麻離害²¹¹⁾도 1078년(문종 32)에는 성명을 하사하고, 鄉職을 내렸다. 또 方鎭이라는 성명은 1077년(문종 31)과 1083년(문종 37)에 확인되는데, 韓方鎭일 가능성도 있는데 내조시기에 따라 大相에서 懷化將軍, 寧遠將軍으로 鄉職에서 將軍號를 받고, 將軍號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²¹²⁾ 반대로 高烈과 高孟과 같이 고려의 중앙관직을 받고 활동한 이들은 계속 부여받은 성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것은 기미주의 여진인과 내투인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고려에 협력한 대가로 고려식 성명을 하사받는 기록은 1073년(문종 27) 이후에 확인되는데, 化內 여진촌락 연합군과 번적 사이에서 벌어졌던 ‘羅竭村 전투’에서 定州郎將文選과 함께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미주 밖의 여진의 포섭을 했던 흑수인 加西老에게 監門衛 散員을 내리고, 高孟이라는 성명을 하사한 사례이다.²¹³⁾ 내투인의 경우에는 高孟 이전에 高烈²¹⁴⁾이 확인되는데, 黑水출신으로 군공을 세워서

207) 金南奎, 「高麗前期의 女眞觀-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加羅文化』 12, 慶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1995, 144쪽. 김남규는 1089년(宣宗 6)에 내헌한 高舍가 酋長이라고 지칭된 점에서 동명인이라고 추정했으나, 將軍號나 鄉職을 수여받더라도 이후에 酋長이나 首領으로 지칭된 사례가 확인되는 점, 賜姓名이 賜爵과 같이 명예를 부여하는 성격이 강했던 점에서 같은 인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1092년(宣宗 9)에 내조한 三彬이 동일인물이라 하더라도 부여받은 성명을 사용하지 않는 점은 다른 지위에 있던 것이라고 보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高舍의 사례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8) 1047년(문종 1) 서여진 高舍 → 1071년(문종 25) 동여진 歸德將軍 高舍 → 1073년(문종 27) 益昌州 都領·歸德將軍 高舍 → 1089년(선종 6) 동여진 酋長 高舍 → 1102년(숙종 7) 서여진 高舍가 확인된다. 1071~1089년의 高舍는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209) 三彬은 韓方鎭으로 개명되었는데, 1092년(선종 9)에 동여진 懷化將軍으로 내헌했다. 『高麗史』 卷10 「世家」 卷10 宣宗 9年 2月, “東女眞 懷化將軍 三彬等 來 獻馬”; 三彬이 1073년(문종 27)과 같은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견해(金南奎, 「高麗前期의 女眞觀 -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加羅文化』 12, 慶南大學校 加羅文化研究所, 1995.)가 있으나, 고려식 성명의 부여는 賜爵과 같은 성격의 명예적인 칭호였기 때문에 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투인이 부여받은 성명과는 차이를 두었다.

210) 남인국, 「高麗前期의 投化人과 그 同化政策」, 『歷史教育論集』 8,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1986, 107쪽.

211) 1049년(문종 3) 동여진 麻離害 → 동여진 歸德大將軍 摩里害 → 동여진 歸德將軍 摩離害 → 동여진 麻里害

212) 『高麗史』 卷8 世家8 文宗 24年 8月. “制 西女眞 酋長 懷德父 尼亏弗 自先朝有邊功 授懷德 奉國將軍” 1070(문종 24)에 서여진 추장 懷德의 부친 尼亏弗이 변경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들이 懷德에게 奉國將軍을 내렸다는 기사에서 懷德도 대를 이어 고려에 협력한 것에 대해서 고려식 이름을 내린 경우로 추정된다.

213)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7月. “丙午 制曰 黑水譯語 加西老諭東蕃 爲州縣 可授監門衛散員 賜名高孟”, 박옥걸, 고려시대 귀화인의 역할과 영향 - 기술적,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3.

고려의 관직과 성명을 하사받은 인물이다. 高烈은 1041년(정종 7)에 徐訥 등과 함께 重大匡에 올랐고, 1044년(정종 10)에는 兵部尙書로 번적의 침입 경로였던 長州·定州·元興鎭 축성 과정에서 번적을 몰아내는 데 군공을 세운 인물이다.²¹⁵⁾

H-1. “東北邊 15州 외곽에 사는 蕃人들이 계속 歸附하면서 郡縣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宗廟와 社稷의 靈 덕분이다. 宰臣들이 먼저 연유를 알리고, 멀고 가까운 蕃人들이 완전히 귀부해 와서 州縣을 拓定한 후에 친히 宗廟와 社稷에 공손하게 감사를 드리겠다. 이 의례와 태자의 대행 여부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상세히 논의한 후 알려라.”²¹⁶⁾

H-2. 서북면병마사가, 西女眞 酋長 曼豆弗 등 諸蕃들이 저들에게도 東蕃의 例에 따라 州郡으로 分置해 준다면 영원히 藩翰이 되어 거란에 복속된 여진(‘契丹蕃人’)과는 통교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아뢰었다. 王이 입조를 허가하며, 이후에도 投化者가 있으면 招諭해서 받아들이라고 지시했다.²¹⁷⁾

H-3. 서북면병마사가 아뢰길, “平虜鎭 인접 지역에 있는 蕃帥 柔遠將軍 骨於夫와 覓害村의 要結 등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본래 伊齊村에 거주하면서 거란의 大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招諭와 己酉年(문종 23, 1069) 11월에 내조해서 후한 대접을 받았고, 官職도 받게 되어 감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거주지가 4백 리나 떨어져 있어서 왕래가 매우 힘듭니다. 狄耶好 등 다섯 가호 함께 거란에 복속된 여진인(‘契丹化內蕃人’)들을 覓害村으로 옮겨 附籍한 뒤 영원히 고려의 藩屏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조사해보니 35가호에 호구가 2백 52명이니 이들을 등재하게 해주십시오.”²¹⁸⁾

化外 여진촌락의 귀부와 기미주 여진촌락의 편입요청은 반세기를 넘어 기미주를 경영했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려의 회유정책만 영향을 끼쳤다고 단

214)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7年 11月,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10年 11月,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4月 ; 『高麗史』 卷7 「世家」 卷7 文宗 10年 閏3月.

215) 『高麗史』 卷6 世家6 靖宗 10年 11月. “...出戰有功 一科 攝兵部尙書 高烈等 十人 次一科 少府監 柳喬等 五人 二科 大樂丞 鄭霸等 五人 亦加褒賞 以勸後來...”; 1046년(문종 1)에는 守司空尙書左僕射에 올랐고, 1056년(문종 10)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던 명장으로 평가받으며 사망했다. 『高麗史』 卷7 世家7 文宗 元年 4月. “乙丑 以武臣 高烈 守司空尙書左僕射 何興休 守工部尙書” ; 高烈이 죽자 왕은 사흘 간 조회를 중지시켰고, 백관들에게 장례에 참석하게 했다.

216)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4月. “丙子 制曰 東北邊十五州外蕃人 相繼歸附 願置郡縣 于今不絕 此實賴 宗廟 社稷之靈 其令宰臣 先告事由 待遠近畢納 款拓定州縣而後 親行恭謝其行禮及太子攝事之儀 有司詳議以聞”

217)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5月. “五月 丁未 西北面兵馬使奏 西女眞酋長曼豆弗等諸蕃請依東蕃例 分置州郡 永爲蕃翰 不敢與契丹蕃人交通 制 許來朝 因命後有投化者 可招諭而來”

218)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5月. “...平虜鎭近境蕃帥柔遠將軍 骨於夫及覓害村 要結等告云 我曾居伊齊村 爲契丹大完 職名 邇者 再蒙招諭 於己酉年十一月赴朝 厚承恩賚 且受官職 不勝感戴 願所居去此 四百里 往復爲難 請與狄耶好等五戶 引契丹化內蕃人 內徙覓害村附籍 永爲藩屏”

정할 수는 없으며, 完顏部 여진의 흥기와 거란의 압제에서 이탈하는 목적에서 나온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¹⁹⁾ 고려의 동북 경계에 있었던 15州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기미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고려의 州郡으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왕이 친히 주현을 개척하여 疆界를 획정한 뒤 宗廟와 社稷에 알리겠다는 것은 편입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동여진의 귀부가 서여진 지역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여진 酋長 曼豆弗 등이 ‘東蕃’의 예에 따라 주군으로 편성해 줄 경우 고려의 蕃이 되어 거란에 복속된 여진과는 통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霜毘의 사례나 흑수인 통역 加西老에게 東蕃을 초유하는데 공헌한 대가로 고려식 성명과 관직을 하사하는 사례를 볼 때 化外 여진촌락의 귀부에는 고려의 지시를 받아 기미주 여진인들의 적극적인 초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계 이북에 인접했던 기미주 외곽이나 거란에 복속되어 있던 서여진지역의 여진촌락이 대규모로 귀부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서북면 지역에서 나타난 서여진인의 내현이나 내투사례를 볼 때, 平虜鎮, 淸塞鎮, 寧遠鎮 지역 이북의 촌락들로 추정된다.

고려의 여진초무는 태조 이후부터 북방정책의 하나로 전개되었는데, 덕종 이후 장성 이북의 여진촌락을 통제했던 고려의 정책에 서여진 지역도 동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거란에 복속되어 관작을 받았던 여진인들이 직접 입조하여 고려에 귀부하려는 의사를 밝히는데, 이전에도 거란의 관작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이나 복속되었던 여진인들이 내투한 사례는 확인되는데, 고려의 기미주로 편성해달라는 요청이 같이 확인되는 점은 특기할만한 현상이다. 1073년(문종 27)에 발생한 동·서여진의 집단적인 귀부에 대한 고려의 입장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I-1. 동북면병마사가 아뢰길, “三山, 大蘭, 支櫛 등 아홉 개의 촌락, 所乙浦村 蕃長 鹽漢, 小支櫛 前里 蕃長 阿反伊, 大支櫛 羅其那烏 安, 撫夷州 骨阿伊 蕃長 所隱豆 등 1천 2백 38호가 와서 附籍을 청하였습니다. 大支櫛에서 小支櫛 裏應浦 해변에는

219) 김순자,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연구회, 2012,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학회, 2012. 1071년(문종 25)에 고려는 宋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는데, 宋과의 통교 재개가 여진의 동향에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시기 여진의 동향이 급변한 것은 完顏 여진의 세력확대와 여진 諸부족의 결속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 외부적인 정세변화에 따른 장성 이북 여진의 남하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의 기미주도 영향을 받아 고려의 군현으로 편제해줄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의 군현으로 편제된다는 것은 고려의 군사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이며, 고려의 군사력을 통해 안위를 꾀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된다. 특히 문종 때 두 차례의 정벌은 여진 내부에서 고려의 국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장성이 7백리에 이릅니다. 이제 諸蕃이 歸順이 끊이지 않는데 關防을 설치하여 막아서는 안됩니다. 해당 관청에 명하시어 州號를 정한 뒤에 朱記를 내리십시오.”²²⁰⁾

I-2. 翰林院에서 아뢰길, 東女眞의 大蘭 등 11개 촌락의 內附者들이 濱州, 利州, 福州, 恒州, 舒州, 濕州, 閩州, 戴州, 敬州, 付州, 宛州 등 11개 州를 요청하니, 朱記를 내려 歸順州에 소속시켜 주십시오.”²²¹⁾

I-3. 동로병마사가 아뢰길, “東蕃의 大齊, 者古, 河舍 등 12村의 蕃長인 昆豆와 魁拔 등 1천 9백 7십호가 霜昆의 例에 의거하여 內附를 요청했고, 豆龍, 骨伊, 餘波漢 등 部落의 蕃長 阿老漢 등이 州縣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멀어서 예전에는 朝覲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歸服하는 것입니다. 만약 封疆을 정하여 關防을 설치한다면 餘波漢 밖의 齊遮古, 大史伊, 稱見, 昆俊, 丹俊, 無乙比, 化豆 등은 경계가 없는 곳으로 蕃戶들이 이동하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요새를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영역 밖의 諸蕃들이 州縣으로 편입된 후 점차 먼 곳의 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²²²⁾

동계 이북에서 化內 촌락들이 고려에 귀부를 요청하며 무려 1천2백 38호가 內附하는 현상도 확인된다. 동북면병마사는 關防으로 막아서는 안되며 州號를 정하여 朱記를 내려 기미주로 편제할 것을 청하고 있다. 또 같은 달에는 동여진의 12개 촌락의 1천 9백 70호가 고려의 기미주에 속한 霜昆의 예에 따라 귀부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전에 朝覲한 일이 없었다는 점은 化外 여진으로 볼 수 있는데, 고려에 인접했던 동여진 지역 이북에서도 동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여진촌락의 동시다발적인 귀부에 대해서 실제 여진 기미주로 편제할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을 통해 기미주를 통제하고자 했던 정종 이후 고려의 기미주에 대한 정책을 볼 때 귀부한 여진촌락이 접근하기 힘든 지리적인 위치인 점, 광대한 지역인 점에서 장성 경계지역의 여진촌락을 편제한 것과 같이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역의 기미주가 편

220)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6月, “戊寅 東北面兵馬使奏 三山 大蘭 支榑等 九村 及所乙浦村蕃長鹽漢 小支榑 前里 蕃長 阿反伊 大支榑 與 羅其那 烏安 撫夷州 骨阿伊 蕃長 所隱豆 等一千二百三十八戶 來 請 附藉. 自大支榑 至小支榑 裊應浦 海邊 長城 凡七百里 今諸蕃 絡繹 歸順 不可遮設 關防 宜令有司 奏定州號 且賜朱記 從之”

221)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9月, “戊寅 東北面兵馬使奏 三山大蘭支榑等九村 及所乙浦村蕃長鹽漢 小支榑前里蕃長阿反伊 大支榑與羅其那 烏安 撫夷州 骨阿伊蕃長所隱豆等一千二百三十八戶來 請附藉 自大支榑 至小支榑裊應浦海邊長城 凡七百里 今諸蕃 絡繹歸順 不可遮設關防 宜令有司 奏定州號 且賜朱記 從之”

222)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6月, “乙未 東路兵馬使奏 東蕃大齊者古河舍等 十二村蕃長 昆豆魁拔等一千九百七十戶 請依霜昆例內附 又豆龍骨伊餘波漢等部落蕃長阿老漢等 亦願爲州縣 此輩所處遼遠 在古未嘗朝覲 今皆歸服 若定封疆 設關防 則餘波漢嶺外齊遮古 大史伊 稱見昆俊丹俊無乙比 化豆等 壤地無際 蕃戶連居 不可窮塞設險 請待領外諸蕃 盡爲州縣 然後漸至遠蕃 許之”

제되어 안정된 이후 확대할 것을 보고한 것이다. 기미주의 성격상 자치권을 지닌 채로 고려에 내조와 내헌을 하는 형태의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같은 시기 契丹과의 관계에서 여진문제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고려는 귀부한 여진촌락을 기미주로 재편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하였는데, 함림원에서 6월에 귀부한 大蘭 등 11개 촌락을 11개 기미주로 정하여 朱記²²³⁾를 내리며, 歸順州에 편입하였다(사료 I-1·2). 朱記를 내렸다 하더라도 각 여진촌락의 자치적인 질서는 인정했으며, 고려의 행정관이 파견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즉 朱記는 고려에 복속을 맹세하여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고려에 귀부했던 支櫛村·那發村·襄臥立村·大信村·西好村·無主其村의 蕃長들이 집단으로 내헌하는 모습도 확인된다.²²⁴⁾ 이 시기 여진의 동요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1080년 2차 번적 구축 이후에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단절되었는데, 1081년(문종 35)에는 동·서여진 酋長 중에 입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병마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개경에 들여보내도록 하는 규정이 공식화되었다.²²⁵⁾ 또 같은 해 5월에는 개경에 입조하더라도 보름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공식화되는 등 고려 내부에서 여진인의 입국을 규제하는 조치가 확인된다.²²⁶⁾ 또 서여진인 漫豆가 내투하자 예빈성에서 옛 제도에 의거하여 귀환한 沒蕃人이나 宋人으로 재주가 있는 자 외에 黑水女眞의 입국은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를 한다.²²⁷⁾ 이는 1080년 여진과의 충돌이후 다시 여진과의 관계를 차단하고자 했던 강경론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은 漫豆일족을 編戶하여 받아들였다.

1080년(문종 34)에 있던 2차 동여진 정벌이 종결된 이후, 북방의 번적을 구축하는

223) 김남규, 「高麗前期의 女眞觀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가라문화』 12,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원, 1995, 143쪽.

224)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27年 7月. “秋七月 壬寅朔 有司言 東北面兵馬使所奏 支櫛村那發村襄臥立村大信村西好村無主其村等 部落蕃長 請貢方物名馬 制從之”

225)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5年 2月. “二月 辛酉朔 西女眞酋長遮亶等六人來 獻鐵甲兵仗 賜衣帶綵帛有差 制曰 凡東西酋長欲來見者 兵馬使申報 取旨後 方許赴闕 以爲永制”

226)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5年 5月. “五月 己丑 東女眞酋長陳順等二十三人來 獻馬 制曰 凡蕃人來朝者 留京毋過十五日 並令起館 以爲永式”

227) 『高麗史』 卷9 世家9 文宗 35年 8月. “八月 己未 西女眞漫豆等十七人 挈家來投 禮賓省奏曰 舊制 本國邊民 曾被蕃賊所掠 懷王自來者 與宋人有才藝者外 若黑水女眞 並不許入 今漫豆亦依舊制遣還 禮部尙書 盧旦奏曰 漫豆等雖無知之俗 慕義而來 不可拒也 宜處之山南州縣 以爲編戶 從之”

데는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귀부했던 여진이나 기미주의 여진과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 羈縻州는 직접적인 지배가 힘든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의 관계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단절될 수 있다. 특히 11세기 만주와 연해주에 할거하던 여진은 예측하기 힘든 동향을 보였기 때문에 고려의 羈縻州 설치와 귀화정책의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1073년에 확인되는 고려와 여진의 관계를 볼 때 1세기에 걸친 고려의 여진 羈縻州 운영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羈縻州의 여진세력도 고려의 지원을 얻어 자신들의 세력을 결속시키고, 경제적인 이익도 도모했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관계였을 것이다. 또 고려는 내부적으로 적대적인 북방민족과의 직접적인 대치로 인한 국력소모를 줄이고, 장성과 양계지역을 항구적인 영토로 안정화시키는데 공헌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12세기 초 尹瓘의 9성 축조도 단순히 12세기 고려와 여진 간의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11세기 고려의 영향권에 있었던 羈縻州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IV. 結論

11세기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현종, 덕종~정종, 문종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동여진 번적의 침입과 대응양상, 여진 기미주의 설치와 확대과정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종 대(1009~1031)는 거란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던 시기였는데, 거란의 침입과 함께 동해안에 침입한 동여진 해적에도 대응해야 했다. 중 대 동여진 출신 해적은 울릉도와 일본 남부까지 침입하였는데, 활동범위가 동해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1019년 이전과 1028~29년에 침입이 집중되었다. 고려는 목종 대 큰 피해를 입은 후 동여진 해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동해안 지역의 축성과 수군의 정비로 동여진 해적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현종은 해적의 수장을 입조시켜 작위를 하사하고, 예물을 주는 회유정책을 실시하려 했으나 강경론에 밀려 진행하지 못하였다. 현종 초에는 동여진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30城 부족과 같은 동여진의 세력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같은 시기 내조·내헌한 여진인의 출신지역은 동·서여진 외에도 黑水·靺鞨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는 등 다양한 정치집단과 교류했던 시기였다. 또 여진인이 보유한 작위나 칭호에서 鄉職과 將軍號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11세기 초 여진과의 관계는 10세기 여진과의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기였다.

덕종~정종 대(1031~1046)는 對여진관계가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덕종 초 북방 경계지역에서 城·鎭·戍 등 군사시설이 확대되었으며, 장성의 축조로 북방 민족과의 관념적·지리적 경계선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던 여진촌락들은 고려군의 관리 하에 편입되거나 북방으로 구축되었다. 또 양계 지역 鎭·城 밖에서 산거하던 여진촌락은 정착하였다. 특히 정종 대(1034~1047)에는 내헌하는 여진인의 출신지역이 ‘동·서번’으로 구분되며, 鄉職과 將軍號를 부여받은 여진인의 내조·내헌이 폭증한다. 이는 장성 북부 지역에서 여진촌락들이 기미주로 편제되던 시기와 유사한데, 군사적인 복속을 바탕으로 귀화정책이 실시되었을 알 수 있다.

덕종~정종 대부터는 기미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고려에 귀부한 여진 추장이 거란에 다시 내공하자 해당 세력의 수장을 서경으로 압송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피로인의 송환, 고려에 귀부하지 않은 여진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초유로 기미주

의 확대를 추진하였다. 같은 시기 기미주에 거주하던 세력과 내투한 여진인도 고려의 북방축성이나 경계지역 수비에도 참여하는 등 고려의 방어체제 정비와 군사작전에도 여진인의 참여가 늘어났다. 동여진 해적의 침입도 계속되었지만, 현종 대에 비해 규모나 횡수는 줄어들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동여진 번적들이 육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경계지역에서의 교전이 많아졌는데, 고려의 축성이나 기미주의 편제과정에서 반발했던 여진과의 충돌로 판단된다.

문종 대(1047~1083)에는 육·해상으로 침입하는 여진에 대한 대응은 더 강경하게 대응하였고, 기미주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어 기미주와 번적의 영역을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종은 즉위 후부터 방어시설의 경제기반을 재건하거나, 전과에 대한 포상과 문책의 즉각적인 시행, 신무기의 개발과 병사들의 복지 개선 등 내부적인 군제정비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강경노선에 힘을 실었다. 고려는 번적의 본거지를 육·해상으로 직접 공격해서 파괴하는 등 이전의 수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1050년대에 번적의 침입이 심해지며 鎭과 驛이 포위당하자 1061년(문종 15)에 김단 휘하의 삼군을 장성 이북으로 파병하여 1차 동여진정벌을 단행하였다. 1차 번적 구축 이후 동·서여진과의 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단절되었으나, 한동안 번적의 침입은 사라졌다.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번적의 침입은 육·해상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에 1080년(문종 34)에도 문정 휘하의 3만 명을 장성 이북으로 파병하여 번적의 본거지를 단시간에 파괴하고 적대적인 세력의 장수들을 압송하여 귀환하였다. 문종 대 두 차례의 정벌은 번적을 북방으로 구축하여 기미주에 속한 친고려적인 여진촌락을 보호하고 기미주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문종 대에는 정벌 전후나 번적의 침입이 심한 시기에 여진의 내조·내헌이 차단되었는데, 여진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국경폐쇄조치도 있었다.

덕종~정종 대는 내조·내헌하는 여진인이 鄉職을 보유한 사례가 많았고, 將軍號의 수여가 증가하였다. 문종 대에도 기미주나 기미주 이외의 지역에서 來朝·來獻하는 여진인에게 將軍號를 부여하여 포섭하였다. 또 공헌도와 협력도에 따라 작위를 올려주고 예물을 하사하는 귀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1073년에는 여진 내부 정세가 급변하면서 동·서여진촌락이 대규모로 고려에 귀부하였고,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촌락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고려의 郡縣을 설치해달라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는 대외환경의 변화와 함께 1세기에 걸친 고려의 초유와 기미주의 안정적인 운영

도 영향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080년(문종 34) 2차 동여진 정벌 이후 12세기 초 完顔部 여진과의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고려와 기미주의 관계는 단절되어, 기미주의 존재는 상실된다. 이후 고려-여진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로 격상되어 尹瓘의 여진정벌과 동북 9城의 축조의 실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고려가 기미주를 설치하고 고려의 영향권으로 유지하려 했던 이유는 장성의 축조로 이전과는 다른방식의 북방정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太祖 이후 특정 지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남계 주민을 사민하여 점유하는 방식의 북진정책을 시행하여 북방영토를 점진적으로 영토화하였다. 그러나 장성이 축조되어 경계가 획정되면서 불분명한 외교대상과 직접 경계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고, 불안정한 북방정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려에 우호적인 여진을 중심으로 한 기미주를 북방민족과의 완충지역이자 군사적인 방어선으로 설정한 것이었다.

고려가 설치한 여진 기미주는 직접적인 지배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 느슨한 형태의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문종 대 번적 세력이 고려의 기미주를 위협했을 때 기미주를 포함한 여진에 대해서 국경을 폐쇄했던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진은 대외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人面獸心’의 존재였다. 그러나 10~11세기 초 거란과의 전쟁을 통해 국력이 소모된 상황에서 동여진의 침입에 대비하는 데에는 유용했던 정책이었다. 또 거란과의 압록강 지역 영토분쟁이 계속되어 서북면에서 긴장상태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동북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불가피했던 정책이었다.

고려가 양계지역을 특수행정구역으로 둔 이유 자체가 북방 정세의 불안과 북방경계의 유동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내투하는 渤海·契丹·여진인을 수용하고, 고려인을 사민시켜 개발하는 정책과 외세의 대응을 병행해야 했던 대외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정세에서 고려는 외교주체가 불확실했던 여진을 대상으로 羈縻체제를 운영하여 적대적인 세력에 대한 대비로 양계지역을 항구적인 영토로 점유하고, 경계 지역의 여진촌락을 장기적으로 고려의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해 귀화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특10세기 북진정책, 12세기 金과의 북방경계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고려전기 기미주의 존재와 귀화정책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參考文獻>

1. 基本史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朝鮮王朝實錄』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 『遼史』 『金史』

2. 年表·目錄

백산학회, 『鮮卑·蒙古·契丹·女眞關係史 論攷』, 백산자료원, 1999.
고려사학회, 『高麗時代史論著目錄』, 경인문화사, 2000.
장동익,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綜合年表』, 동북아역사재단, 2009.

3. 研究著書

김위현 역, 『國譯 遼史』 상·중·하,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
국사편찬위원회, 『국사상의 제문제』 4, 국사편찬위원회, 195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 탐구당, 2013.
국학자료원, 『朝鮮學報』 21·22, 朝鮮學會, 1961.
동북아역사재단, 『김옥불의 동북통사』 상·하, 동북아역사재단, 2007.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7.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2009.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일 학계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쟁점』, 동북아역사재단, 2009.
동북아역사재단, 『宋史 外國傳 譯註』 1·2, 동북아역사재단, 2011.
김구진, 『女眞族의 社會構造』, 신서원, 1995.
김남규, 『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사, 1989.
김주원, 『조선왕조실록의 여진족 족명과 인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김위현,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4.
김위현, 『遼金史研究』, 유풍출판사, 1985.
김한규, 『한중관계사』 I·II, 아르케, 1999.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김용선, 『고려 금석문 연구』, 일조각, 2004.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 상·하,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노명호, 『고려국가와 집단 의식: 자위공동체·삼국유민·삼한일통·해동천자의 천하』, 서울

- 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 류영표 외, 『북방민족과 중원왕조의 민족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박옥걸, 『高麗時代의 歸化人研究』, 국학자료원, 1996.
- 박용운,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 신서원, 2009.
-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 방학봉, 『중국 동북민족관계사』, 대륙연구소, 1991.
- 이기백,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 이기백,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2002.
- 이진한,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 경인문화사, 2011.
- 임원빈 외,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2004.
- 윤영인 외,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윤영인 외, 『10~18세기 북방민족과 정복왕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근명 외, 『동북아 중세의 한족과 북방민족 : 최근 중국 학계의 연구동향과 그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이익주 외, 『동아시아 국제질서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정병준 외, 『중국학계의 북방민족 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정병준 외, 『중국의 발해 대외관계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채웅석,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2009.
-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 홍원기, 『고려전기 군제연구』, 혜안, 2001.

4. 研究論文

- 강성문, 「高麗初期 北界開拓에 대한 研究」, 『白山學報』 27, 白山學會, 1983.
- 강성봉, 『발해 수령과 고려 도령의 상관성 검토』, 『고구려발해연구』 42, 고구려발해학회, 2012.
- 김갑동, 「고려시대의 都領」, 『한국중세사연구』 3, 한국중세사학회, 1996.
- 김광수,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史叢』 21·22,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7.
- 김광수, 「高麗前期 對女眞交涉과 北方開拓問題」, 『동양학』 7, 동양학연구소, 1977.
- 김구진, 「契丹·高麗間의 女眞問題」, 『명지사론』 9호, 명지사학회, 1998.
- 김구진, 「麗末鮮初 豆滿江 流域의 女眞 分布」, 『백산학보』 15, 백산학회, 1973.
- 김구진, 「公嶮鎮과 先春嶺碑」, 『백산학보』 21, 백산학회, 1976.
- 김구진, 「尹瓘 9城의 範圍와 조선 6鎮의 開拓 -女眞 勢力 關係를 中心으로」, 『사충』 21·22, 고려대학교 사학회, 1977.

- 김남규, 「고려 前期 兩界地方의 原住·來投 女真人에 대하여」, 『경대사론』 8, 경남대 학교 사학회, 1995.
- 김남규, 「고려 中葉의 對女眞政策 - 宣宗·肅宗代를 중심으로」, 『가라문화』 13, 경남 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6.
- 김남규, 「高麗 睿宗代의 對女眞政策 -睿宗 2年 對女眞戰의 原因에 대한 考察을 중심으로」, 『경대사론』 10, 경남대학교 사학회, 1997.
- 김남규, 「高麗前期 兩界 鎭城 移住民에 대하여」, 『경대사론』 6, 경남대학교 사학회, 1991.
- 김남규, 「高麗前期의 女眞觀; 女眞懷柔政策과 관련하여」, 『가라문화』 20,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5.
- 김남규, 「高麗兩界 都領에 대하여」, 『논문집』 4, 경남대학교, 1977.
- 김남규, 「高麗都府署考」, 『사총』, 11, 고려대학교사학회, 1966.
- 김미엽, 「高麗前期 鄉職·武散階의 重複支給研究」, 『성신사학』 9집, 동선사학회, 1991.
- 김봉두, 「高麗前期 對女眞政策의 性格」, 『전통문화연구』 1, 조선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0.
- 김순자,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 한국역사 연구회, 2012.
- 김순자, 「고려전기의 거란(遼), 여진(金)에 대한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26, 한국중세사 학회, 2009.
- 김순자,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 학회, 2012.
- 김위현, 「高麗對宋遼金人投歸의收容策 ; 918-1146」, 『사학지』 16, 단국대학교 사학회, 1982.
- 김위현, 「契丹·高麗間의女眞問題」, 『명지사론』 9, 명지사학회, 1998.
- 김위현, 「完顔部의 女眞統合策」, 『청파노도양박사고회기념논문집』, 명지대학교 출판부, 1979.
- 김정현, 「고려시대 영동지역의 海防遺跡 연구」, 『강원문화사연구』 15, 강원향토문화 연구회, 2010.
- 나만수, 「高麗前期의 對女眞政策과 尹瓘의 北征」, 『군사』 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 남인국, 「高麗前期의 投化人과 그 同化政策」, 『역사교육논집』 8-1, 역사교육학회, 1986.
- 노명호,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 105, 한국사연구회, 1999.
- 민현구, 「고려 前期의 對外關係와 國防政策 : 文宗代를 中心으로」, 『아세아연구』 41 -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
- 박경안, 「高麗人들의 女眞族에 대한 認識과 對外關係」, 『경기향토사학』 9, 문화원경 기도지회, 2004.

- 박옥걸, 「高麗 ‘都領’에 관한 再檢討」, 『한중인문학연구』 3, 중한인문과학연구회, 1998.
- 박이순, 「唐·日本·高麗에 있어서의 '蕃'·'歸化'에 대한 인식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2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 박종기, 「고려 전기 주민 구성과 국가체제 -來投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3,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방동인, 「高麗의 東北地方境域에 關한 研究 : 特히 尹瓘의 九城設置範圍를 中心으로」, 『영동문화』 1,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80.
- 방동인, 「高麗의 成長과 北方政策」, 『백산학보』 47, 백산학회, 1996.
- 방동인, 「高麗前期 北進政策의 推移」, 『영토문제연구』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 서병국, 「高麗時代 女眞交涉史 研究」, 『논문집』 6-1, 관동대학, 1978.
- 송용덕, 「1107~1109년 고려의 葛懶甸 지역 축성과 ‘尹瓘 9城’ 인식」, 『한국사학보』 43, 고려사학회, 2011.
- 송용덕, 「고려의 一字名 靺廝州 편제와 尹瓘 축성」, 『한국중세사연구』 32, 한국중세사학회, 2012.
- 송용덕,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한국사론』 5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5.
- 신수정, 「고려 문종대 女眞의 동향과 고려 영토」, 『송실사학』 30, 송실사학회, 2013.
- 신안식, 「高麗前期의 北方政策과 城郭體制」, 『역사교육』 89,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신안식, 「高麗前期 兩界制와 ‘邊境」, 『한국중세사연구』 18, 한국중세사학회, 2005.
- 신안식,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군사』 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윤무병, 「高麗北界地理考」 上, 『역사학보』 4, 역사학회, 1952.
- 윤무병, 「高麗北界地理考」 下, 『역사학보』 5, 역사학회, 1953.
- 이기백, 「高麗의 北進政策과 鎮城」, 『軍史』 창간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 이근화, 「高麗前期의 女眞招諭政策」, 『백산학보』 35, 백산학회, 1988.
- 이근화, 「高麗前期의 北方築城」, 『역사와 담론』 15, 호서사학회, 1987.
- 이동복, 「遼末女眞社會의 構成 (I) : 黑水와 黑水靺鞨」, 『논문집』 17-1, 청주대학교, 1984.
- 이동복, 「遼末女眞社會의 構成 (II) : 三十部女眞의 問題」, 『인문과학논집』 3,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4.
- 이동복, 「金初 女眞社會의 構成 : 猛安謀克戶의 編成」, 『역사학보』 106, 역사학회, 1985.
- 이동복, 「生女眞社會의 成長과 金 建國」, 『백산학보』 64, 백산학회, 2002.
-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30호, 고려사학회, 2008.
- 이효형, 「高麗前期의 北方認識 - 발해·거란·여진 인식 비교」, 『지역과 역사』 19, 부경역사연구소, 2006.
- 임경희, 『高麗史』 世家 중 女眞 관계 기사 역주, 『한국중세사연구』 20, 한국중세사학회, 2006.

- 전영준,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 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 전영준, 「11~12세기 전후 麗·宋 양국의 문화인식과 『高麗圖經』」, 『다문화콘텐츠연구』 1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
- 전영준, 「고려시대 異民族의 귀화 유형과 諸정책」, 『다문화콘텐츠연구』 13,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2.
- 최규성, 「高麗初期 女眞問題의 發生과 北方經營」, 『백산학보』 26, 백산학회, 1981.
- 최규성, 「高麗初期의 女眞關係와 北方政策」, 『동국사학』 15·16, 동국사학회, 1981.
- 최규성, 「高麗 初期의 北方領土와 九城의 위치비정」, 『백산학보』 76호, 백산학회, 2006.
- 최덕환, 「993년 고려-거란 간 갈등 및 여진 문제」, 『역사와 현실』 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 추명엽,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한국사연구회, 2005.
-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 추명엽, 「11世紀後半~12世紀初 女眞征伐問題와 政局動向」, 『한국사론』 4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001.
- 한규철, 「高麗 來投·來往 女眞人: 渤海流民과 관련하여」, 『부산사학』 25·26, 부산사학회, 1994.
- 한성주, 「고려시대 東女眞·東眞兵의 강원지역 침입에 대하여 : 東女眞 海賊의 침입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허인욱, 「高麗 中期 東北界에 대한 考察」, 『백산학보』 59, 백산학회, 2001.

<附錄>

<표 1> 11세기 현종~정종 대(1009~1047) 將軍號 보유 여진인

번호	성명	출신	將軍號	出典
1	弗那	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顯宗 11年 03月
2	摩底介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顯宗 12年 02月
3	阿闕那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顯宗 15年 05月
4	耶古伽	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顯宗 16年 01月
5	阿骨	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顯宗 16年 01月
6	陶老	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顯宗 16年 01月
7	居閭鬱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顯宗 17年 01月
8	阿骨	黑水靺鞨	歸德大將軍	『高麗史』 顯宗 18年 02月
9	阿駕	黑水靺鞨	歸德大將軍	『高麗史』 顯宗 18年 02月
10	高豆	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顯宗 19年 01月
11	阿骨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顯宗 19年 03月
12	蘇勿蓋	東女眞	奉國大將軍	『高麗史』 顯宗 21年 05月
13	陸史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 顯宗 21年 12月
14	阿骨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 顯宗 21年 12月
15	闕那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 顯宗 21年 12月
16	阿箇朱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顯宗 21年 12月
17	阿志大	西女眞	寧塞大將軍	『高麗史』 德宗 卽位年 06月
18	大宛沙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卽位年 06月
19	伊羅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卽位年 06月
20	古於夫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卽位年 08月
21	阿豆閒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卽位年 08月
22	烏於那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德宗 卽位年 08月
23	開老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德宗 卽位年 09月
24	毛伊羅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卽位年 11月
25	尼冬	西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德宗 01年 06月
26	也於浦	西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德宗 01年 06月
27	也半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德宗 01年 07月
28	開老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德宗 01年 07月
29	要乙乃	東女眞	奉國大將軍	『高麗史』 德宗 01年 09月
30	開多閒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02年 01月
31	寶伎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02年 01月
32	阿於乃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02年 01月
33	居於蔚	東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02年 02月
34	尼弓弗	西女眞	將軍	『高麗史』 德宗 02年 03月
35	古於夫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德宗 02年 04月
36	居伊羅	西女眞	懷化大將軍	『高麗史』 德宗 02年 06月
37	主達	東女眞	柔遠大將軍	『高麗史』 德宗 03年 02月

38	阿刀間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 德宗 03年 03月
39	伊羅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德宗 03年 04月
40	骨甫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德宗 03年 05月
41	尼仇刀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 德宗 03年 06月
42	毛伊羅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德宗 04年 01月
43	高之問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 德宗 04年 02月
44	尼于弗	西女眞	大將軍	『高麗史』 德宗 04年 08月
45	吳多	東蕃	歸德將軍	『高麗史』 德宗 04年 09月
46	沙羅	東蕃	懷化將軍	『高麗史』 靖宗 02年 01月
47	阿骨	東蕃	寧塞將軍	『高麗史』 靖宗 02年 01月
48	開老	東蕃	將軍	『高麗史』 靖宗 02年 01月
49	阿骨	東女眞	將軍	『高麗史』 靖宗 02年 09月
50	要耶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 靖宗 02年 10月
51	烏乙耶	東女眞	將軍	『高麗史』 靖宗 02年 11月
52	姚乙道	東女眞	奉國大將軍	『高麗史』 靖宗 02年 12月
53	尼句豆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靖宗 03年 05月
54	阿留大	東女眞	將軍	『高麗史』 靖宗 03年 10月
55	高之問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靖宗 04年 01月
56	仇知羅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靖宗 04年 03月
57	阿豆	東蕃	懷化將軍	『高麗史』 靖宗 04年 08月
58	耶半	西北蕃	歸德將軍	『高麗史』 靖宗 04年 08月
59	高之問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靖宗 04年 12月
60	傜漁	東女眞	奉國大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01月
61	巴桀	東女眞	綏遠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01月
62	高寶	西北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01月
63	傜寶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02月
64	阿骨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03月
65	仍保	西北女眞	寧塞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03月
66	慕伊羅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06月
67	耶盤	西北女眞	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09月
68	沙伊羅	東女眞	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10月
69	董化盧	西北女眞	將軍	『高麗史』 靖宗 06年 10月
70	尼于大	西女眞	奉國將軍	『高麗史』 靖宗 07年 02月
71	所智羅	西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靖宗 07年 07月
72	波乙達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 靖宗 07年 08月
73	沙伊羅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 靖宗 07年 11月
74	耶於盖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 靖宗 07年 11月
75	阿加主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 靖宗 07年 12月
76	阿兜幹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 靖宗 08年 01月
77	高之問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 靖宗 08年 02月
78	耶於盖	西北女眞	寧塞將軍	『高麗史』 靖宗 08年 03月

79	耶伊弗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靖宗 08年 06月
80	骨盖	西女眞	歸德將軍	『高麗史』靖宗 09年 01月
81	開老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09年 03月
82	沙伊羅	女眞	柔遠將軍	『高麗史』靖宗 09年 04月
83	尼多弗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09年 04月
84	冬弗老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靖宗 09年 09月
85	沙伊羅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靖宗 09年 09月
86	耶沙盖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靖宗 09年 10月
87	仇羅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10年 05月
88	阿刀閒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10年 09月
89	沙伊羅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10年 09月
90	包伎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10年 09月
91	高豆老	西女眞	大將軍	『高麗史』靖宗 10年 09月
92	仇尼道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10年 09月
93	烏乙達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10年 11月
94	阿豆主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靖宗 11年 01月
95	巴乙達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靖宗 11年 02月
96	鹽漢	東女眞	懷遠將軍	『高麗史』靖宗 11年 03月
97	要於那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11年 04月
98	高陶化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靖宗 11年 04月
99	高之問	東女眞	將軍	『高麗史』靖宗 11年 09月

<표 2> 11세기 문종~현종 대(1047~1095) 將軍號 보유 여진인

번호	성명	출신	將軍號	出典
1	沙伊羅	東女眞	歸德大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03月
2	耶於害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03月
3	烏於乃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05月
4	老道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05月
5	耶思老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05月
6	無伊老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08月
7	阿豆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08月
8	高都達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10月
9	馬志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11月
10	高謝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卽位年 11月
11	仇羅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02年 01月
12	麻里弗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02年 01月
13	沙伊羅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02年 01月
14	沙時賀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02年 01月
15	都仇羅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02年 01月
16	高之智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文宗 02年 01月
17	阿豆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02年 09月
18	沙伊羅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文宗 03年 04月
19	塩漢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文宗 04年 03月
20	阿加主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04年 03月
21	要羅那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04年 03月
22	阿加主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04年 03月
23	豆也弗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05年 08月
24	包加主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06年 01月
25	高反知	西女眞	寧塞將軍	『高麗史』文宗 06年 01月
26	多老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06年 01月
27	沙時賀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06年 09月
28	古刀達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07年 07月
29	高遮	北女眞	寧塞將軍	『高麗史』文宗 08年 04月
30	尼多弗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文宗 08年 10月
31	尼多弗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文宗 09年 02月
32	沙支何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10年 12月
33	高都達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11年 05月
34	要於乃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11年 06月
35	多老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12年 04月
36	霜昆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12年 05月
37	多老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12年 11月
38	尼冬火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12年 12月

39	古刀達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文宗 12年 12月
40	居多佛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文宗 13年 02月
41	毛下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13年 01月
42	阿藺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14年 09月
43	阿家主	東女眞	歸德大將軍	『高麗史』文宗 14年 11月
44	分大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16年 06月
45	摩里害	東女眞	歸德大將軍	『高麗史』文宗 16年 10月
46	阿可主	東女眞	歸德大將軍	『高麗史』文宗 16年 10月
47	懷化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17年 02月
48	霜昆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17年 02月
49	馬離害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17年 11月
50	多老大	東女眞	綏遠將軍	『高麗史』文宗 17年 11月
51	阿符漢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19年 02月
52	吳火文	東女眞	將軍	『高麗史』文宗 19年 02月
53	仍蔚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21年 01月
54	霜緜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22年 01月
55	安矩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22年 06月
56	阿隣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22年 10月
57	沙於賀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23年 01月
58	尼于弗	西女眞	奉國將軍	『高麗史』文宗 24年 08月
59	紛泰	西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25年 01月
60	霜昆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25年 03月
61	高舍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25年 08月
62	沙於賀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25年 08月
63	麼舍乃	西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25年 11月
64	高舍	東女眞	懷化大將軍	『高麗史』文宗 27年 02月
65	耶好	東女眞	奉國大將軍	『高麗史』文宗 27年 02月
66	吳沙弗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27年 02月
67	多老	東女眞	奉國大將軍	『高麗史』文宗 27年 02月
68	阿忽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27年 02月
69	蘇德	東女眞	奉國大將軍	『高麗史』文宗 27年 02月
70	骨於夫	東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27年 05月
71	祖仰仁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28年 06月
72	所羅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28年 08月
73	古守	西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28年 09月
74	張向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30年 01月
75	開老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30年 01月
76	方鎮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31年 02月
77	康守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31年 11月
78	高亂	西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33年 06月
79	劉信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34年 03月

80	阿夫渙	西女眞	柔遠將軍	『高麗史』文宗 35年 01月
81	山豆	西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文宗 35年 01月
82	胡幹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35年 08月
83	姚彬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文宗 37年 02月
84	方鎮	東女眞	寧遠將軍	『高麗史』文宗 37年 02月
85	分那老	東女眞	將軍	『高麗史』宣宗 00年 03月
86	阿盧漢	東女眞	將軍	『高麗史』宣宗 04年 01月
87	怪八	東女眞	將軍	『高麗史』宣宗 04年 02月
88	西害	東女眞	歸德將軍	『高麗史』宣宗 06年 08月
89	阿於大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宣宗 07年 09月
90	皆多漢	東女眞	寧塞將軍	『高麗史』宣宗 08年 03月
91	三彬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宣宗 09年 02月
92	所羅	東女眞	懷化將軍	『高麗史』憲宗 00年 02月
93	豆門	東女眞	奉國將軍	『高麗史』憲宗 00年 02月

<표 3> 11세기 현종~현종 대(1009~1095) 鄉職 보유 여진인

번호	성명	출신	職名	出典
1	毛逸羅	東女眞	大匡	『高麗史』顯宗 16年 01月
2	噲拔	東女眞	大相	『高麗史』顯宗 20年 08月
3	開老	東女眞	元甫	『高麗史』德宗 卽位年 10月
4	古豆老	東女眞	元尹	『高麗史』德宗 01年 04月
5	加伊老	東女眞	正朝	『高麗史』德宗 01年 07月
6	大由	東女眞	甫尹	『高麗史』德宗 01年 08月
7	豆於甫	東女眞	正甫	『高麗史』德宗 01年 08月
8	也半	西女眞	大相	『高麗史』德宗 01年 07月
9	古刀化	東女眞	元甫	『高麗史』德宗 01年 07月
10	也乙漢	東女眞	大相	『高麗史』德宗 01年 09月
11	阿道閑	東北女眞	正甫	『高麗史』德宗 02年 04月
12	沙於下	西女眞	正位	『高麗史』德宗 02年 05月
13	古之門	東女眞	大相	『高麗史』德宗 02年 06月
14	古舍	東女眞	中尹	『高麗史』德宗 02年 06月
15	古毛漢	東女眞	中尹	『高麗史』德宗 20年 06月
16	烏頭那	東女眞	元甫	『高麗史』德宗 02年 10月
17	甫失	西女眞	甫尹	『高麗史』德宗 02年 12月
18	多老閑	東女眞	正朝	『高麗史』德宗 03年 01月
19	阿刀閑	東女眞	佐尹	『高麗史』德宗 03年 02月
20	毛烏	西女眞	元尹	『高麗史』德宗 03年 07月
21	大浦古之門	西女眞	正朝	『高麗史』德宗 01年 11月
22	阿道閑	東女眞	正甫	『高麗史』靖宗 03年 04月
23	馬波	東女眞	正甫	『高麗史』靖宗 06年 01月
24	孚巨	西北女眞	正朝	『高麗史』靖宗 06年 10月
25	阿豆簡	東女眞	元尹	『高麗史』靖宗 06年 12月
26	高支智	西女眞	大丞	『高麗史』靖宗 07年 01月
27	也賜老	東女眞	中尹	『高麗史』靖宗 07年 03月
28	伊盖	東女眞	大相	『高麗史』靖宗 07年 04月
29	烏夫	東女眞	正甫	『高麗史』靖宗 07年 06月
30	吳於達	東女眞	大相	『高麗史』靖宗 08年 04月
31	烏弗遮	東女眞	大相	『高麗史』文宗 01年 05月
32	仍亏憲	東女眞	中尹	『高麗史』文宗 04年 03月
33	古舍	東女眞	元甫	『高麗史』文宗 05年 07月
34	阿麟	東女眞	元甫	『高麗史』文宗 06年 02月
35	英孫	東女眞	中尹	『高麗史』文宗 08年 01月
36	分大	東女眞	正朝	『高麗史』文宗 12年 06月
37	吳史	東女眞	正甫	『高麗史』文宗 13年 02月
38	高史	東女眞	正甫	『高麗史』文宗 13年 11月
39	阿忽	東女眞	元甫	『高麗史』文宗 27年 02月
40	須于那	西女眞	元甫	『高麗史』文宗 33年 04月